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되어 왔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그 고유업무와 관련지워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학생청소년에 대한 문교부의 문교정책,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부의 노동정책,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무부의 교도정책 등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정책은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청소년정책이 있었을 뿐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스포츠·여가·레크레이션·예술 등에 관한 청소년정책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소외된 청소년, 예컨대 교육기회가 박탈되어 있거나 무직·미진학 청소년, 가두직업 청소년, 재수생, 미혼 부모 등의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의 청소년 행정조직과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반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마련되었다.¹⁾

청소년육성법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모두 포괄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건설하고 유용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그러므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없이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김영모 외, “한국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안”, 사회정책연구 제10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p.1.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제한된 자원과 욕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전체 청소년(1,380만명)중에서도 가장 보호를 요하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일차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학생들에 대한 문교정책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정책을 제외하면 기아·미아·가출아·부랑아를 수용보호하고, 빈곤가정에 생계비와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은 해방후 귀환동포의 자녀와 6.25적후 전쟁고아를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이혼한 가출·부랑아를 일시 보호하는 데 급급하였으며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정책과 수용된 아동의 자립·자활까지 포괄하는데는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시설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정책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즉 시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요보호정책을 수용 보호하는데만 초점을 두고,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생활보호사업 등은 이들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등 최소한의 물질적인 지원에만 그쳐서 두가지 접근 시책이 통일성을 갖기 어려웠다.

물론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다른 사회복지정책의 그것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1960~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국민의 총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어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자원이 크게 증가되었고 요보호 청소년의 성격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에 부응하며, 국가와 사회의 자원제공 능력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생활

과 욕구에 부응하며, 국가와 사회의 자원 제공능력에 맞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 배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고아 아닌 “고아”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배경을 파악한다.

2)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을 검토한다. 생활보호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최근에는 소년·소녀 가장지원사업으로까지 확대된 정부의 정책이 요보호 청소년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예방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3)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재가 요보호 청소년을 크게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빈곤가족으로 대별하여, 이들의 생활상태, 욕구, 그리고 문제를 파악한다.

4) 재가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 정책을 그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 시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을 검토한다. 6.25직후에 전쟁고아의 긴급구호를 위하여 크게 확대된 시설보호사업이 시설수용아동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였는지, 나아가 수용아동의 자립, 자활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6) 시설 요보호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시설 요보호 청소년을 성별, 교급별, 지역 등으로 대별하여, 이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한다.

7) 시설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시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정책을 그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8)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통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 재가와 시설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양 접근방법에 연계성이 부족하였음을 반성하며, 지역단위별로 두가지 지원방식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문지 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요보호 청소년의 양적·질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 주무부처의 공식자료인 보건사회부의 「보건사회통계」를 살펴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한국사회복지총람」,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김영모, 1972), 「요보호 아동의 장기전망과 대책」(한국복지정책연구소·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1981),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보고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등 연구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문헌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요보호 청소년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 그리고 그들을 보호·지원하는 보육사, 시설장과 총무, 자원봉사자, 행정공무원 등에게 그들의 직무와 관련지위서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설문하였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요보호 청소년 중 어느 한 부류, 특히 육아시설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족 등에 대하여서만 연구하거나, 요보호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관련집단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음을 반성하여 본 연구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관계집단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보호 청소년으로 육아시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가족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우 장애청소년 등도 요보호 청소년에 포함되었으나 장애청소년의 경우 다른 요보호 청소년의 일반적인 요인에 장애라는 특수한 요인이 추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시설의 청소년이 시설보호 청소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현재 시설에 수용보호된 청소년과 별도로 최근에 퇴소한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경우 흔히 소년·소녀가장 가족만을 요보호 청소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중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의 빈

곤, 부모 혹은 주된 부양자의 결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 청소년들은 보호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정도, 세대주 또는 주된 부양자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뉘고 그중에서 거택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자활보호를 받는 청소년보다 시설보호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가족과 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과 비교연구를 고려하여 재가 요보호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장 가족과 거택보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요보호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사람도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요보호 청소년을 대면하여 보호·지원한다고 판단되는 육아시설의 보육사, 시설장과 총무, 자원봉사자를 조사연구하였다. 또한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때, 현재 시설보호 청소년과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지원업무를 일선기관에서 맡고 있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여겨져서 이들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문지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표집방법을 달리하였다.

먼저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우 전국의 육아시설 224개 중에서 임의로 1/3 개소(75개)를 선정하여 각 시설에 시설청소년용 질문지 10부씩 우편 조사하였고, 퇴소 청소년용은 모든 육아시설에 2부씩 배포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시설장(참조 총무) 책임하에 학교급, 남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 시설의 청소년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설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관계 집단의 경우 전국 육아시설의 모든 시설장과 총무 각각 1인, 자원봉사자 2인 그리고 임의로 선정된 1/3개 시설의 보육사 7인에게 우편 조사하였다.

재가 청소년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행정공무원이 추천한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가족과 거택보호대상 청소년의 명단을 입수하여 우편조사하고, 일부는 특별시, 직할시,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 각각 1개소의 청소년에게도 질문지를 우송하였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육아시설이 소재된 지역의 시·군·구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을 선정하여 우편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된 표본과 회수, 분석된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표1-1〉 조사대상 표본

대 상 집 단	모 집 단	배포된표본	회수분석된표본	회수율
시설청소년	7,602	750	264	35.2
시설퇴소청소년		448	88	19.6
재가요보호청소년	14,415	780	269	34.5
시 설 장	224	224	46	20.5
총 무	224	224	61	27.2
보 육 사	1,459	525	297	56.6
자원봉사자		448	108	24.1
행정공무원		463	118	25.5
합 계		3,862	1,251	32.4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추계된 수치이다.

비고:1) 육아시설 청소년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주

2) 재가 요보호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장 가족과 거택청소년 중에서 소년가장가족임.

질문지 조사는 1990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방법론을 이수한 바 있는 대학생(사회복지학 전공)들이 부호화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SPSS에 의해서 빈도, 유의도 등을 파악하였다.

면접조사는 문헌조사와 질문지 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내용이나, 조사대상자의 생생한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현장감 있는 지원방안을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육아시설의 시설장과 총무보육사, 자원봉사자, 시설청소년과 퇴소청소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공무원 약간명씩이 있었다.

제 2 장

본 연구의 분석틀

제 2 장 본 연구의 분석틀

제 1 절 기존 연구의 검토

요보호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보호 청소년은 흔히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요보호 아동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고, 요보호 청소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상태를 열거하는데 그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의 강구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 몇가지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요보호 아동의 생활상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몇차례 시도되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김영모, 1972), 「요보호 아동의 장기전망과 대책」(한국복지정책연구소·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1981), 「육아시설 아동의 입소원인 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석산, 1984) 등이다.

이들 연구보고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모의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아동복지사업의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생활과 지원방안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정책은 그간의 많은 행정적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아동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의 정책적·전문적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서울시의 제정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의 모든 아동복지 시설과 수용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행하고, 서울 시민의 가용자원을 탐색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특히 문제아동에 대한 예방적 정책방향과 전문적 지도방안을

보색하고자 아동상담소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책, 시설수용아동의 실태와 선도책을 제안하였다.¹⁾

이 연구는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복지시설과 수용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요보호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에서 재소생활과 퇴소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5개 아동복지시설과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한꺼번에 연구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와 관련지워서 볼 때, 육아시설에서는 법인조직, 직원의 자질, 재원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고, 육아시설 아동에 대하여서는 고아의 성질,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각각 10면 정도의 분량으로 상세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을 제안하기에는 지면에 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의 거의 대부분은 기아·미아·가출아이고, 고아아닌 고아가 전체 수용아의 75%이었다는 사실 발견에 비추어 볼 때, 입소아동의 가족배경과 함께 재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이 연구는 아동복지시설과 그 수용아동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퇴소한 아동의 자립에 대한 연구가 빈약했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요보호 아동의 장기전망과 대책」은 선행된 연구보고서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한 역작이다.

이 연구는 1981년에 아동복지법의 개정 목적은 지금까지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도적 장치와 전문적 서비스가 미비되고 있었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성찰이 있었으며, 법제정 과정에 있어서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입법과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았다고 전제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해답도 제공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를 발견하며 따라서 80년대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한다.

1) 김영모,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아동복지사업의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1972, p.2.

아동복지법을 전문 개정할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심이 되었던 요보호 아동의 치료적이고 수용보호적인 대책 대신에 예방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고 빈약한 재정 지원상태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이 그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1980년대초)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은 무엇이고 그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치료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생된 요보호 아동의 변화와 욕구 및 전달체계 그리고 보호기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이 연구는 기·미아, 부랑아, 시설수용아의 특성과 욕구 및 대책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발생원인 지역사회(특히 빈곤지역과 영세민)와 그 예방사업인 탁아사업 그리고 직업보도사업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특성, 욕구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²⁾

이 연구는 김영모의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가 갖는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첫째로 요보호 아동을 각기 가출·부랑아, 영아·육아, 직업보도시설아동, 빈곤아동 그리고 탁아로 세분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기·미아, 부랑아, 시설수용아동의 주된 발생원인, 빈곤아동을 함께 연구하여 재가 요보호 아동을 시설보호 아동과 함께 요보호 아동의 범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10여년 전에 실시한 연구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지워서 볼 때, 이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인 기·미아, 가출·부랑아, 시설수용아와 이러한 아동의 주된 발생원인, 재가 빈곤아동에 대한 연계연구 또는 비교연구가 미흡하다. 즉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재가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는 빈곤가족(특히 영세민 세대주)의 극히 일부로서만 연구되었을 뿐이다.

또한 정책적 접근에서 볼 때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요보호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이 연구는

2) 한국복지정책연구소·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요보호 아동의 장기전망과 대책, 1981, pp.1~2

실태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정책 대안도 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앞절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각기 그 연구목적에 충실하고 있지만, 본 연구목적과 관련지워 볼 때, 요보호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 ① 요보호 청소년은 누구인가?
- ② 요보호 청소년을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하여 왔는가?
- ③ 요보호 청소년의 생활실태, 욕구와 문제는 무엇인가?
- ④ 요보호 청소년을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정책대상으로서 “요보호 청소년”이 아동복지법의 “요보호 아동”이란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고, 청소년육성법이 정한 청소년의 연령을 합성시키면 “요보호 청소년”의 법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요보호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청소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참조).

그런데 20세 이상의 성인을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것은 일반법인 민법의 입법취지와도 상치되므로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요보호 청소년”의 범주에 넣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에도 청소년육성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은 그 하한선을 상향시키고, 그 상한선을 하향시켜야 할 것이다. 최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선 청소년 담당자들은 청소년의 시작연령을 12~14세로

보는 사람이 가장 많고(62.7%), 청소년의 끝연령을 20세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38.0%), 응답자의 84.8%는 20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보호 청소년”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청소년”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책 대상으로서 요보호 청소년은 여러가지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인지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요보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②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③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었으며 보호자가 그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에는 고아, 미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소년·소녀가장 가족 등이 속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상당수가 가출아인데, 이들중 대부분은 결손가정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심신장애, 전염성질환, 성행불구, 친권남용, 학대, 친권상실, 경제적 빈곤, 마약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사례들이다. 제③의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요인이 중복된 사례이다.

그런데 요보호 청소년을 위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요보호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요보호 청소년을 일반청소년과 확연히 구분시키는 두가지 주된 요인인 부모(또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와 부양능력 여부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①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청소년

②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

③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능력도 없는 청소년

3) 최현, 청소년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p.35.

또한 현재 요보호 청소년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설보호 청소년과 재가 요보호 청소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① 아동복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요보호 청소년

② 집이나 복지시설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재가 요보호 청소년
위의 세가지 분류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방식은 청소년의 보호·부양의무자인 보호자가 어떻게 해서 요보호 청소년이 되었는지 쫓점을 맞춘 것으로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 방식은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 배경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정부가 요보호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대안밖에 없다. 이 분류의 결정적인 한계는 “보호자에게 인계된 요보호 청소년”이 또다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요보호 청소년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방식은 청소년을 부모의 존재 여부와 부양능력 여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 여부와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보호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상태, 이에 따른 욕구와 문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부모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도 없고, 부양능력도 없는 가정의 청소년에게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도 있고 부양의 능력이 있으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가능한 한 가정에 복귀시키는 가족치료사업,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상담사업의 개발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대책을 전제할 때 요보호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의 파악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점에서 요보호 청소년을 재가 요보호 청소년과 시설보호 청소년으로 나누는 세번째 방식은 보다 현실적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요보호 청소년에게 현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안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요보호 청소년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쫓점을 맞추으로써 실제로는 이들이 모두 요보호 가정에서 산출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고, 재가보호와 시설보호간의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현실적으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뉘어져 있음을 감안하되, 부모(또는 부양의무자)

의 유무와 부모의 부양능력에 따라서 요보호 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한다.

- ①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재가 요보호 청소년
- ②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재가 요보호 청소년
- ③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능력도 없는 재가 요보호 청소년
- ④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시설보호 청소년
- ⑤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출신의 시설보호 청소년
- ⑥ 부모(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능력도 없는 가정출신의 시설보호 청소년

위와 같은 분류는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행정위주나 시설운영 위주에서 요보호 청소년 당사자의 욕구와 자활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은 많은 전문인력과 물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전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누어 그 속에서 성별, 교급별, 지역별 등 청소년이 처한 속성 혹은 상황별로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보호·지원정책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시설보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보호지원 정책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들의 생활상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종의 질문지에서 대표적인 재가 청소년용, 시설 청소년용 설문지에서 분석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제가 청소년용 질문지에서 분석한 변수들

1. 일반사항

1) 성 별

나 이
거주지역

2) 보호대상

부의 학력
부의 직업
부의 생존여부
모의 학력
모의 직업
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
본인의 가장여부
가 족 수

2. 생 계

1) 가구의 월평균 수입액

빈곤의 원인
과거 빈곤여부
가사 의사결정자
수입증대 방안

2) 생계보호 충분정도

의료보호 충분정도
교육보호 충분정도
민간단체의 도움

3) 월평균 지출액

걱정되는 지출내용
가계수지
(적자시) 충당방안

4) 주거 상태

사용방수
방 사용자 구성
취사 담당자
희망주거 지원방안
임대료 부담능력
옷 만족도
식사 만족도

한달 용돈

용돈 사용처

5) 생계문제 요구사항

3. 학 업

1) 제학 학업의 종류

(중 학 생) 진학희망
(고등학생) 진학희망
(고등학생) 희망전공
(대학진학포기) 이유
(대학진학희망) 이유

2)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성적이 나쁜) 이유
(실업계) 진학이유
(실업계) 취학만족도

3) 자신의 공부방

개인 책상
아르바이트
사설학원 이용
민간단체의 교육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요구사항

4. 직 업

1) 미취학 이유

입직 경로
근무 형태
보수 형태
하루 근무시간
채불 여부
전직 이유

2) 공공직업훈련 경험

훈련기간
공공·사설훈련 비교

3) 보수 만족도

희망직업
(자영업) 종사 이유

4) 직업에 관한 요구사항

5. 점 서

1) 생활만족도

성 격

2) 친구수

학교친구

가족관계

친척의 도움

참여 모임

주된 상담자

상담의 필요성

3) 가출 경험

가출 횟수

가출 충동이유

4) 사회복지관 이용

사회복지관 필요성

가난의 책임

생활보호대상자 낙인감

자원봉사자 필요성

자원봉사자 도움종류

5) 자신의 자아관

자신의 40살 어른상

자립시 생활자세

6) 건디기 어려운 경험

즐거운 경험

도움에 대한 느낌과 요구

시설청소년용 질문지에서 분석한 변수들

1. 일반사항

1) 성 별

나 이

출생지

입소시 연령

2) 입소시 생존 가족과 친척

입소시 동거 가족과 친척

방문하는 가족과 친척집

시설에 방문하는 가족과 친척

시설생활 형제자매수

3) 필요한 시설물

개인 책상

4) 전체 시설아동수

희망 아동수

보모 이교대 근무제

5) 한달 용돈

3. 학교생활

1) 재학 학교의 종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성적이 나쁜) 이유

2) 학교 친구와의 친교

(시설생활 미공개) 이유

학교에서 시설아 놀림

(놀림 받을 때) 처리방법

교내특별활동

(특별활동 미참여) 이유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담임기대 관심정도

3) (중학생) 진학 희망

(실업계) 진학 이유

실업계 취학 만족도

2. 의 식 주

1) 연간 구입한 겔옷과 신발

옷 만족도

부식 만족도

주식 만족도

식사 방법

희망 식사방법

주당 간식회수

희망 간식

2) 침실 사용자수

거실 사용자수

방식구 구성

희망 식구 구성

4. 시설생활

- 1) 월평균 종교활동
종교활동 미참가 이유
시설내 학생회
학생회의 도움 정도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큰 고민과 걱정
고민 상담자
상담 만족도
(상담 불만) 그 이유
의지하는 시설 직원
생활지도 욕구
- 2) 자원봉사 학습지도 효과
자원봉사 정서지도 효과
(미도움) 이유
(도움) 이유
자원봉사자 필요성
자원봉사자 평가
퇴소후 자원봉사자와 교류
후원자에 대한 감사평가
후원자가 고마울 때
- 3) 원장·총무에게 고마울 때
보모에게 고마울 때
원장·총무에 대한 요구사항
보모에 대한 요구사항
- 4) 보모직무에 대한 평가
보모의 기대 근무연수
보모직무에 대한 인식
보모관
- 5) 시설생활 만족도
취미
특기
평일 여가내용
휴일 여가내용
(집단활동) 평가
희망 특별활동
시설행사에 대한 평가
희망 사회교육 프로그램

- 6) 하루 방과후 공부시간
과외시간
공부관
희망 학업지도 방법
- 7) 가출 동기
가출 응동시기
(가출충동) 이유
(가출충동) 억제 이유
- 8) 시설내 친구수
시설외 친구와 친교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자아관
자신의 40살 어른상
자신의 인지능력
시설청소년의 사회처우
조기 퇴소사 거처
임양에 대한 태도
시설 생활중 불만사항
성격
시설병
- 9) 가정형편 인지
(가정형편) 인지희망 여부
부모에 대한 평가
부모와 동거 희망여부
(희망없음) 이유
- 10) 희망 직업
희망 사항
정부, 사회에 대한 희망사항

5. 장래문제(고등학생만)

- 1) 대학진학 계획
(대학진학 포기) 이유
(대학진학) 이유
취업희망 직종
취업시 고려사항
취업시 장애요인
자립시 생활자세
직업훈련원 입소희망
- 2) 18세 퇴소연령에 대한 평가

- | | |
|---|--|
| <p> 퇴소후 거처할 가족 또는 친척집
 (퇴소후 자취) 방법
 퇴소후 가족과 동거여부
 퇴소후 시설방문
 3) 자신의 40살 성인시 경제수준
 사회생활 차별 </p> | <p> 결혼후 부모역할 수행
 4) (남) 병역문제 대처
 (입대희망) 이유
 (면제희망) 이유
 5) 희망사항
 정부, 사회에 대한 희망사항 </p> |
|---|--|

제 3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지원현황

제 3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지원 현황

제 1 절 정부의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적부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부조는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보다 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두가지의 기둥으로써 공적인 구빈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의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갈 수가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비용으로 경제적인 원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김영모, 1988,p.143).

공적부조는 생계보호 이외의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요보호청소년이므로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그리고 자활보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시설보호청소년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주로 거택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대상자 선정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이다.

- ① 65살 이상의 노쇠자

- ② 18살 미만의 아동(이 경우 그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 ③ 임신부(출산 전·후 1월 이내인 자)
-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생활보호법 제17조에서는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9월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관할 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조사항목은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에

- 1) 가족 상황
- 2) 생활 실태
-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 4)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
- 5)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의 결정이나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피보호자의 자산 상황,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거나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거절하거나 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생활보호법 제19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장관에 의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그 해의 예산배정이나 물가상승율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1〉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

구	분	90년
1인당월소득(천원)		48미만
가구당재산액(만원)		340미만

자료 : 보건사회부

공적부조의 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적부조의 전달체계는 보건사회부가 주무를 맡아서 모든 사업을 기획, 조정, 관장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각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서 다

시 읍·면·동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이 공적 부조의 전달체계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거택보호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사업의 급여(양곡, 부식비, 연료비, 보조금)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

2. 생계보호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복, 음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보호이다(생활보호법 제8조). 여기에서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되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3-2〉 생계보호 수준

구 분	90년	구 분	90년
양 곡		부 식 비(인/일)	가구주 500원
쌀 (인/일)	341 g		가구원 110원
보리(인/일)	85 g	연료비(가구/일)	월동기 410원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해당되므로 요보호청소년도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중 해당 청소년이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즉 소년소녀가장 가구에게는 85년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지침에 의해 피복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87년부터는 영양급식비가 지급되어 왔다. 1990년 영양급식비는 전가구원에게 연간 1인당 48,18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피복비는 연간 1인당 52,560원씩 지급된다.

3. 교육보호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직업이나 수입,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빈곤층은 악순환과 세습화가 초래되는 실정이므로 이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주도록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표3-3〉 교육보호 현황

구 분	교육보호내용	보호대상자 (1989)	비 고
중 학 생	수업료:113~200천원/년 입학금:5~6천원(81천명)	243	도시자활보호자의 경 우는 50%지원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140~344천원/년 입학금:6~8천원(38천명)	53	
합 계		296	

자료 : 보건사회부

4. 자활보호

자활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국가의 부조를 통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활에 필요한 생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비용을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등에 지급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제11조에 의하면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대도시저소득층지방이주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직업훈련사업이다.

한편 일반 거택보호청소년에 대하여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1985년 보사부장관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의 시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여러가지 문제를 상담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민간의 지원 현황

일반적으로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활동은 정부의 공적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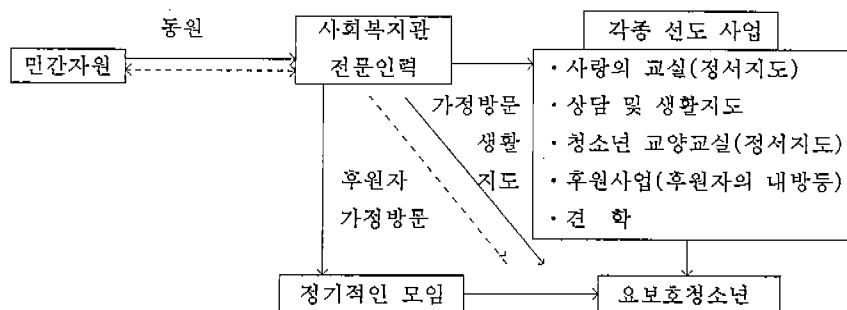
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서비스 내용도 한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기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한다”(이정호 1987, p.49). 이와 같이 민간복지기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지원하는 체계 또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간복지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지역사회복지관의 보호사업에 대한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렇게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공적부조와 같은 수직적 하달방식이 아닌 수평적인 전달체계로서 보호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 사회 심리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사회복지관의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900개 정도의 민간사회복지기관·단체 그리고 시설들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에서 요보호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관은 1960년

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도시 빈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설되고 있다.

각 복지관의 사업 내용은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성격 및 요구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도시빈민지역에서의 ①지역사회문제의 파악, ②영세민들의 요구를 대변, ③영세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행동, ④영세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실시, ⑤레크리에이션의 기회제공, ⑥영세민을 위한 취업훈련과 알선, ⑦영세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 및 동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서상목 외, 1988,p.120).

지역사회복지관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지역복지, 의료복지, 노인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담 및 생활지도, 청소년교양교실, 사랑의 교실, 후원사업, 독서실운영, 견학, 레크리에이션지도 등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관은 요보호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서비스는 재정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등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탁보호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주로 결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복지관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조달의 대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건립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대지를 확보하면 국비 50%와 지방비(시비) 50%의 비율로 건립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대개 자체에서 20%, 국비 40%, 지방비 40%비중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결연 사업

1976년 정부는 증가해가는 복지의 수요를 정부의 예산으로 충족시키기에 한계를 느껴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범국민적 기풍을 살리고자 불우아동결연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점차로 후원자의 수가 주는 반면 수요자는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1년 이에 대한 정착화를 위해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후 10년간 많은 성장을 하여 처음에는 시설아동에 국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손, 빈곤가정의 아동에까지 확대되었다.

다음 표3-4는 수혜대상 아동수의 지역별 비율 및 결연구좌수의 지부별

비율이다.

또한 후원자와의 결연사업은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후원자와 아동간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통한 정서적 도움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3-4〉 결연대상 아동수 및 구좌수

지 부 명	대상아동		결 연 구 좌	
	아동수	비율(%)	구좌수	비율(%)
서 울	5,950	12.7	13,063	20.2
부 산	4,352	9.3	4,616	7.1
대 구	3,528	7.6	5,326	8.2
인 천	1,853	4.0	3,087	4.8
광 주	1,980	4.2	2,138	3.3
대 전	2,388	5.1	3,507	5.4
경 기	4,501	9.6	7,880	12.2
강 원	1,395	3.0	3,460	5.3
충 북	2,839	6.1	2,980	4.6
충 남	2,433	5.2	2,361	3.7
전 북	3,056	6.5	3,867	6.0
전 남	4,322	9.3	3,805	5.9
경 북	3,681	7.9	3,555	5.5
경 남	3,551	7.6	3,667	5.7
제 주	891	1.9	1,373	2.1
합 계	46,720	100	64,685	100

자료: 한국어린이재단, 1990.

제 4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제 4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제 1 절 가족사항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속에서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보호 청소년은 가정환경상 부모의 정신적 물질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고 있지 못하므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노동자 그 중에서도 노동력이 약한 노령, 폐질 및

〈표4-1〉 빈곤의 원인

(단위: %)

빈곤의 원 인	가장의 사 망	가장의 노 령	가장의 장 애 (사고)	가장의 무 학	가장의 무 직	부모의 별거나 이 혼	기타	두가지 이 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70.4	0.0	3.5	0.9	2.6	12.2	5.2	1.7	3.5	100.0(115)
저택	30.7	6.4	19.3	12.1	5.0	4.3	14.3	1.4	6.4	100.0(140)
성별 남	43.5	5.6	13.0	8.7	4.3	6.8	10.6	1.9	5.6	100.0(161)
여	57.4	0.0	9.3	4.6	2.8	11.1	8.3	1.9	4.6	100.0(108)
교급 중	55.1	2.2	10.1	3.4	1.1	12.4	4.5	2.2	9.0	100.0(89)
고	41.6	4.7	12.8	10.1	6.0	6.0	13.4	2.0	3.4	100.0(149)
합 계 (실 수)	49.1 (132)	3.3 (9)	11.5 (31)	7.1 (19)	3.7 (10)	8.6 (23)	9.7 (26)	1.9 (25)	5.2 (14)	100.0(269)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1062, 교급 0.0096

비고:모든 합계는 원칙적으로 성별의 합계치를 쓴 것으로 이하 같음.

실업노동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주요한 원인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이지만 그외에도 무기력, 저학력, 외옥상실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김영모 1990, p.18).

따라서 요보호 청소년의 빈곤의 원인을 가장 및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로 볼 수 있겠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가난의 원인은 표4-1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보호 청소년의 빈곤원인은 가정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율(49.1%)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가정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율(70.4%)로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별거나 이혼(12.2%)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요보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의 사망(30.7%)이 가장 높으나 가정의 장애(사고)(19.3%)가 두번째로 높아 양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재가 거택 보호청소년의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4-2〉 부의 학력

부 의 학 력		국졸이하	중 졸	고졸이상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7.0	10.4	12.2	50.4	100.0(115)
	거택	50.0	18.4	13.2	18.4	100.0(140)
성별	남	40.5	14.6	13.3	31.6	100.0(158)
	여	33.6	13.1	10.3	43.0	100.0(107)
교급	중	36.5	11.8	12.9	38.8	100.0(85)
	고	40.9	14.1	12.1	32.9	100.0(149)
합 계		37.7	14.0	12.1	36.2	100.0(265)
(실 수)		(100)	(37)	(32)	(96)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3030, 교급 0.7835

〈표4-3〉 부의 직업

부 의 직 업		생산직	사무직	무 직	비해당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3.5	0.9	2.6	2.6	70.4	100.0(115)
	거택	44.3	4.3	6.4	17.9	27.1	100.0(140)
성별	남	36.0	3.7	5.0	13.0	42.2	100.0(161)
	여	29.6	0.9	4.6	6.5	58.3	100.0(108)
교급	중	30.3	1.1	4.5	16.9	47.2	100.0(89)
	고	37.6	4.0	5.4	8.1	45.0	100.0(149)
합 계		33.5	2.6	4.8	10.4	48.7	100.0(269)
(실 수)		(90)	(7)	(13)	(28)	(131)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645, 교급 0.1722

〈표4-4〉 모의 직업

모의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비해당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5.7	0.9	7.8	0.9	74.8	100.0(115)
거택	42.1	5.7	15.7	16.4	20.0	100.0(140)
성별 남	33.5	4.3	9.3	14.3	38.5	100.0(161)
여	21.3	1.9	14.8	0.9	61.1	100.0(108)
교급 중	21.3	3.4	16.9	3.4	55.1	100.0(89)
고	35.6	4.0	10.1	12.8	37.6	100.0(149)
합 계	28.6	3.3	11.5	8.9	47.6	100.0(269)
(실 수)	(77)	(9)	(31)	(24)	(128)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0, 교급 0.0047

부모의 학력은 국졸이하가 57.8%와 69.0%로(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학력과 빈곤과의 커다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직업을 보면 생산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무응답을 생산직이나 그와 유사한 직업이라고 간주하였을 때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업을 갖고있고 그중 절반이 넘는 수자가 생산적인 것을 볼 때 상당수가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의 구조

본 연구에선 조사대상을 소년가장과 거택보호 청소년으로 나누어 처리하였기 때문에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구조적 문제는 가족결손과 가족의 수를 알아보는 피부양자가 어느정도인가를 알아보았다.

가족의 결손은 가족의 구성원인 가장 또는 가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는 빈곤의 원인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정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가족 구조는 다음 표4-5와 같다.

표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해서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별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망은 77.4%인 반면 어머니의 사망은 33.9%로 나머지는 생존하고 있으나 별거하고있는 상태 즉 이혼한 상태

이거나 가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거택보호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50.7%로 약 반정도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와같이 요보호 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의 별거 또는 사망으로 결국 빈곤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부재에 의한 가족결손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4-5〉 가족구조

가족구조	부모와 동거	부와동거	모와동거	부모와별 거및사망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7	0.0	0.9	82.6	14.8	100.0(115)
거택	50.7	6.4	23.6	15.0	4.3	100.0(140)
성별 남	36.6	2.5	13.7	37.3	9.9	100.0(161)
여	13.0	4.6	11.1	52.8	18.5	100.0(108)
교급 중	20.2	2.2	11.2	46.1	20.2	100.0(89)
고	34.9	4.7	12.1	37.6	10.7	100.0(149)
합 계	27.1	3.3	12.6	43.5	13.4	100.0(269)
(실 수)	(73)	(9)	(34)	(117)	(36)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0, 교급 0.0499

거택보호 청소년의 동거 가족수는 표4-6과 같다.

〈표4-6〉 동거 가족수

가족수(명)	1	2	3	4	5	6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5.2	25.2	18.3	13.0	1.7	1.7	14.8	100.0(115)
거택	2.2	17.3	32.4	12.9	17.3	12.3	5.8	100.0(140)
성별 남	14.4	18.8	28.1	10.0	10.0	7.5	11.3	100.0(160)
여	8.3	22.2	19.4	15.7	9.3	6.5	18.5	100.0(108)
교급 중	15.7	19.1	18.0	16.9	9.0	3.3	18.0	100.0(89)
고	8.1	20.9	25.7	11.5	10.8	10.1	12.8	100.0(148)
합 계	11.9	20.1	24.6	12.3	9.7	7.2	14.2	100.0(268)
(실 수)	(32)	(54)	(66)	(33)	(26)	(19)	(38)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2338, 교급 0.0894

표4-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년가장의 경우는 1명~2명의 가족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거택보호 청소년은 3명가족이 가장 많다.

제 2 절 의식주 생활

1. 가 계

1) 수입과 지출

거택보호청소년 가구의 생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을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지출내용을 알아보았다.

〈표4-7〉 가구의 월평균 수입액

월 평 균 수입액(만원)	10이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37.4	15.7	15.7	3.5	4.3	0.9	22.6	100.0(115)
거택	21.4	15.0	10.7	12.9	16.4	15.7	7.9	100.0(140)
성별 남	22.4	14.3	12.4	10.6	15.5	11.8	13.6	100.0(161)
여	38.0	16.7	14.8	5.6	2.8	3.7	18.5	100.0(108)
교급 중	38.2	11.2	13.5	2.2	9.0	5.6	20.2	100.0(89)
고	22.1	17.4	12.8	12.8	12.8	10.7	11.4	100.0(149)
합 계 (실 수)	28.6 (77)	15.2 (41)	13.4 (36)	8.6 (23)	10.4 (28)	8.6 (23)	15.2 (41)	100.0(269)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5, 교급 0.0045

〈표4-8〉 가장 걱정되는 지출내용

가정적정되는 지출내용	방 세	반찬값	학용품 비	의복비	용돈	기타	두가지 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7.0	12.2	21.7	6.1	10.4	7.0	2.6	13.0	100.0(115)
거택	20.0	11.4	27.1	6.4	4.3	19.3	0.7	10.7	100.0(140)
성별 남	22.4	8.7	27.3	6.2	6.8	14.3	1.9	12.4	100.0(161)
여	25.0	15.7	22.2	7.4	7.4	11.1	0.9	10.2	100.0(108)
교급 중	20.2	12.4	27.0	9.0	6.7	11.2	1.1	12.4	100.0(89)
고	23.5	10.1	28.2	4.7	6.7	14.1	1.3	11.4	100.0(149)
합 계 (실 수)	23.4 (63)	11.5 (31)	25.3 (68)	6.7 (18)	7.1 (19)	13.0 (35)	1.5 (4)	11.5 (19)	100.0(269)

유의도:대상 0.0474, 성별 0.6630, 교급 0.9189

월평균소득이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월15만원 이하가 53.1%인 것으로 나

타났고 거택보호 청소년가구의 경우는 36.4%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21만원 이상은 소년가장세대가 8.7% 거택보호세대가 45%로 나타나 소년가장세대가 거택보호세대보다 수입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이나 가족수를 고려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도시가계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출내용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방세가 가장 큰 문제이고 거택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용품비를 가장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가장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의 중요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의 걱정이 가장 우선적이며 학용품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택청소년에 비해 학용품의 걱정은 더 적은 편이다. 그 반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돈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거택청소년 보다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거택청소년은 정부로부터 학용품비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지출액보다는 수입액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표4-9〉 적자 충당 방법

적자충당방법	부업	빌림	지출감소	방법없다	기타	무응답 비례당	합계(실수)
대상 가장	6.1	7.8	35.7	14.8	16.5	19.1	100.0(115)
거택	3.6	32.1	26.4	7.9	5.7	24.3	100.0(140)
성별 남	3.7	29.8	26.7	7.5	9.3	23.0	100.0(161)
여	6.5	10.2	36.1	17.6	11.1	18.5	100.0(108)
교급 중	1.1	15.7	36.0	12.4	12.4	22.5	100.0(89)
고	6.7	27.5	28.2	6.7	9.4	21.5	100.0(149)
합 계	4.8	21.9	30.5	11.5	10.0	21.2	100.0(269)
(실 수)	(13)	(59)	(82)	(31)	(27)	(57)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9, 교급 0.0577

위의 표4-9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무작정 일반적인 지출을 감소시키고있는 경우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대책없는 경우(14.8%)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50%)가 대부분이고 비교적 합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업은 6.1%에 불과해서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택청소년인 세대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르게 남에게 빌리는 경우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에게 빌리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가난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비교적 바람직한 조달방법은 4.8%에 불과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대체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방법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15~20%에 그쳤으며 없다고 대답한 경우(25%)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까지 합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은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 생존시 빈곤여부

빈곤의 원인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김영모는 만성적 빈곤, 불행한 빈곤, 나태한 빈곤, 박탈된 빈곤 등으로 유형화시킨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민은 만성적 빈곤이 6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행한 빈곤(34.9%)이라고 한다(김영모 1990, p.40).

거택보호청소년들의 현재의 빈곤에 대한 원인이 어떠한지는 위에서 알아본바 있으나 그들에 대한 빈곤을 세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가장들의 경우를 보면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부모의 사망 또는 별거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빈곤이 부모의 빈곤을 답습한 만성적 빈곤인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생계를 책임지기 이전에도 가난하였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표4-10〉 생계책임이전의 가난 여부

가 난 여 부	가 난	보 통	부 유	기 타	무응답 비해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55.7	38.3	1.7		4.3	100.0(115)
거택	17.1	11.4	0.7	0.7	70.0	100.0(140)
성별 남	26.1	21.1	1.2	0.6	50.9	100.0(161)
여	44.4	30.6	1.9	0.0	23.1	100.0(108)
교급 중	40.4	28.1	2.2	1.1	28.1	100.0(89)
고	26.8	20.1	1.3		51.7	100.0(149)
합 계	33.5	24.9	1.5	0.4	39.8	100.0(269)
(실 수)	(90)	(67)	(4)	(1)	(107)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0, 교급 0.007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년가장들은 55.7%가 부모가 있었을 때도 가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역시 만성적 빈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상의 경우도 40%로 상당수는 부모의 사망 또는 부모와의 별거등으로 빈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택보호 청소년의 대부분이 만성적 빈곤과 불행한 빈곤임이 나타나므로 그들을 위한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3) 부모 유고시 생계대책

소년가장은 그들의 부모가 경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가계를 떠맡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표4-11〉 부모 유고시 생계대책

생 계 대 책	친척도움	이웃도움	부모유산	기 타	무응답 비해당	합계(실수)
대상 가장	47.0	17.4	4.3	23.5	7.8	100.0(115)
거택	23.6	16.4	2.1	29.3	28.6	100.0(140)
성별 남	33.5	18.6	1.9	23.6	22.4	100.0(161)
여	35.2	15.7	6.5	29.6	13.0	100.0(108)
교급 중	33.7	21.3	6.7	27.0	11.2	100.0(89)
고	32.2	15.4	2.0	26.8	23.5	100.0(149)
합 계	34.2	17.5	3.7	26.0	18.6	
(실 수)	(92)	(47)	(10)	(70)	(50)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900, 교급 0.0647

이때 소년가장은 친척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척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친척에 대한 보조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가계에 대한 의사결정

일반 재가보호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개 부모나 보호자가 있어서 그들이 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본인이 혼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웃어른이나 친척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표4-12〉 가계 의사결정

의사결정	가족과의논	친척어른	친척조언 으로 내가	나혼자	기타	합계(실수)
대상 가장	20.9	22.6	21.7	13.9	16.5	100.0(115)
거택	21.4	5.0	5.7	2.1	30.7	100.0(140)
성별 남	21.1	14.3	11.2	7.5	18.6	100.0(161)
여	21.3	12.0	15.7	8.3	30.6	100.0(108)
교급 중	10.1	19.1	13.5	11.2	31.5	100.0(89)
고	25.5	10.1	9.4	6.7	20.8	100.0(149)
합 계	21.2	13.4	13.0	7.8	23.4	100.0(269)
(실 수)	(57)	(36)	(35)	(21)	(63)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495, 교급 0.0039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친척어른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22.6%) 그 다음으로 가족과 의논하거나 아니면 친척동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13.9%).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소년가장세대의 의사 결정은 친척이 대신 결정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친척의 보호기능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의 식

1) 의 복

의복은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4-13〉 옷 만족도

옷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불만없음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3.0	29.6	4.3	51.3	1.7	100.0(115)
거택	24.3	31.4	8.6	34.3	1.4	100.0(140)
성별 남	21.7	34.8	5.6	35.4	2.5	100.0(161)
여	14.8	23.1	8.3	53.7	0.0	100.0(108)
교급 중	20.2	25.8	7.9	43.8	2.2	100.0(89)
고	18.8	34.9	6.0	40.3		100.0(149)
합 계	19.0	30.1	6.7	42.8	1.5	100.0(269)
(실 수)	(51)	(81)	(18)	(115)	(4)	

유의도:대상 0.0355, 성별 0.0112, 교급 0.2576

그러나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복구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주위의 친구들과 비교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써 소년가장 가구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는 현실에 비추어 극히 적은 액수이다.

이에 따라 그들이 현재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를 알아 보았다.

위의 표4-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옷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19%로 나타났고 특히 소년가장가족이 일반거택보호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큰 불만은 별로 없고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식사 및 취사

일반 가정에서는 대체로 취사 및 식사준비를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외 가족들이 돕게 된다. 그런데 거택보호 청소년 가구에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사담당이 일정치 않게 된다. 특히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사와 가사일을 떠맡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취사 문제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취사담당을 주로 어떻게 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표 4-14와 같다.

〈표4-14〉 식사담당

식 사 담 당	어머니	아버지	나	형제	때에따라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7	0.9	26.1	3.5	18.3	42.6	7.0	100.0(115)
거택	55.7	2.1	6.4	2.9	17.9	11.4	3.6	100.0(140)
성별 남	41.6	1.2	2.5	5.6	13.0	30.4	5.6	100.0(161)
여	13.9	1.9	38.9	0.9	23.1	17.6	3.7	100.0(108)
교급 중	20.2	1.1	18.0	1.1	23.6	31.5	4.5	100.0(89)
고	40.3	2.0	16.8	4.7	14.1	18.1	4.0	100.0(149)
합 계	30.5	1.5	17.1	3.7	17.1	25.3	4.8	100.0(269)
(실 수)	(82)	(4)	(46)	(10)	(46)	(68)	(13)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0, 교급 0.0116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서 담당하는

경우가 26%이고 대체로 형제들과 상황에 따라서 같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42.6%되는 것도 실제로 많은 소년가장 세대가 친척집이나 그외 다른 사람집에서 동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거택보호 가정의 청소년들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적어서 대체로 어머니가 담당하거나 그외 식구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사 내용 즉 밥이나 반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5〉 식사 만족도

식 사 만 족 도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1.7	57.4	15.7	3.5	1.7	100.0(115)
	거택	32.1	52.1	12.1	1.4	2.1	100.0(140)
성별	남	31.7	50.3	13.7	1.2	3.1	100.0(161)
	여	20.4	61.1	14.8	3.7		100.0(108)
교급	중	30.3	49.4	14.6	3.4	2.2	100.0(89)
	고	25.5	57.7	14.8	1.3	0.7	100.0(149)
합 계		27.1	54.6	14.1	2.2	1.9	100.0(269)
(실 수)		(73)	(147)	(38)	(6)	(5)	

유의도:대상 0.3361, 성별 0.0478, 교급 0.4985

3. 주 거

1) 주거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 약 60%만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약 80% 정도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활

〈표4-16〉 주거상태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일세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3.5	10.4	27.8	0.9	29.6	7.8	100.0(115)
	거택	38.6	20.7	25.0	0.0	11.4	4.3	100.0(140)
성별	남	32.3	20.5	25.5	0.0	16.1	5.6	100.0(161)
	여	30.6	8.3	27.8	1.9	25.0	6.5	100.0(108)
교급	중	30.3	9.0	24.7	1.1	24.7	10.1	100.0(89)
	고	34.2	19.5	26.8	0.7	15.4	3.4	100.0(149)
합 계		31.6	15.6	26.4	0.7	19.7	5.9	100.0(269)
(실 수)		(85)	(42)	(71)	(2)	(53)	(16)	

유의도:대상 0.0005, 성별 0.0354, 교급 0.0460

보호대상자는 자기집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빈약한 주택에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청소년들의 주거상태는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기집에서 사는 경우가 31.6%이고, 그다음으로 전세(26.4%)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도시와 시골간 주거 형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도시에서 사는 경우 자기집소유가 16.5%에 불과하다. 세로 사는 경우에도 도시에서는 40.2%가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 재가보호 청소년의 주거불안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사용 방 수

주거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의 수와 방의 동거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4-17〉 사용 방 수

방 수	1	2	3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65.2	21.7	8.7	4.3	100.0(115)
거택	29.3	51.4	17.1	2.1	100.0(140)
성별 남	42.9	38.5	14.3	4.3	100.0(161)
여	50.9	36.1	12.0	0.9	100.0(108)
교급 중	52.8	32.6	11.2	3.4	100.0(89)
고	40.3	41.6	16.1	2.0	100.0(149)
합 계	46.1	37.5	13.4	3.0	100.0(269)
(실 수)	(124)	(101)	(36)	(3)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28, 교급 0.2151

표4-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개의 방에서 모든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년가장세대는 65.2%가 방1개를 사용하고 있어 주거공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 모두가 한방에서 살고 있거나 형제자매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공부방이 없는 형편이고, 정서적으로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거 욕구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거문제가 실질적인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재가보호 청소년들이 주거문제

에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표4-18〉 주거욕구

주거욕구	임대아파트	아파트분양	전세보증금 용자	기타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30.4	26.1	12.2	19.1	12.2	100.0(115)
거택	26.4	30.7	11.4	14.3	17.1	100.0(140)
성별 남	28.0	27.3	11.8	16.8	16.1	100.0(161)
여	26.9	29.6	13.0	18.5	12.0	100.0(108)
교급 중	25.8	21.3	14.6	24.7	13.5	100.0(89)
고	28.9	31.5	10.7	13.4	15.4	100.0(149)
합 계	27.5	28.3	12.3	17.5	14.5	100.0(269)
(실 수)	(74)	(76)	(33)	(47)	(39)	

유의도:대상 0.5907, 성별 0.8963, 교급 0.1292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빌려준다면가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 전세보증금 용자나 일정액의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소년가장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반면 거택보호청소년은 아파트 분양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골거주 청소년보다는 도시거주 청소년이 임대주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골거주 청소년들도 전세보증금 용자나 거주비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더 높게 나타났다.

〈표4-19〉 임대료 부담 능력

부담능력	부담가능	일부부담 가능	부담불가능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7.8	22.6	22.6	18.3	8.7	100(115)
거택	26.4	28.6	11.4	17.1	16.4	100(140)
합 계	27.1	25.6	17.0	17.7	12.6	100(255)

그러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빌려줄 경우 실제로 아파트 거주에 드는 비용 즉,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4-1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임대해주더라도 월 5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구는 26.4%에 불과해서 상당수가 예상되는 실비 임대료의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4. 개인용돈

청소년들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용돈인 것이다. 물론 용돈이 없어도 생계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여러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용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집단 생활이나 취미생활을 거리게 되고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에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4-20〉 월평균 용돈

용 돈 (천 원)	5천이하	6~10	10~20	20이상	무응답 없 음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6.8	16.5	10.5	14.0	32.2	100.0(115)
거택	37.3	9.3	11.4	4.9	37.1	100.0(140)
합 계	32.4	12.6	11.0	9.1	34.9	100.0(255)

〈표4-21〉 용돈의 주 사용처

용돈사용처	학용품	책	일용품	오락	군것질	저축	선물	문화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46.1	7.0	13.9	0.9	0.9	12.2	0.9	1.7	16.5	100.0(115)
거택	32.1	15.0	15.7	2.9	4.3	7.1	0.0	6.4	16.4	100.0(140)
성별 남	33.5	13.0	13.7	3.1	4.3	7.5	0.6	6.2	18.0	100.0(161)
여	43.5	7.4	17.6			11.1		2.8	17.6	100.0(108)
교급 중	41.6	6.7	13.5	2.2	2.2	10.1		2.2	21.3	100.0(89)
고	36.2	12.8	16.8	0.7	3.4	7.4	0.7	7.4	14.8	100.0(149)
합 계	37.5	10.8	15.2	1.9	2.6	8.9	0.4	4.8	17.8	100.0(269)
(실 수)	(101)	(29)	(41)	(5)	(7)	(24)	(1)	(13)	(19)	

유의도:대상 0.0300, 성별 0.0494, 교급 0.3230

요보호청소년들의 용돈사용 정도와 그 쓰임을 보면 표4-20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35%정도가 용돈을 전혀 쓰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용돈을 쓰고 있더라도 월5천원 이하인 경우가 소년가장의 경우 27% 거택보호 청소년의 경우 3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돈의 쓰임에 있어서도 대부분 학용품 구입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일상용품 구입에 쓰고 있으며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거의 쓰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년가장의 경우는 거택 청소년보다 문화생활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정부지원

정부는 거택보호 청소년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정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보호내용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다음 표와 같다.

〈표4-22〉 생계보호의 충분도

생 계 보 호	충분	어느정도 충분	적당	약간부족	아주부족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5.2	8.7	24.3	40.0	16.5	5.2	100.0(115)
거택	5.0	7.1	21.4	40.7	10.0	15.7	100.0(140)
성별 남	4.3	7.5	20.5	39.8	14.3	13.7	100.0(161)
여	6.5	10.2	24.1	40.7	12.0	6.5	100.0(108)
교급 중	7.9	11.2	23.6	38.2	9.0	10.1	100.0(89)
고	4.7	6.0	23.5	40.3	14.8	10.7	100.0(149)
합 계	5.2	8.6	21.9	40.1	13.4	10.8	100.0(269)
(실 수)	(14)	(23)	(59)	(108)	(36)	(29)	

유의도:대상 0.1150, 성별 0.4332, 교급 0.4947

〈표4-23〉 의료보호의 충분도

의 료 보 호	충분	어느정도 충분	적당	약간부족	아주부족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30.4	12.2	27.8	13.9	7.0	8.7	100.0(115)
거택	15.7	15.7	29.3	18.6	7.1	13.6	100.0(140)
성별 남	18.6	13.0	29.8	19.3	8.1	11.2	100.0(161)
여	29.6	16.7	26.9	11.1	5.6	10.2	100.0(108)
교급 중	34.8	11.2	29.2	12.4	1.1	11.2	100.0(89)
고	15.4	16.8	31.5	18.1	10.1	8.1	100.0(149)
합 계	23.0	14.5	28.6	16.0	7.1	10.8	100.0(269)
(실 수)	(62)	(39)	(77)	(43)	(19)	(29)	

유의도:대상 0.1138, 성별 0.1863, 교급 0.0020

첫째, 생계보호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하다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이 적당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만족하다는 대답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느 정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4-24〉 교육보호의 충분도

교육보호	충분	어느정도 충분	적당	약간부족	아주부족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6.5	19.1	20.9	26.1	7.8	9.6	100.0(115)
거택	6.4	8.6	19.3	34.3	16.4	15.0	100.0(140)
성별 남	9.3	7.5	19.3	35.4	15.5	13.0	100.0(161)
여	13.9	21.3	22.2	22.2	10.2	10.2	100.0(108)
교급 중	14.6	20.2	25.8	22.5	7.9	9.0	100.0(89)
고	10.1	8.7	20.1	33.6	16.8	10.7	100.0(149)
합 계	11.2	13.0	20.4	30.1	13.4	11.9	100.0(269)
(실 수)	(30)	(35)	(55)	(81)	(36)	(32)	

유의도:대상 0.0032, 성별 0.0054, 교급 0.0212

둘째, 의료보호는 적당하다가 28%로 여기에서 예시된 세가지 보호내용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조사대상이 현재 의료보호 1종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보호는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어느정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이한 사항은 소년가장과 거택 청소년을 비교해 볼 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년가장에게는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 일반거택 청소년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외에 소년가장에게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장학금을 지급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6. 민간지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요보호 청소년은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해 1차적으로 생계유지를 하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민간기관들이 각종 모금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 및 정서적인 지원을 하여왔다 지원방법은 각종 결연사업, 사회단체 혹은 종교단체의 지원, 바자회, 자선음악회, 그리고 특정개인의 성금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이러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단체로부터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와 같다.

〈표4-25〉 민간단체의 도움 유무

민간단체도움		있	다	없	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77.4		20.9		1.7			100.0(115)
	거택	32.9		63.6		3.6			100.0(140)
성별	남	42.2		54.0		3.7			100.0(161)
	여	70.4		28.7		0.9			100.0(108)
교급	중	65.2		31.5		3.4			100.0(89)
	고	42.3		55.7		2.0			100.0(149)
합 계		53.5		43.9		2.6			100.0(269)
(실 수)		(144)		(118)		(7)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0, 교급 0.0014

〈표4-26〉 도움받은 기관

도움기관	사회복지 단 체	종교단체	일 반 기업체	친지	이웃	학교	기타	두가지 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0.9	13.0	7.8	2.6	0.9	0.9	1.7	36.5	15.7	100.0(115)
거택	7.9	5.7	5.0	3.6	3.6	5.0	7.1	10.0	52.1	100.0(140)
성별 남	12.4	7.5	6.2	5.0	1.9	3.1	3.1	14.9	46.0	100.0(161)
여	14.8	13.9	5.6	0.9	2.8	3.7	6.5	33.3	18.5	100.0(108)
교급 중	18.0	11.2	6.7	3.4	2.2	4.5	5.6	25.8	22.5	100.0(89)
고	11.4	8.1	6.7	4.0	2.7	3.4	4.7	14.1	45.0	100.0(149)
합 계	13.4	10.0	5.9	3.3	2.2	3.7	6.5	33.3	34.9	100.0(269)
(실 수)	(36)	(27)	(16)	(9)	(6)	(9)	(7)	(36)	(94)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1, 교급 0.0672

요보호청소년중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과반수 이상이다. 남학생(42.2%)보다 여학생이(70.4%)이 더 많이 받았고 고등학생(42.3%)보다 중학생이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거택보호청소년(32.9%)보다 소년가장(77.4%)이 훨씬 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볼 때, 같은 거택보호청소년 중에서도 생계능력이 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가장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받은 기관의 종류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2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13.0%), 일반기업체(7.8%)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지원을 받

은 경우도 많아(36.5%)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거택보호청소년은 지원이 적게 나타났는데, 민간단체의 지원이 대체로 소년가장 세대에 쏠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린이재단과 지역사회복지관은 요보호청 소년 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 성장하여왔고 그 중에서도 결연사업은 이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결연 후원자에 대한 결연희망아동을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4-27〉 후원자의 결연희망 아동 유형

아 동 유 형	구좌수	비율(%)
아동복지시설 아동	3,386	22.0
장애 아동	887	5.8
결손·빈곤가정 아동	2,506	16.3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	8,156	53.0
모자세대 아동	453	2.9
합 계	15,388	100.0

자료:한국어린이재단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결연후원자의 과반수 이상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결손·빈곤가정아동은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소년가장은 한국 어린이재단을 통한 결연후원금 이외에 구청이나 각종 단체를 통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거택보호청소년들은 이러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급 방법은 매월 기관을 방문하여 지급받거나 은행의 온라인 구좌를 통하여 받게 되며, 지급액수는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월평균 지원금액과 지원받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4-28과 4-29와 같다.

월평균 지원금액은 소년가장은 월평균 1만원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2만원, 2~3만원 순이며, 3~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는 7% 정도로 나타났다. 거택청소년의 경우도 비율은 적으나 같은 순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정도는 소년가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9.6%),

〈표4-28〉 월평균 지원금액

지 원 금 액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3-4 만원	4만원 이상	없음	합계 (실수)
대상 가장	32.2	17.4	11.3	2.6	4.3	32.2	100.0(115)
거택	13.6	7.9	1.4	0.0	1.4	75.7	100.0(140)
성별 남	18.0	9.3	5.6	1.2	2.5	63.4	100.0(161)
여	25.9	18.5	6.5	0.9	4.7	43.5	100.0(108)
교급 중	28.1	15.7	5.6	2.2	3.3	44.9	100.0(89)
고	14.1	9.4	6.7		3.4	66.4	100.0(149)
합 계	21.2	13.0	5.9	1.1	3.4	55.4	100.0(269)
(실 수)	(57)	(35)	(16)	(3)	(9)	(149)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424, 교급 0.0095

〈표4-29〉 지원금 전달 정도

전 달 정 도	정기적	가 끔	기 타	무응답 비해당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9.6	27.8	6.1	16.5	100.0(115)
거택	15.7	15.7	10.0	58.6	100.0(140)
성별 남	28.6	14.9	7.5	49.1	100.0(161)
여	36.1	31.5	8.3	24.1	100.0(108)
교급 중	39.3	25.8	6.7	28.1	100.0(89)
고	22.8	11.8	9.4	49.0	100.0(149)
합 계	31.6	21.6	7.8	39.0	100.0(269)
(실 수)	(85)	(58)	(21)	(105)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0002, 교급 0.0048

가끔 받는다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27.8%), 거택청소년은 두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단체의 지원은 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가 있는 거택보호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가장 세대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대상선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가장을 위한 결연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볼 때 지원 액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제 3 절 학 업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그 사람의 직업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은 각 개인의 지적능력과 가정의 경제능력에 좌우되어 왔으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비자발적 요인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가 제한을 받게 되고, 빈곤이 악순환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상현 1987, p.659).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령기의 요보호청소년에게 공적부조로써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중학교까지 만을 지원해주다가 1987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비가 수업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외 여러가지 학습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요보호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택보호청소년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생활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학교생활의 만족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교실내에서도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반적인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표4-30〉 학교생활의 만족도

학 교 상 황	즐겁다	그냥그렇다	때로소외감	싫다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1.7	30.4	17.4	3.5	7.0	100.0(115)
거택	32.9	35.0	26.4	1.4	4.3	100.0(140)
성별 남	36.6	34.2	22.4	1.2	5.6	100.0(161)
여	38.0	30.6	22.2	3.7	5.6	100.0(108)
교급 중	39.3	34.8	18.0	5.6	2.2	100.0(89)
고	38.9	36.2	24.2	0.7		100.0(149)
합 계	37.2	32.7	22.3	2.2	5.6	100.0(269)
(실 수)	(100)	(88)	(60)	(6)	(15)	

유의도:대상 0.1988, 성별 0.7277, 교급 0.0446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보면, 즐겁다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

고(37.3%), 그냥그렇다(32.7%),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21.9%), 학교 다니기가 싫다(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나,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가 21.9%로, 이 비율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년가장보다 거택보호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하는데 있어서 소년가장들은 자신의 처지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주위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비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특별한 주위를 끌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별로 구분해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현실적으로 더 민감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2. 학습환경

대부분의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열등감 뿐만이 아니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거택보호청소년의 과반수정도가 1개의 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고(표4-17 참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자학·자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도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5개 직할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상황으로는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약한 실정이다(청소년백서 1989, p.324~325).

1) 공부방

본 조사에서는 거택보호청소년의 기본적인 학습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방의 여부 및 개인 학습을 위한 책상의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4-31과 4-32와 같다.

재가 요보호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소년가장이 46.1%, 거택보호청소년이 30.7%로 나타나 소년가장이 더 열악한

〈표4-31〉 공부방의 유무

공 부 방		있 다	형제와공유	없 다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6.5	29.6	46.1	7.8	100.0(115)
	거택	27.1	37.1	30.7	5.0	100.0(140)
성별	남	23.6	32.3	37.9	6.2	100.0(161)
	여	20.4	33.3	39.8	6.5	100.0(108)
교급	중	16.9	38.2	41.6	3.4	100.0(89)
	고	26.8	32.9	40.3		100.0(149)
합 계		22.3	32.7	38.7	6.3	100.0(269)
(실 수)		(80)	(88)	(104)	(17)	

유의도:대상 0.0289, 성별 0.9416, 교급 0.0480

〈표4-32〉 책상의 유무

책 상		있 다	없 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2.6	49.6	7.8	100.0(115)
	거택	64.3	31.4	4.3	100.0(140)
성별	남	62.1	32.3	5.6	100.0(161)
	여	40.7	52.8	6.5	100.0(108)
교급	중	46.1	50.6	3.4	100.0(89)
	고	63.1	36.2	0.7	100.0(149)
합 계		53.5	40.5	5.9	100.0(269)
(실 수)		(144)	(109)	(16)	

유의도:대상 0.0024, 성별 0.0021, 교급 0.0182

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고,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시골에 살고 있는 청소년보다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주거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간공부방의 종설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습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거택보호 청소년 보다는 소년가장이 더 열악된 학습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학원 수강 유무

일반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수강의 자율화가 취해진 후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보충하거나 뒤떨어진 과목의 보완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수강

을 하고 있다. 사설학원 수강은 수강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거택보호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원수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원에 다닌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다닌 경우, 학원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3과 4-34와 같다.

〈표4-33〉 학원수강 유무

학 원 수 강	현재다님	과거다님	없	응	무 응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5.7	23.5	50.4	10.4	100.0(115)
	거택	14.3	33.6	42.9	9.3	100.0(140)
성별	남	13.7	32.9	44.1	9.3	100.0(161)
	여	17.6	19.4	52.8	10.2	100.0(108)
교급	중	6.7	16.9	70.8	5.6	100.0(89)
	고	19.5	37.6	38.9	4.0	100.0(149)
합	계	15.2	27.5	47.6	9.7	100.0(269)
(실 수)		(41)	(74)	(128)	(26)	

유의도:대상 0.3670, 성별 0.1119, 교급 0.0000

〈표4-34〉 학원비 부담

학원비부담	생활비절약	아르바이트	친척부담	기 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5.7	7.8	9.6	7.8	59.1	100.0(115)
	거택	30.0	2.1	5.0	12.9	50.1	100.0(140)
성별	남	26.1	2.5	5.6	13.0	52.8	100.0(161)
	여	18.5	7.4	8.3	7.4	58.3	100.0(108)
교급	중	13.5	1.1	3.4	10.1	71.9	100.0(89)
	고	30.9	7.4	8.1	12.1	41.6	100.0(149)
합	계	23.0	4.5	6.7	10.8	55.0	100.0(269)
(실 수)		(62)	(12)	(18)	(29)	(148)	

유의도:대상 0.0067, 성별 0.0876, 교급 0.0001

제가 요보호청소년들의 학원수강실태를 보면,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1%로 나타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높은 학구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의를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학원을 다닐 학생의 경우에 학원비 조달 방법을 알아보면, 생활비 절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23%), 친척부담(6.7%), 아르바이트(4.5%)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생활비 절약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년가장은 생활비 절약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친척들이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진 학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정의 수입 정도에 따른 학생의 희망교육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천웅, 1986, p.219). 즉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학력을 갖고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수입이 높은 가정출신의 자녀가 대학 진학 점유율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희망직업의 선택과 진학희망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택보호청소년의 진학희망과 희망 전공등을 알아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 고등학교 진학

본 조사의 대상중에서 중학생만을 선택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4-35와 같다.

〈표4-35〉 희망고교

희 망 고 교	인문계 (주간)	인문계 (야간)	실업계 (주간)	실업계 (야간)	기술학교	미 정	진학않음	계 (실수)
집단	14.2		24.5	18.4	18.4	18.4	7.5	100(49)
가장								
거택	37.5	2.5	20.0	2.5	7.5	30.0		100(40)
성별								
남	15.5		20.0	8.9	31.1	22.2	2.2	100(45)
여	31.4	2.0	21.6	13.7		25.5	5.9	100(51)
합 계	23.5	1.0	20.8	11.3	15.6	23.9	3.9	100(96)

소년가장은 실업계고등학교(주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 거택청소년은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년가장은 인문계(14.28%)보다 실업계 및 기술학교(61.3%)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거택청소년들은 실업계 및 기술학교(30%)보다 인문계(40%)가 더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소년가장들은 직접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업을 갖을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높고, 그 반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비록 생계가 어렵기는 하나 본인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한 부모님들이 낮은 학력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로 하여금 무리하더라도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15.8%)보다 여학생(31.4%)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 기술학교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31.1%가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은 한명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합하여 보면 대체로 인문계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희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택보호청소년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만 수업료 면제가 해당되므로 본인의 소질과 달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보호의 범위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2) 대학 진학 형태

본 조사대상 중 고등학생에 대한 진학형태는 다음 표4-36과 같다.

〈표4-36〉 대학 진학 형태

희 망 진 학	4년제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집단 가장	27.3	36.4	9.1	4.5	22.7	100(66)
거택	64.0	10.0	8.0	12.0	6.0	100(100)
성별 남	58.6	18.1	8.6	6.0	8.6	100(116)
여	28.1	28.1	8.8	14.0	21.1	100(57)
합 계	43.4	23.1	8.7	10.0	14.9	100(175)

표4-3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희망하는 진학형태는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집단별로 보면, 소년가장집단은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6.1%), 반면 거택보호집단은 4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4%).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부모의 기대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면 4년제대학을 희망하는데 있어서 남학생(58.6%)이 여학생보다(28.1%) 훨씬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의식구조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고등학교의 교육비 부담의 과중에 원인이 있다고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더구나 생계가 곤란한 거택보호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진학희망 이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학력이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거택보호청소년의 대학진학 여부와 진학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가요보호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로 나타났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는 그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표4-37〉 대학 진학 이유

대학진학이유		학구별	구직	낙오되지 않으려고	지위상승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2.2	12.2	17.4	8.7	4.4	45.2	100.0(115)
	거택	12.9	15.7	22.9	17.1	7.8	23.6	100.0(140)
성별	남	8.7	19.3	22.4	14.9	5.5	29.2	100.0(161)
	여	17.6	5.6	15.7	10.2	7.4	43.5	100.0(108)
교급	중	9.0	9.0	10.1	7.9	3.4	60.7	100.0(89)
	고	64.8	19.5	27.5	17.4	8.8	12.1	100.0(149)
합	계	12.3	13.8	19.7	13.0	6.3	34.9	100.0(269)
(실 수)		(33)	(37)	(53)	(35)	(17)	(94)	

유의도:대상 0.0179, 성별 0.0013, 교급 0.0000

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에 소년가장보다 거택청소년 집단이 훨씬 높은 반응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가장집단이 거택청소년 집단보다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순수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는 반면 남학생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표4-38〉 대학 비진학 이유

대학비진학 이유	실력부족	돈부족	자립때문	직성 안맞음	기타	비해당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1.3	13.0	24.3	6.1	3.5	41.7	100.0(115)
거택	16.4	12.9	7.9	4.3	7.1	51.4	100.0(140)
성별 남	14.9	10.6	11.8	4.3	5.0	53.4	100.0(161)
여	13.0	14.8	21.3	5.6	5.6	39.8	100.0(108)
교급 중	14.6	7.9	9.0	6.7	6.7	55.1	100.0(89)
고	16.1	14.8	21.5	4.7	5.4	37.6	100.0(149)
합 계	14.1	12.3	15.6	4.8	5.2	48.0	100.0(269)
(실 수)	(38)	(33)	(42)	(13)	(14)	(129)	

유의도:대상 0.0081, 성별 0.1803, 교급 0.0364

거택보호청소년들도 대부분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년가장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자립을 가장 큰 이유로 들은 반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자신의 실력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두집단 모두 경제적 이유가 크기는 하지만 소년가장집단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택보호청소년에게는 적절한 학습환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희망 전공 분야

〈표4-39〉 희망 전공 분야

희망전공	문과	이과	공과	경상	법과	사범	기타	무응답 비해당	합계(실수)
대상 가장	7.8	5.2	16.5	3.5	1.7	4.3	1.7	59.1	100.0(115)
거택	15.0	15.7	15.7	5.0	1.4	5.0	6.4	35.7	100.0(140)
성별 남	10.6	14.3	26.1	3.7	0.6	3.1	4.3	37.3	100.0(161)
여	13.9	5.6	0.9	4.6	2.8	6.5	4.6	61.1	100.0(108)
교급 중								100.0	100.0(89)
고	20.8	18.8	26.8	7.4	2.7	6.7	6.7	10.1	100.0(149)
합 계	11.9	10.8	16.0	4.1	1.5	4.5	4.5	46.8	100.0(269)
(실 수)	(32)	(29)	(43)	(11)	(4)	(12)	(12)	(126)	

유의도:대상 0.0050, 성별 0.0000, 교급 0.2840

재가요보호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시, 희망 전공 분야는 공과계열이 가장 높고(16.0%), 그 다음으로 문과계열, 이과계열, 사범계열, 경상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사대상별로 보면 소년가장들은 공과계열에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거택보호청소년은 문과계열, 이과계열, 공과계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공과계열에 높은 선호를 보였고 여학생들은 문과계열에 높은 선호를 보여, 일반청소년들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업성적

거택보호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상위정도가 가장 많고(44.6%), 그 다음으로 중간정도(39.0%), 하위(9.7%)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소년가장은 중간성적이 가장 많았고, 거택보호청소년은 상위성적이 가장 많았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표4-40〉 학업성적 정도

학업성적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1.7	42.6	6.1	9.6	100.0(115)
	거택	47.9	34.3	13.6	4.3	100.0(140)
성별	남	39.1	43.5	11.2	6.2	100.0(161)
	여	52.8	32.4	7.4	7.4	100.0(108)
교급	중	44.9	41.6	10.1	3.4	100.0(89)
	고	46.3	41.6	11.4	0.7	100.0(149)
합계		44.6	39.0	9.7	6.7	100.0(269)
(실수)		(120)	(105)	(26)	(18)	

유의도:대상 0.0507, 성별 0.1208, 교급 0.4708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성적이 나쁜 이유를 알아보았다.

학업성적이 나쁜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기초실력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고(33.8%), 그 다음으로 공부환경이 나쁨을 이유로 들고 있다(12.3%).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소년가장이 공부환경이 나쁨을 두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반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공부하기가 싫어서를 두번째 이유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41〉 학교성적이 나쁜 이유

성적나쁜이유	기초실력 없어서	공부환경 나빠서	공부가 싫어서	진 학 이 어려워서	기타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0.0	16.5	7.0	2.6	7.1	27.8	100.0(115)
거택	30.0	7.1	12.1	5.7	12.1	32.9	100.0(140)
성별 남	34.8	10.6	12.4	3.7	8.7	29.8	100.0(161)
여	32.4	14.8	5.6	5.6	3.7	32.4	100.0(108)
교급 중	36.0	15.7	10.1	5.6	8.9	23.6	100.0(89)
고	35.6	10.7	10.1	4.7	10.7	28.2	100.0(149)
합 계	33.8	12.3	9.7	4.5	8.9	30.9	100.0(269)
(실 수)	(91)	(33)	(26)	(12)	(24)	(83)	

유의도:대상 0.0937, 성별 0.4696, 교급 0.7934

이와 같이 기초실력이 없음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기초실력이 없다는 것은 공부환경이 나쁘거나,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기초실력이 부족한 경우 대개는 사설학원 수강등 별도의 지도를 받게 되지만, 거택보호청 소년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간의 교육비 지원

요보호청소년은 정부의 공적부조로써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이란 등록금 이외에 많은 경비, 즉 학용품비, 참고서 구입비, 기타 잡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6년부터 소년가장에 한하여 매월 일정액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이 아닌 간헐적 지원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어느정도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보다는 받지 않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표4-42〉 기타 교육비 지원 현황

교육비 지원		받 음	받지않음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6.1	37.4	16.5	100.0(115)
	거택	17.1	71.4	11.4	100.0(140)
성별	남	29.8	56.5	13.7	100.0(161)
	여	31.5	54.6	13.9	100.0(108)
교급	중	24.2	49.4	9.0	100.0(89)
	고	30.5	67.1	8.7	100.0(149)
합 계		30.5	55.8	13.8	100.0(269)
(실 수)		(82)	(150)	(37)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9499, 교급 0.0151

소년가장은 거의 과반수가 받고 있는데 비해서(46.1%) 거택보호청소년은 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지원은 가정형편을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정 서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은 주로 생계에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부는 생활보호법에 따른 공적부조를 통하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기관(단체)도 주로 결연금과 결연물품에 의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상의 심리적 본질과 아울러 그들과 제도적으로 상호교섭하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내에서 특성화된다. 사회적 환경변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정변인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증상층 이상보다 높은 일탈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청소년백서, 1989, p.2).

따라서 거택보호청소년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단지 경제적 측면의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택보호청소년들의 정서생활의 실태와 그에 따른 욕구를 알아보아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생활의 만족도

생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생활에 불만을 갖게 되고, 잘못하면 비행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거택보호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4-43과 같다.

〈표4-43〉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잘모름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15.7	40.0	35.7	7.8	0.9	100.0(115)
거택	23.6	39.3	30.7	6.4		100.0(140)
성별 남	25.5	37.3	30.4	6.2	0.6	100.0(161)
여	12.0	44.4	35.2	8.3		100.0(108)
교급 중	21.3	38.2	34.8	5.6		100.0(89)
고	20.1	38.9	32.2	8.7		100.0(149)
합 계	20.1	40.1	32.3	7.1	0.4	100.0(269)
(실 수)	(54)	(108)	(87)	(19)	(1)	

유의도:대상 0.4271, 성별 0.0855, 교급 0.8318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32.3%)가 만족스러운 경우(2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소년가장집단이 일반거택보호청소년보다 생활에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학교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명랑하다(44.7%)가 우울하다(13.1%)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대체로 자신의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울하다고 나타낸 경우(13.1%)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2. 가족 관계

장인협(1984)에 의하면 빈곤은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몸과 마음에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가족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들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므로 폭행, 비행, 가출등의 위험요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빈곤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가족 개개인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과 관련된 대인관계와 적응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거택보호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원만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빈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비행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표4-44〉 가족관계의 원만도

가 족 관 계		원만한편	보 통	원만치못함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7.0	34.8	16.5	1.7	100.0(115)
	거택	62.9	32.9	4.3		100.0(140)
성별	남	57.1	32.9	9.9		100.0(161)
	여	51.9	35.2	11.1	1.9	100.0(108)
교급	중	51.7	31.5	16.9		100.0(89)
	고	60.4	32.2	7.4		100.0(149)
합 계		55.0	33.8	10.4	0.7	100.0(269)
(실 수)		(148)	(91)	(28)	(2)	

유의도:대상 0.0018, 성별 0.3215, 교급 0.0697

일반적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요보호청소년들의 가족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55%), 원만치 못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그러나 10.4%란 비율은 아동의 정서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행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조사는 조사대상의 34.5%만이 회답을 하였는데, 본 조사에 응한 거택보호청소년은 비교적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생활에 불안정하거나 불만이 높은 청소년들이 회답할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수치는 다소 평가절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 경제적 능력이 가족의 원만함과 상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대상별로 보면 소년가장집단이 거택청소년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좀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친척 관계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그러한 생활고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년가장세대는 스스로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인 박탈을 탈피하기가 어려워 주로 주위의 친척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친척들의 보호가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대상인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친척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0.9%), 원만하지 못한 경우는 16.0%로 나타나 대체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5〉 친척관계의 원만도

친척과관계		원만	그저그렇다	원만하지못함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40.0	37.4	20.0	2.6	100.0(115)
	거택	40.9	43.6	11.4	2.1	100.0(140)
성별	남	47.2	39.1	11.8	1.8	100.0(161)
	여	31.5	43.5	22.2	2.8	100.0(108)
교급	중	34.8	46.1	16.9	2.2	100.0(89)
	고	45.0	38.3	14.8	2.0	100.0(149)
합계		40.9	40.9	16.0	2.3	100.0(269)
(실수)		(110)	(110)	(43)	(6)	

유의도:대상 0.2854, 성별 0.0389, 교급 0.5183

그리고 친척이 도움을 주는 경우, 어떠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4-46과 같다.

그들은 친척이 도움을 주는 이유로 친척이란 도의적 책임이 가장 높았고(37.2%), 그 다음으로 여유가 있어서(11.2%), 주변의 눈치때문에(7.8%)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의적 책임이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의상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부담을 갖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친척들의 생활수준도 대체로 중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4-46〉 친척이 도와주는 형태

친척도움형태		여유있어서	도의적책임	주변눈치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8.7	43.5	8.7	21.7	17.4	100.0(115)
	거택	12.9	33.6	7.1	27.1	19.3	100.0(140)
성별	남	13.7	37.9	2.5	24.8	21.1	100.0(161)
	여	7.4	36.1	15.7	25.9	14.8	100.0(108)
교급	중	12.4	36.0	11.2	22.5	18.0	100.0(89)
	고	12.1	36.2	4.0	28.2	19.5	100.0(149)
합 계		11.2	37.2	7.8	25.3	18.6	100.0(269)
(실 수)		(30)	(100)	(21)	(68)	(50)	

유의도:대상 0.4499, 성별 0.0011, 교급 0.2796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주변의 눈치때문에 도와준다는 경우 남학생(2.5%)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여 (15.7%) 정서에 민감한 여학생이 친척들의 도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친구 관계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부모나 기타 어른에 대한 반항현상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친구에게 의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시기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에 민감한데 특히 친구관계에 민감하다.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자신의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친구사귀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 주변의 동료 역시 이들을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힘만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고, 사회집단속에서 살게 되는데 특히 친구관계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이 고민을 나눌만한 친구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민을 나눌 친구가 한두명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61%), 여러명 있다가 13%, 전혀 없다가 24.9%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전혀없다는 것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4-47〉 고민을 나눌 친구의 유무

친 구 수	여 러 명	한 두 명	없 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5.7	55.7	26.1	2.6	100.0(115)
거택	7.9	67.1	25.0	0.0	100.0(140)
성별 남	13.0	60.9	24.8	1.2	100.0(161)
여	13.0	61.1	25.0	0.9	100.0(108)
교급 중	11.2	49.4	37.1	2.2	100.0(89)
고	14.8	68.5	16.8		100.0(149)
합 계	13.0	61.0	24.9	1.1	100.0(269)
(실 수)	(35)	(164)	(67)	(3)	

유의도:대상 0.0384, 성별 0.9962, 교급 0.0009

고 하겠다. 집단별로 보면 중학생(37.1%)이 고등학생(16.8%)보다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자신의 어려운 생활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48〉 자신의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도

이 해 정 도	이해하는편	몇사람만	거의없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40.0	42.6	11.3	6.1	100.0(115)
거택	25.0	54.3	17.9	2.9	100.0(140)
성별 남	30.4	50.3	16.1	3.1	100.0(161)
여	35.2	46.3	12.0	6.5	100.0(108)
교급 중	28.1	47.2	21.3	3.4	100.0(89)
고	34.2	51.7	11.4	2.7	100.0(149)
합 계	32.3	48.7	14.5	4.5	100.0(269)
(실 수)	(87)	(131)	(39)	(12)	

유의도:대상 0.0226, 성별 0.3809, 교급 0.2023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도를 알아보면, 몇사람만이 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8.7%), 대체로 이해한다가 32.3%로 나타났으며,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14.5%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 자신의 생각이지만,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친구들의 이해도가 거택보호청소년보다 높음을 알 수 있어 일반 빈곤 청소년의 경우가 더욱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특별 활동

친구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특별활동 혹은 씨클활동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택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친구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집단모임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씨클이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이(77%)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1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하게 된 동기와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았다.

〈표4-49〉 특별활동 모임 유무

특별활동모임		있	다	없	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4.8		80.9		4.3			100.0(115)
	거택	22.1		75.0		2.9			100.0(140)
성별	남	22.4		74.5		3.1			100.0(161)
	여	13.9		80.6		5.6			100.0(108)
교급	중	5.6		87.6		6.7			100.0(89)
	고	28.2		70.5		1.3			100.0(149)
합 계		19.0		77.0		4.1			100.0(269)
(실 수)		(51)		(207)		(11)			

유의도:대상 0.2872, 성별 0.1572, 교급 0.0000

응답자만을 두고보면 특별활동에는 “친구의 권유”(25%)보다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51%)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특별활동이나 씨클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19.7%)와 “관심이 없어서”(20.4%)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시간이 없어서”(13.0%)이고, “돈이 없어서”(5.6%)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특별활동이나 씨클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거나 참여 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동기부여가

〈표4-50〉 특별활동 불참 이유

불참이유	기회없음	시간없음	돈없음	어울리기싫어서	무관심	기타	돌이생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3.5	8.7	4.3	6.1	21.7	8.7		27.0	100.0(115)
거택	17.9	15.7	6.4	3.6	20.0	5.7	0.7	30.0	100.0(140)
성별 남	16.8	13.7	4.3	3.7	24.2	6.8		30.4	100.0(161)
여	24.1	12.0	7.4	5.6	14.8	6.5	0.9	28.7	100.0(108)
교급 중	22.5	6.7	5.6	5.6	24.7	10.1		24.7	100.0(89)
고	16.1	18.8	6.0	2.7	18.8	4.7	0.7	32.2	100.0(149)
합 계	19.7	13.0	5.6	4.5	20.4	6.7	0.4	29.7	100.0(269)
(실 수)	(53)	(35)	(15)	(12)	(55)	(18)	(1)	(80)	

유의도:대상 0.4590, 성별 0.3489, 교급 0.0676

이루어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6. 상 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미성숙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주로 가까운 어른이나 손윗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열악한 주위환경으로 상담 대상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거의 경제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심리적 서비스는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민간단체의 지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의 상담대상과 상담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고자 하

〈표4-51〉 상담 필요성

상 담 필 요 성	아주필요	가끔필요	거의불필요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2.6	60.9	12.2	4.3	100.0(115)
거택	17.1	74.3	8.6	0.0	100.0(140)
성별 남	15.5	70.8	12.4	1.2	100.0(161)
여	25.9	63.0	7.4	3.7	100.0(108)
교급 중	24.7	55.1	18.0	2.2	100.0(89)
고	16.1	77.9	6.0		100.0(149)
합 계	19.7	67.7	10.4	2.2	100.0(269)
(실 수)	(53)	(182)	(28)	(6)	

유의도:대상 0.0231, 성별 0.0508, 교급 0.0006

었다.

먼저 상담의 필요성을 알아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83.4%), 필요없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10.4%). 대상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남학생(15.5%)보다는 여학생(28.9%)이 상담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24.7%)이 고등학생보다(16.1%) 상담의 절실함을 더 느끼고 있으나, 전체적인 필요성은 고등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상담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4-52〉 문제발생시 상담 대상

상담대상	부모	친구	선생님	형제	사복기관 상 담 가	상담없음	틀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5.2	30.4	9.6	13.9	1.7	30.4	1.7	7.0	100.0(115)
거택	10.7	39.3	5.0	6.4	0.7	35.7	0.7	1.4	100.0(140)
성별 남	8.7	34.8	7.5	6.2	0.6	36.6	1.2	4.3	100.0(161)
여	14	56	12	10	1	59	2	7	100.0(108)
교급 중	10.1	22.5	10.1	16.9	2.2	32.6	1.1	4.5	100.0(89)
고	8.1	44.3	6.7	4.0		33.6	1.3	2.0	100.0(149)
합 계	8.6	34.2	8.2	9.3	1.1	33.5	1.1	4.1	100.0(269)
(실 수)	(23)	(92)	(22)	(25)	(3)	(90)	(3)	(11)	

유의도:대상 0.0274, 성별 0.4687, 교급 0.0015

대부분이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상담실체는 문제가 있는데도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33.5%), 상담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이 친구가 가장 많았고(34.2%), 그 다음으로 형제(9.3%), 부모(8.6%), 선생님(8.2%), 복지기관상담가(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 동료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윗사람과 상담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하나의 어른들과 상담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7. 가 출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부모 자녀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유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빈곤과 연관된 생활조건은 가족에 긴장을 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유기와 학대의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빈곤은 부부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의 차이와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가출의 충동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거택청소년들의 정서생활의 일면으로서 가출의 충동, 가출의 경험,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4-53〉 가출회수

가 출 회 수		1회	2회	3회	4회이상	없 음	합계 (실수)
대상	가장	7.0	5.2	0.9	4.3	82.6	100.0(115)
	거택	3.6	1.4	0.7	1.4	92.9	100.0(140)
성별	남	6.8	3.1	1.2	3.1	85.7	100.0(161)
	여	5.6	2.8		1.8	89.8	100.0(108)
교급	중	5.6	1.1	1.1	5.6	86.5	100.0(89)
	고	6.0	1.3		1.4	91.3	100.0(149)
합 계		6.3	3.0	0.7	2.6	87.4	100.0(269)
(실 수)		(17)	(8)	(2)	(7)	(235)	

유의도: 대상 0.2834, 성별 0.5163, 교급 0.1992

본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2.6%).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그 횟수를 보면 대부분이 1~2회의 가출경험이 높았고, 그 이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본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낮았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만이 많거나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응답을 꺼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의 가출청소년은 본 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사자가 거택보호청소년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공무원과 면담해본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가출상태에 있거나,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가출경험이 있든 없든간에 이들의 가출충동을 알아보면, 때때로 가출충동을 느끼는 경우가(57.3%) 그렇지 않은 경우(3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가출충동의 빈도를 보면, 충동을 가끔느끼는 경우(세달에 한번정도)가 21.9%, 드물게 있는 경우(1년

〈표4-54〉 가출충동의 경험유무

가 출 충 동		자주	가끔	드물게	거의없다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4.8	22.6	20.0	36.5	6.1	100.0(115)
	거택	12.1	22.9	22.9	40.0	2.1	100.0(140)
성별	남	8.1	23.6	24.2	41.6	2.5	100.0(161)
	여	22.2	19.4	17.6	35.2	5.6	100.0(108)
교급	중	16.9	20.2	13.5	46.1	3.4	100.0(89)
	고	11.4	24.8	26.2	35.6	2.0	100.0(149)
합 계		13.8	21.9	21.6	39.0	3.7	100.0(269)
(실 수)		(37)	(59)	(58)	(105)	(10)	

유의도:대상 0.5131, 성별 0.0088, 교급 0.0957

에 1번정도)가 21.6%, 그리고 자주 있는 경우(한달에 한번 이상)가 13.8%로 나타났다. 가출충동은 대상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녀별로 구분해보면, 자주 있는 경우에 남학생보다(8.1%) 여학생(22.2%)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4-55〉 가출충동 이유

가출충동이유	어려운생활	돈벌이	가정구박	공부싫어	이유없음	기타	두가지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4.3	4.3	4.3		20.0	13.9	1.7	31.3	100.0(115)
거택	13.6	4.3	6.4	3.6	20.0	23.6		28.6	100.0(140)
성별 남	14.9	6.2	5.0	1.2	22.4	18.6	0.6	31.1	100.0(161)
여	25.9	1.9	5.6	2.8	15.7	17.6	0.9	29.6	100.0(108)
교급 중	13.5	2.2	10.1	3.4	13.5	18.0	2.2	37.1	100.0(89)
고	21.5	5.4	3.4	1.3	24.8	16.8		26.8	100.0(149)
합 계	19.3	4.5	5.2	1.9	19.7	18.2	0.7	30.5	100.0(269)
(실 수)	(52)	(12)	(14)	(5)	(53)	(49)	(2)	(82)	

유의도:대상 0.0470, 성별 0.2334, 교급 0.0149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보면, 표4-55에서와 같이 어려운 생활이 싫어서(19.3%)와 특별한 이유가 없다(19.7%)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나 형제가 못살게 굴어서(5.2%), 돈을 벌기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대체로 거택청소년들의 가출 충동은 일반 청소년들의 특징중의 하나인 “이유없는 반항”과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의 도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생활태도

청소년은 지적, 신체적인 면은 물론 도덕적, 인격적인 면에서 미성숙의 단계에 있으므로 거의 주변환경과 여건에 따라 생활태도 및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 대해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정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고 있다(이상주, 1983, p.33).

이러한 관점에서 거택보호청소년들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빈곤에 대한 책임

빈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밝히는 일은 자신들의 복지의식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생활태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대상인 거택보호청소년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의식은 표4-56과 같다.

〈표4-56〉 빈곤의 책임

가 난 책 임		부모	자신	정부	사회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53.0	1.7	4.3	16.5	13.9	10.4	100.0(115)
	거택	35.0	10.7	7.9	17.9	14.3	14.3	100.0(140)
성별	남	36.6	9.3	8.1	18.6	13.0	14.3	100.0(161)
	여	52.8	2.8	2.8	16.7	15.7	9.3	100.0(108)
교급	중	50.6	3.4	5.6	12.4	16.9	11.2	100.0(89)
	고	36.2	10.1	8.1	19.5	13.4	12.8	100.0(149)
합	계	43.1	6.7	5.9	17.8	14.1	12.3	100.0(269)
(실 수)		(116)	(18)	(16)	(48)	(38)	(33)	

유의도: 대상 0.0130, 성별 0.0245, 교급 0.1200

제가 요보호청소년들은 빈곤의 책임(자)으로 자신의 부모의 책임(43.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17.8%), 자신(6.7%), 정부(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가지 이상의 공통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14.1%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부모의 책임은 거택청소년보다는 소년가장집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책임을 주로 자신의 부모나 자신등 개인에게 책임

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아직 전통적인 태도가 높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책임이 공동에게 있다는 의식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와 의 공동 책임의식이 높아져간다고 볼 수 있다.

2)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의식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가난에 대한 책임이 주로 자신 및 부모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빈곤문화화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의 수준에서 주요한 특징은 강한 주변 의식, 무력감, 의존 및 열등감, 강한 현실지향감, 체념과 숙명감이 있다고 하고 있다(김영모 1989, p.23).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관련되는 지는 알 수 없고, 본 조사에서는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4-57〉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

생보대상자의 시각		어쩔수없다	창피함	고맙다	기	타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13.0	10.4	75.7	0.9	0.0		100.0(115)
	거택	28.6	21.4	40.0	5.7	4.3		100.0(140)
성별	남	22.4	18.6	51.6	4.3	3.1		100.0(161)
	여	17.6	13.0	64.8	2.8	1.9		100.0(108)
교급	중	15.7	11.2	62.9	3.4	6.7		100.0(89)
	고	24.2	19.5	51.0	4.7	0.7		100.0(149)
합 계		20.4	16.4	56.9	3.7	2.6		100.0(269)
(실 수)		(55)	(44)	(153)	(10)	(7)		

유의도:대상 0.0000, 성별 0.3077, 교급 0.0122

표4-5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56.9%), 생활이 어려워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20.4%)가 그다음으로 높았고, 도움을 받아 고맙지만 창피하게 생각한다(16.4%)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년가장은 고맙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하여, 거택청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집단도 공적부조 이외에 민간단체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당분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교적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거택청소년에게는 자

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싶은 희망과 현실적인 주변 의식에 따른 열등감이 함께 작용하여 소년가장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태도

거택보호청소년의 생활태도를 보면,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열심히 생활한다(54.3%), 별다른 계획은 없으나 열심히 생활한다(23.8%), 사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9.7%), 그저 그렇게 지낸다(9.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택보호청소년들의 생활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78.1%), 사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는 경우가 적은 비율일지라도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적 생활태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58〉 생활태도

생 활 태 도	희망을갖고 열심히생활	열심히 생 활	그 저 그렇다	사는것이 싫 다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57.4	20.0	9.6	10.4	2.6	100.0(115)
거택	52.9	26.4	8.6	9.3	2.9	100.0(140)
성별 남	52.2	26.1	11.8	6.8	3.1	100.0(161)
여	57.4	20.4	5.6	13.9	2.8	100.0(108)
교급 중	47.2	24.7	13.5	9.0	5.6	100.0(89)
고	59.1	24.8	6.7	8.7	0.7	100.0(149)
합 계	54.3	23.8	9.3	9.7	3.0	100.0(269)
(실 수)	(146)	(64)	(25)	(26)	(8)	

유의도:대상 0.3737, 성별 0.1218, 교급 0.0474

한편,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청소년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자립을 할 때, 생활자세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을 알아보면 어느정도의 가치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4-5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만한 인간관계(2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근면성(12.3%), 정직성(12.6%), 자립심(8.2%), 적극성(3.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가지 이상의 내용에 응

〈표4-59〉 자립에 필요한 생활자세

생활자세	자립심	원 만 한 인간관계	근면성	정직성	적극성	적응력	편견 극복	기타	두가지 이 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7.0	22.6	16.5	15.7	3.5	0.9			31.3	2.6	100.0(115)
거택	10.0	26.4	10.0	8.6	4.3	2.9	1.4	0.7	32.9	2.9	100.0(140)
성별 남	9.9	23.0	11.2	14.3	3.7	1.9	1.2	0.6	31.1	3.1	100.0(161)
여	5.6	26.9	13.9	10.2	3.7	2.8			34.3	2.8	100.0(108)
교급 중	7.9	24.7	16.9	16.9	1.1	2.2	1.1		23.6	5.6	100.0(89)
고	6.7	24.8	11.4	9.4	6.0	2.7	0.7	0.7	36.9	0.7	100.0(149)
합 계	8.2	24.5	12.3	12.6	3.7	2.2	0.7	0.4	32.3	3.0	100.0(269)
(실 수)	(22)	(66)	(33)	(34)	(10)	(6)	(2)	(1)	(87)	(8)	

유의도:대상 0.3737, 성별 0.7751, 교급 0.0597

답을 한 경우(32.3%)도 많았다. 여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평소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나 불만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간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학교집단별로 볼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근면성이나 정직성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반면 적극성은 높아지는 것을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실지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4-60〉 미래의 자화상

미래의자화상	훌륭한사람	평범한사람	자립에실패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58.3	40.0	0.9	0.9	100.0(115)
거택	51.4	45.7	1.4	1.4	100.0(140)
성별 남	51.6	45.3	1.2	1.9	100.0(161)
여	56.5	41.7	0.9	0.9	100.0(108)
교급 중	48.3	47.2	2.2	2.2	100.0(89)
고	55.0	44.3	0.7		100.0(149)
합 계	53.5	43.9	1.1	1.5	100.0(269)
(실 수)	(144)	(118)	(3)	(4)	

유의도:대상 0.7163, 성별 0.8176, 교급 0.1697

표4-60은 청소년 자신이 40살정도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53.5%이고 그 다음은 평범한 사회인(43.9%)이며 사회자립에 실패하여 고생하

는 사람은 극히 소수(1.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택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이 불우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의 빈곤을 세습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평범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회의 구조로 보아 자신의 위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어느 정도 현실지향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9. 정서 지원 자원

1) 사회복지관

거택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 치중되어 왔고 정서적인 서비스는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지원체제로 보아 이들의 정서적인 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거택보호청소년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4-61〉 사회복지관의 이용경험

복지관이용경험		있	다	없	다	무	응	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20.9		73.0		6.1			100.0(115)
	거택	6.4		88.6		5.0			100.0(140)
성별	남	9.3		85.7		7.4			100.0(161)
	여	16.7		75.9		5.6			100.0(108)
교급	중	12.4		82.0		6.0			100.0(89)
	고	12.1		81.9		5.9			100.0(149)
합	계	12.3		81.8		5.9			100.0(269)
(실 수)		(33)		(220)		(16)			

유의도:대상 0.0023, 성별 0.1194, 교급 0.9898

조사대상자중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12.3%에 불과해,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별로 보면 소년가장이(20.9%), 거택보호청소년(6.4%)보다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거택청소년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는 없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지역별로 보면 도시거주 청소년이 높은 이용률을 보여 지역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관의 순적인 부족과 인식의 부족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결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내용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문제상담과 가족의 문제상담이었다. 앞의 표4-6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관은 소년가장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들은 자신의 가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자신의 어려움 즉, 경제적 문제 및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거택청소년들은 사회복지관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하계야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관이 거택보호청소년들의 정서문제에 대한 서비스에 아직은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2〉 사회복지관의 필요성

복지관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모름	무응답	합계 (실수)
대상	가장	63.5	3.5	31.3	1.7	100.0(115)
	거택	44.3	3.6	48.6	3.6	100.0(140)
성별	남	47.8	4.3	45.3	2.5	100.0(161)
	여	57.4	2.8	36.1	3.7	100.0(108)
교급	중	44.9	6.7	42.7	5.6	100.0(89)
	고	54.4	2.7	40.3	2.7	100.0(149)
합 계		51.7	3.7	41.6	3.0	100.0(269)
(실 수)		(139)	(10)	(112)	(8)	

유의도:대상 0.0205, 성별 0.3585, 교급 0.2121

한편 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표4-62에서와 같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41.6%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관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별로 구분해보면, 역시 거택청소년보다 소년가장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거택청소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 경제적 도움을 위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대상별로 보면 두집단 모두 정신적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소년가장집단이

(36.6%) 거택청소년(29.7%)보다 경제적 도움을 더 원하고 있고, 남녀별로 보면 경제적 도움은 남학생이 더 높고, 정신적 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여학생이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집단이 고등학생집단보다 경제적 도움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에 대한 필요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정서적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대한 요구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용할 기회가 없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2) 자원봉사자

거택보호청소년에 대한 정서문제 즉 사회, 심리적 서비스는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은 거택청소년의 정서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려되어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선 거택보호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와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다가 49.7%, 필요없다가 9.3%로 나타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가 38.4%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거택청소년보다는 소년가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더 느끼는 학생일수록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의 만남이 도움을 받는다면 어떠한 도움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면 학업지도(22.3%)와 정서지도(21.6%)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고민상담(20.8%)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업지도 및 정서지도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야간공부방을 확대시키고, 좀더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다.

〈표4-63〉 자원봉사자의 도움 내용

자원봉사자	학업지도	정서지도	인격발달	고민상담	기타	두가지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대상 가장	20.9	25.2	10.4	22.6	4.3	1.7	14.8	100.0(115)
거택	23.6	19.3	14.3	20.0	6.4	3.6	12.9	100.0(140)
성별 남	23.6	21.7	12.4	19.9	5.6	2.5	14.3	100.0(161)
여	20.4	21.3	13.0	22.2	4.6	2.8	15.7	100.0(108)
교급 중	20.2	16.9	13.5	21.3	10.1	1.1	16.9	100.0(89)
고	26.2	23.5	12.1	20.1	2.0	4.0	12.1	100.0(149)
합 계	22.3	21.6	12.6	20.8	5.2	2.6	14.9	100.0(269)
(실 수)	(60)	(58)	(34)	(56)	(14)	(7)	(40)	

유의도:대상 0.8242, 성별 0.9940, 교급 0.0647

제 5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제 5 장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나라이던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얹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빈곤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공적부조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이와 별도로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특히 요보호 청소년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즉,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고, 또한 그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과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원이 실제로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욕구와 생활상태를 기초로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수혜자인 재가 청소년들의 평가는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울러 공급자로서 비교적 객관적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볼 수 있는 최일선의 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지원방안 모색에 참고로 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행정공무원은 전국 시·도의 청소년과, 시·군·구청의 사회과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담당공무원이었다.

제 1 절 전달 체계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행정전달 체계는 상의하달식으로 보건사회부를 정점으로 시·도 → 시·군·구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행정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방식은 하의상달식으로 아동의 요구와 문제를 점차 수렴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한 법적 준비는 사실상 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8조에서는 도지사, 시장·군수는 아동상담소를 관할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아동상담소는 각 시·도에 1개소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그 주된 업무도 가출아·부랑아의 선도와 현재화된 요보호아동을 귀가조치하거나 시설입소와 입양알선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각 시·군·구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문직으로서 아동복지요원을 임용하도록 한 아동복지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아동상담소가 설치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청소년이 많이 출현하는 대도시지역부터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된 인력과 물적시설등을 고려하여 빈민 밀집지역과 공단지역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과 연계해서 요보호청소년을 예방하는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도시의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에 청소년상담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청소년상담소를 확장하여 가출아·부랑아를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출청소년등 요보호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제 2 절 의식주 생활 지원 방안

1. 의생활의 지원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모나 신체변화에 극도로 민감하여 동년배들과 동일

하지 못할 때, 그들의 고민은 심화되어 갈등에 빠지게 되므로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고 또한 의복은 동료집단과 통일시키고 승인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 청소년기의 의복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거택보호 청소년에 대한 공적부조로서 의복에 대한 지원은 소년가장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90년 소년가장 가구의 전가구원에게 년 52,56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보아 교복 한벌의 값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증액이 요청되고 있다. 더구나 일반거택 청소년에게는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피복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6.8%에 불과하고 대부분 약간 부족하거나(30.5%) 부적절하다(29.7%)고 응답하여 피복비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의 지원

식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식비와 부식비로 나눌 수 있으며, 소년가장 가구원에게는 영양급식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식비는 쌀과 보리로 지급되어 비교적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부식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식비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부식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주식비의 경우는 적절하다가 30.5%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식비는 11.9%의 비율을 보여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급여방식에 있어서 주식비는 물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현물 배급에 따른 비용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금급여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p. 330). 또한 재고의 양곡을 지급함으로써, 밥의 질이 떨어지고 간혹 변질된 양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특히 충분한 영양공급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부식비의 증액 뿐만이 아니라 영양급식비의 증액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도 소년가장 가구만이 아니라, 거택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주생활의 지원

거택보호 청소년의 주거 생활의 취약점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거택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계문제는 공적부조로써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주거보호는 공적부조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에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앞장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년가장의 경우, 주거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청소년의 정서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도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공공 영구임대 주택을 계획중이고 일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자원의 확보, 사업시행의 제약 극복, 입주자 부담의 적정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입주에 대한 계약금 및 매월의 임대료 문제가 걱정거리일 수 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도 매월 5만원 정도의 임대료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조사에 있어서도 소년가장에 대한 주거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대부분 임대주택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의 임대료 할인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거택보호 청소년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대부분 부모와 형제자매가 한방에서 살고 있으므로 학습환경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장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일정비율의 주거비를 공적부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단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공공 공부방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개별 가구가 분담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역단위에서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의료보호의 개선

본 연구의 대상인 거택보호 청소년은 의료보호 1종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진료 및 입원을 할 수 있어 대체로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택청소년 가구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10%가 가장의 사고·혹은 장애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장기환자가 많고 그에 따른 의료비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은 결국 생계비에서 쓰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보다 의료보호의 의료수가 장기체불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에서도 한 소년가장 학생은 의료보호증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푸대접을 하기 일쑤여서 차라리 돈을 내고 진료를 받고 싶은 적이 많다고 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택보호 청소년의 의료보호는 장기적으로 의료보험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단기적으로 소년가장 세대등 요보호 청소년들에게 비타민과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민간단체의 지원

또한 거택보호 청소년은 이웃돕기사업,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단체 및 장학재단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경로가 다양하고,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원금액이 일정치 않고, 비정기적인 지원이 많으므로 수혜자가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연사업은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지역별 자체 결연사업도시·도 수준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으며(44.1%), 그 다음으로는 지역의 자치성을 고려하지만, 다른 지역과 형편을 고려하여 결연금 중 50%를 지역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시·도 수준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33.1%),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및 경로의 단일화는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택보호 청소년을 위한 모든 지원은 시·도 단위 “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 금품의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

제 3 절 학업 지원 방안

1. 학습환경의 개선

거택보호 청소년의 주거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거환경상 개인의 공부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옥구조가 노후화되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할 수가 없어서 가정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게다가 소년가장의 경우는 본인이 취사를 담당해야 할 때가 많아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시기를 놓치게 되고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조사에서도 자신의 학업성적이 나쁜 이유를 주로 기초실력의 부족과 학습환경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이에 언급한 바 있지만, 학습환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야간공부방의 확대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의 요보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 농촌 구분없이 설치하되 최소한 읍·면·동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각 과목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자원봉사자는 관내의 교회 또는 대학에 있는 자원봉사씨콜이나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교육보호의 개선

거택보호 청소년에 대한 학비 지원은 공적부조에 따른 교육보호와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한 교육보호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보다

는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사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요구가 54.2%의 반응을 보였고, 또한 전문대학의 수업료 면제가 20.3%, 대학교의 입학금 면제가 18.6%로 나타났으며, 기존과 같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는 6.8%로 나타나 현행 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 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거택보호 청소년의 사기진작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소년가장 세대의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학용품비가 국민학생은 년 12,000원, 중고생에게는 년 2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명목상의 액수에 불과함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거택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용품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육성회비의 면제에 대한 일반지침이 요구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 입학금을 지원하고, 재학중에는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소년가장 가구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용품비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거택보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요보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학교교육 이외의 가정교육 및 사회화 교육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예절이나 생활의 지혜등을 익힐 기회가 적고, 폭넓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나 은행, 도서관 이용등 가정 바깥의 일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교양교육들이 별도로 실시되어야 균형있는 발달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관 같은 곳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 4 절 정서 지도 방안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 있듯이 불안정한 경제생활은 곧 사회 심리적인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은 그들의 특성상 자신의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욕구 역시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저택보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적부조를 통한 경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인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정서생활 실태와 욕구를 기초로 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은 결손·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그들의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소규모 그룹지도 야간학교 운영, 청소년 독서실 및 취미교실 운영, 각종 직업훈련,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손·빈곤가정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결연사업을 이용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유대관계를 통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신교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전문요원의 부족, 재정의 곤란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불규칙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대부분의 저택보호 청소년은 복지관에 대한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은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구체적인 정서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도시의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기존의 정서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요보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기획하며,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결연사업에 있어서 후원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2. 대리양육 제도

아동복지법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대리양육은 무료대리양육과 유료대리양육으로 구분되고 위탁보호는 무료위탁보호, 유료위탁보호, 고용위탁보호, 입양위탁보호로 분류된다.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은 그의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아동과 청소년인데 이들은 연고자에게 인계되거나 위탁보호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게 된다(아동복지법 제12조). 다시 말하면, 시설보호나 거택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보호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일반아동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시설병까지도 생겨나게 되어, 건전한 인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 바로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인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거택보호 청소년이므로, 이들은 현재 일정액의 보호금품이 지급되는 거택보호를 받고 있으나, 그 외 여러가지 욕구에 대한 배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함은 여러번 강조된 바 있다. 위의 위탁보호사업도 법으로는 명문화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특히 소년가장 세대는 이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간혹 연고자 혹은 후견인에 의해서 대리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도의적인 책임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갈등도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소년가장 세대를 보호하고 있는 후견인에 대한 정부의 적절

한 도움이 전제되거나 유료대리양육제도 및 유료위탁보호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55.2%가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취지와 인식을 적극 홍보하여 위탁가정 확보에 노력하고, 거택보호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에게 일정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위탁양육기간은 가능한 장기간으로 정하고, 위탁양육사업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사업가를 지역별로 배치한다.

3. 상담사업 확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본질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달과정상의 과도기로서 자아정체감의 위기, 반항성, 소속에서의 이탈,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사회의 미성숙 등으로 지적된다. 청소년기는 발달에 따른 변화와 요구를 특절로 함은 물론 사회적 이행기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치로 이행하기 위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착하여 내면적 동요를 겪게 된다. 또한 청소년은 발달과정상의 심리적 본질과 아울러 그들과 제도적으로 상호 교섭하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내에서 특성화 된다(청소년백서, 1989. p.1).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는 다양한 변인들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특히 거택보호 청소년들의 문제는 대부분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후지도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본 조사에서도 거택보호 청소년들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높지만 상담대상이 적당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아동상담소를 들 수 있고 그 외 부녀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내의 상담실 등이 있으나 인력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상담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 어른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청소년 당사자는 도외시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거택보호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전문상담기관의 신설도 바람직하

지만 기존의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거택보호 청소년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학교의 상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거택보호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아동상담소 및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실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적극 홍보한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생보대상자 가족을 방문, 상담할 수 있게 한다. 각 중·고등학교에 상담 전문교사를 배치하여 상담 및 사후지도를 하게 한다. 대중 전달매체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대국민에 대한 인식 및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결연 및 입양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4. 여가선용 지원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의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욕구불만,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여 공상, 모험, 여행, 오락 등을 통해 욕구를 배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욕구불만은 여가선용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레크리에이션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욕구불만을 건전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 청소년은 경제적인 제약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는 하계 방학을 통하여 빈곤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역사회복지관 및 각 단체에서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를 기하여 각종 사회단체에서 불우 청소년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도 거택보호 청소년의 정서생활 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

장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 50명중 18명이 정부 및 민간단체 지원에 의한 캠프 및 여행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여가 및 정서생활에 얼마나 제한을 받아 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행사가 사회단체의 실적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호화로운 호텔 등에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경로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행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

제 6 장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

제 1 절 정부의 지원 현황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675개소(수용인원 79,469명)이고, 이중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며 수용인원은 24,531명(남:13,762명, 여:10,769명)이다.¹⁾

1989년 현재 224개 육아시설(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시설’로 약칭하며, ‘시설’이라 함은 육아시설로 한정함)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0,969명인데, 그 중 본 보고서에서 다룬 시설요보호청소년이라 함은 주로 중학생(4,427명), 고등학생(3,175명)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설아동의 개인적 배경은 고아(6.7%), 기아(15.7%), 미아(7.3%), 가출아동(3.3%)들이고 가정빈곤과 부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한 아동(25.4%)과 결손가정출신(41.6%)등으로 나타났다.²⁾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현황을 살펴본 뒤에 그들의 욕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 두 사실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아동복지법 제27조이다. 여기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과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³⁾을 말한다.

1) 보건사회통계연보 1990, 보건사회부, 1990,p.168

2) 김석산, 육아시설아동의 원인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논문, 1984,pp.61~62

3) 보조금 관리법 제2조

정부의 지원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7조 이외에, 제28조(비용의 징수), 제29조(보조금의 환수명령), 제30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 제31조(면세)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비용보조)와 아동복지시행 규칙 제17조(비용의 수납), 제18조(비용보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아동의 생활과 시설운영 그리고 직원처우에 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정리한다.

1. 의 식 주

1) 의식주 지원제도

시설청소년에 대한 의식주 지원서비스에는 연 2회로 나누어 지원되는 피복비와, 분기마다 지원되는 양곡과 달마다 지원되는 특별급식비와 부식비 그리고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되는 난방연료비와 건물유지비가 있다. 피복비는 신발, 양말, 겹옷, 속옷, 동내의, 장갑 그리고 배개와 이부자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양곡으로 지급되는 쌀, 보리는 2~3년씩 묵은 정부미이다. 난방연료비는 영아시설의 경우 연 180일분이 지원되는데 비해 육아시설은 105일분이 지원된다. 주생활공간은 침실이외에는 특별한 정서공간이 없다.

2) 의식주 지원내용

의식주에 대한 예산은 피복비, 양곡, 부식비, 특별급식비,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나누어 책정되고 있으며 1990년도 단위당 예산은 표6-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6-1〉 시설보호의 의식주 단위당 예산

비 목	단위 예산	정부보조율	비 고
피 복 비	43,600원	100%	인/년
양 곡	쌀 :456 g 보리:114 g	100%	인/일
부 식 비	500원	100%	인/일
특별급식비	288원	100%	7세 이하
난방연료비	1,219원÷4명×105일	80%	㎡/년
건물유지비	5년이하 : 436원	80%	
	10년이하 : 820원		
	15년이하 : 1,073원		
	20년이하 : 1,276원		
	25년이하 : 1,452원		
	25년초과 : 1,609원		

1990년도 시설아동의 의식주를 위한 정부예산(국고+지방비)은 표6-2와 같이 약 112억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표6-2〉 시설아동의 의식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

비 목	예산(천원)	산 출 내 역
피 복 비	928,637	$43,600\text{원} \times 21,299\text{명} \times 100\%$
양 곡	4,721,621	$607.35\text{원} \times 21,299\text{명} \times 365\text{일} \times 100\%$
부 식 비	3,887,068	$500\text{원} \times 21,299\text{명} \times 365\text{일} \times 100\%$
특별급식비	923,690	$288\text{원} \times 8,787\text{명} \times 365\text{일} \times 100\%$
난방연료비	545,234	$1,219\text{원} \times (21,299\text{명} \div 4\text{명} \times 105\text{일}) \times 80\%$
건물유지비	177,860	$275,905,000\text{원 (아동시설 전체)} \times 80.58\% \text{ (육아시설 비율)}$ $\times 80\%$
합 계	11,184,110	

비고: 건물유지비는 추계치임

3) 제도의 서비스

의식주에 대한 제도의 서비스는 지방비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보조와 정부기관을 경유하는 의식주 원조금품을 말하는데 지방비 보조는 대구와 경남의 춘추계 부식비보조가 1인당 20,000원이고, 원조금품은 어린이날이나 명절날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배급받는 의류(양말, 동내의, 잠바가 주종)와 담요 그리고 식료품이나 간식이 대부분이며, 이것들은 대통령이나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물인 경우가 많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행정기관을 통하여 의식주물품을 기증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의 의식주지원은 시설청소년들의 기본생활여건에 있어 생존의 위험을 모면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호수준이 낮은 것은 시설청소년에 대한 지원원칙이 생활보호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지원이 시설법인의 자부담론과, 불우이웃돕기형태의 시민원조를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의식주지원은 마술로의 욕구 5단계론에 대입하면, 가장 낮은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여겨진다.

2. 학 업

1) 학업 지원제도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업지원은 직접교육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등록금중 수업료가 지원되고, 분기별로 교통비와 학용품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논란이되어 왔던 수업료 지원경로는 「보사부→문교부→학교」에서 1990년 4/4분기부터 「보사부→시설→아동→학교」로 개선되었다.

2) 학업 지원내용

〈표6-3〉 시설학생에 대한 학업지원 내용

비 목	내 용	정부보조율	비 고
수 업 료	전액	100%	수혜자:중학생,실업계고교생 인/년
학 용 품 비	국민학생:12,000원 중 고 생:20,000원	80%	
도 서 구 입 비	연간 200,000원	80%	시설/년

시설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내용은 표6-3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업료는 전액 국가보조를 받고 있으며 학용품비와 도서구입비는 명목상 각각 80%씩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3) 제도와 서비스

의식주부문에서와 같은 원조형태의 제도와 서비스가 학업부문에서는 극히 일부의 장학금지급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전 지역으로 몇몇 항목이 지원되는 곳도 있다. 가장 폭넓게 지원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비롯하여 지방비로부터의 교육 지원은 표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장학금, 기능교육비 등으로 나누어 특별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나 중학교에 따라 육성회비나 기성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학비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다.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균일한데 비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의 재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크다.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실업계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실업교육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지만, 재능있는 시설청소년에게도 실업교육만 시켜야 한다는 교육보호는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6-4〉 시설청소년 학업을 위한 지방재정의 특별지원

지 역	비 목	내 용	지방비율	비 고
서 울	교 통 비	100원×1명×240일	80%	수혜자:중고생 분기별 지급
	참 고 서 구 입 비	중 학 생:3,000원(인/년) 고등학생:5,000원(인/년)	100%	분기별 지급
	수 학 여 행 비	중고2학년생:20,000원	100%	년1회
	대학입학장학금	대학입학생:600,000원	100%	년1회
대 전	성적우수장학금	중 학 생:80,000원(인/년)	100%	평균70점이상
		고등학생:160,000원(인/년)	100%	평균80점이상
		대 학 생:240,000원(인/년)	100%	
경 기	학 습 재 료 비	22,000원	100%	인/년
충 남	성적우수장학금	중 학 생:140,000원(인/년)	100%	평균70점이상
		고등학생:160,000원(인/년)		평균80점이상
경 북	기 능 교 육 비	200,000원(인/년)	100%	수혜자:고3생

자 료: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1990.

3. 정 서

1) 정서 지원제도

시설청소년의 정서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제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아동상담소의 업무중 문제가 치료부서가 있지만, 제반 여건상 그 규모나 기능이 부실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2) 정서 지원예산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사실상 없으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없다.

3) 제도와 서비스

〈표6-5〉 시설아동 정서고무를 위한 지방비 지원

(단위: 원)

지 역	프 로 그 램	지 방 비
서 울	사생대회, 체육대회, 모범아동시상식, 종합예술제 수련비	17,450,000 20,000(인/년)
부 산	사생대회	1,500,000
대 구	합창경연대회 수련비	3,000,000 10,000(인/년)
인 천	체육대회	5,000,000
경 기	체육대회 수련비	8,805,000 8,250(인/년)
강 원	수련비 선진지전학 후원자와의 만남의 광장	20,000(인/년) 15,000(인/년) 10,000(인/년)
전 북	용돈(중고생 대상)	62,600(인/년)
전 남	수련비	5,000(인/년)
경 북	수련비	10,000(인/년)
제 주	수련비	10,000(인/년)

자 료: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1990.

정서 지원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조되고 있는데, 주로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의 각 지회에서 주최하는 예체능행사를 후원하는 간접서비스와 시설별 하계수련회에 대한 경비지원이다. 표6-5와 같이,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설아동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지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서비스의 부재와, 또한 이들의 정서를 담당하는 직원(생활지도교사)을 제한적(수용아동 105명 이상인 시설로서 1989년 간 현재 전국 224개 육아시설중 50개 시설에만)으로 배치하는 인적 서비스의 불충이 시설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정서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

4. 자 립

1) 자립 지원제도

시설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뒤, 일정 수준의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일

정 기간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서비스는 자립생활관 이용제도와 시설연장 아동 직장주기사업이다.

2) 자립 지원내용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가장 큰 고충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자 구상되어, 1989년부터 4개 지역에(서울·부산·전북·경남) 건립된 자립생활관은 청소년들이 적은 비용으로(계약금이나 보증금없이 월 이용료는 본인 사용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뿐) 충분한 공간을(1인 1실 면적이 12.5㎡~16.5㎡) 사용할 수 있어, 안정된 주생활을 바탕으로 건실한 자립준비과정을 유도한다.

시설연장아동 직장주기사업은 유명무실하고, 정부발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많다.

3) 제도와 서비스

1989년까지만 해도 미지급지역이 1/3이나 되던 자립정착금 지원은 1990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통의 제도와 지원사업이다. 서울·대구·전북이 60만원, 부산·인천·충북·전남·경북·경남이 50만원, 광주가 40만원, 제주가 35만원, 충남·경기·강원이 30만원 그리고 대전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자립의지 정신교육 강사료를 책정하여 시설측에 보조하고 있다.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그간의 자립지원에 사회의 측은지심에 호소한 것 이외에는 없었다. 최근에 자립정착금이 지방재정에서 지급되기 시작했고, 자립생활관을 통하여 그들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퇴소청소년들이 자립할 때까지의 공통의 과정상 욕구와 상황에 따른 개별적 욕구와, 나아가 그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의 보편적 욕구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지 않다.

5. 시설운영

1) 시설운영

육아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보사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법인과 정부의 관계는 시설운영중(기

획, 관리, 인사, 재무, 아동양육, 후원개발) 재정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제도를 취하여 이에 관한 사항은 보사부 지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다.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보조비율은 표6-6에서와 같이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운영비의 80%와 인건비의 90%로 정하고 있다.

〈표6-6〉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보조 부담비율

구 분	서울특별시			기 타 지 방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1) 시설운영지원						
종사자인건비	45%	45%	10%	72%	18%	10%
종사자급식비	40%	40%	20%	64%	16%	20%
육아특별간식비	50%	50%	—	80%	20%	—
학용품비	40%	40%	20%	64%	16%	20%
시설관리운영비	40%	40%	20%	64%	16%	20%
중·고생교통비	40%	40%	20%	64%	16%	20%
2) 시설 신·중·개축지원						
기존보조율	50%	50%	—	50%	50%	—
10% 차등보조율	—	—	—	60%	40%	—
15% "	—	—	—	65%	35%	—
20% "	—	—	—	70%	30%	—

위의 내용중 인건비부분은 다음의 제2항에서 기술되고, 운영비부분중에서의 식주와 학업에 관한 것을 전절에서 상술하였기에 시설관리운영목중 시설 공통기준경비와 차량유지비만을 199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아동 1인당 공공 요금은 연 13,200원, 수용비는 연 22,080원, 의약품비는 연 32,000원이다. 시설당 1대에만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는 연 2,006,000원이다.

시설운영에 대한 제도와 서비스는 국공립기관 주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이나, 시설운영자문기관이나 시설직원 현임교육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의 시설직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뿐이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설직원 교육생 추이는 표6-7과 같다.

〈6-7〉 시설직원 재교육 실적

연도 피교육생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보육사	190	160	80	113	130	90
총무및관리자		180	130	46	50	50

자료: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육훈련사업평가자료, 1985-1989,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90년도 교육훈련계획서

시설운영의 주체인 법인은 운영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비현실성과 공익 법인으로서의 충분치 못한 세제혜택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동시에 조세로부터의 보조금이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운영실무에 대한 지도적 감독이 있어야 하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면이 많다. 시설의 대인서비스 성격을 고려할 때, 시설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교육은 중앙에서 명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단위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2) 직원처우

시설직원의 인사권은 법인에 있고, 그 인건비의 9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1990년 현재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법정 직원수는 시설장, 총무, 간호사가 시설당 각 1명, 보육사는 아동 15인당 1명, 생활지도교사는 수용인원 105인 이상인 시설에 1명, 취사나 세탁부는 시설당 둘 중에 1명이다.

현재 시설직원의 신분은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호봉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실정이다.

시설직원에 대한 처우는 1990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호봉제가 도입 실시되었고 180%로 일괄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근무년수에 따라 최저 100%(1년미만)~최고 200%(10년이상)로 차등 구분되었다.

시설직원 봉급기준은 표6-8에서 나타나듯이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시설운영에 대한 제도의 지원은 형식과 내용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다소 있는 실정이나, 직원처우 부분에는 제도와 지원이 없어 왔다.

시설의 직원은 임금의 90%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면서도 그 신분은 여러 요건상 공무원으로 준하여 인정받기는 어렵다. 보사부채정 호봉에 따른 저임금과 500%~600%의 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이 총수입인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저임금, 중노동, 무복지)으로 직업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양육과 내부발전이 담보상태에 처해 있다.

〈표6-8〉 사회복지시설 직원봉급표

(단위:천원)

호	봉	시설장	총 무	생 환 지도원	보육사	취 사 세탁부
1		331	293	241	209	144
2		342	303	249	216	151
3		353	313	257	223	158
4		364	323	265	230	165
5		375	333	273	237	172
6		386	343	281	244	179
7		397	353	289	251	186
8		408	363	297	258	193
9		419	373	305	265	200
10		430	383	313	272	207
11		443	395	323	281	216
12		456	407	333	290	225
13		469	419	343	299	234
14		482	431	353	308	243
15		495	443	363	317	252

비고:간호사는 생활지도원에 준함

6. 요 약

제1절에서는 시설청소년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율타리 모양과, 공부하고 생각하고 시설을 나가 혼자 살아가는데 대한 뒷바라지와, 평균하여 100명 안팎의 아동이 거주하는 대단위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의 지침과, 청소년 성장에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입장을 별 비판 없이 소개하였다.

광의의 시설(아동과 법인과 직원을 포함)을 정부에서 어떻게 개념 정립하여 왔으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시설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설아동에 대한 직접지원과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은 연차적으로 증액되어 왔고 항목도 증설되어 왔다. 그 결과 시설아동이 의식주 문제로 고통당

하고 법인이 운영비 문제로 시설을 폐쇄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명목상의 지원확대와 시설만의 변화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금 증액의 실질내역과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할 때, 시설이 안고 있는 상대적 낙후성은 더욱 심화되어 일반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설지체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낮은 투자는 정부에서 강변하여 온 많은 국방비의 지출때문만은 아니다.⁴⁾ 우리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자유방임주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약하고 시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이데올로기내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엄청나다. 기능주의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시설아동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회기능의 저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하나, 시설직원(사회복지사와 일반직원)과 시설장들의 책임부분도 있다. 자신들이 속한 직업분야에 대한 직무상 책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이기도 하다. 직원의 91.8%가 종교인인 것이⁵⁾ 그동안 정부에 순종적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종교와 직업은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1989년의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시설운영 총지출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68%로⁶⁾ 명목상 정부보조비율 80%와 90%의 허상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생활환경을 우리사회의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준한다면 정부의 32% 무책임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시설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기능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요보호청소년이 요보호성인이되어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설의 존재가 사회(아동)문제의 일시적 잠복처로서가 아니며 사회순기능에 기여하는 사회교육시설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라면 정부는 시설발전에 현실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직원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함께 직업정신을 겸비하는 의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
- 4) 김환준, “사회복지비지출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위상”, 社會福祉 통권10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 5) 이정호의 3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p.168.
 - 6) 김국도·하길웅,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p.32.

제 2 절 민간의 지원 현황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이 체계를 잡아오기 시작한 것은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민간부문의 지원은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복지재단과, 일반 사회단체의 사회사업부문의 일부로서의 지원과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대별된다. 각 시설에서 직접 접수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전국적으로 많은 액수이고 그것이 시설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나, 대개의 시설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계량하여 평가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복지재단이라 일컫는 것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태평양복지재단, 한국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들이고, 사회단체들은 한국어린이육영회, 삼미문화재단, 한국기독교선교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라이온스클럽 등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시설을 주로 지원하는 단체와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구분되기도 하고 몇몇 단체는(아산과 삼미재단) 시설과 아동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지원이 초기에는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였으나,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1. 전달체계

민간부문의 지원서비스가 시설에 전달되는 과정의 양식은 3가지이다. 첫째는 시설과 민간부문이 직접 연결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설과 민간부문 사이에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와 그 각 지회가 개입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시설과 민간부문 사이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을 택하는 곳이 태평양재단, 하트-하트재단, 기독교선교원, 홀트 그리고 동방이다. 둘째 방법을 택하는 곳이 아산재단, 삼미재단, 라이온스클럽이다. 셋째 방법은 어린이육영회와 어린이재단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이다. 둘째와 셋째의 방법에서, 중개 입장에 서는 협회나 정부는 전달체계상의 한 단위로서의 적극적인 기능보다는 시설서비스에 한몫 한다는 명분상의 모양이다.

지원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형식상으로는 지원단체에 있으나, 아산재단과 삼미재단과 태평양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시설측과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시설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지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관례적 지원이 이루어 진다.

2. 의 식 주

외류에 관한 직접지원은 한국어린이육영회나 하트-하트재단에서 지원프로그램 진행상 필요한 의복이나 신발(한복, 운동화, 티셔츠 등)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없었다.

간접지원은 세탁장 증개축이나 신축을 지원하거나, 세탁기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외류에 대한 지원은 아산재단, 태평양재단, 삼미재단에서 극히 소규모로 지원해 왔다. 이것은 인간생활 기본 3요건 외식주중에서 가장 절박하지 않은 것이 외류의 문제이기 때문이지만, 외류는 교회나 학교 또는 개인독지가들에 의해 적게나마 기증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서 그렇다.

식생활에 관한 지원은 현물을 통한 직접지원이 없고, 식당 증개축이나 신축을 지원하거나 주방내 취사장비나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취해 왔다.

주생활에 관한 지원은 주로 아동숙사 내부의 증개축과 시설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숙소 증개축은 난방공사나 화장실 신개축 그리고 숙소 증개축을 말하고, 환경개선은 상수도공사나 지하수개발 등에의 지원을 말한다.

3. 학 업

시설아동의 학업에 대한 지원은 장학금명목의 학자금지원과 학업환경 개선이나 조성에 치중되고 있다.

시설운영에 대한 80%의 정부보조가 있지만, 시설운영에 있어서 정부보조금이 실제지출의 50%에도 못 미치는 -도시의 많은 시설에서는 10%~20%에 불과- 항목이 교육비부문이다. 외식주에 대한 지원이 현물지원인 것에 비하여,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시설측에서는 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1982년부터 시설아동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홀트는 1990년까

지 1,465명에게 1억 9천만원을, 1985년부터 1990년까지 1,2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한국기독교선교원은 9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홀트와 선교원의 장학금이 시설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대학생들 그 수혜대상으로 한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232명 학생에게 2억 5천 6백만원을 지급해 온 시설출신 대학생에 대한 아산장학금은 1989년 신입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인문계고등학생에게 정부보조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삼미재단에서는 고등학생대상 장학금으로서는 유일하게 성적심사제 장학제도를 1990년부터 실시하여 인문계 고등학생 76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부터 미원문화재단에서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학사업이외에 시설아동에 대한 학업지원으로서, 도서실 신축이나 도서실 열람책상과 결상과 비치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여러 지원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다.

4. 정 서

음악, 문학, 체육이나 일반 취미 특기 종목을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사업과, 성교육이나 예절교육 등의 생활교육프로그램이 민간단체의 주관내지는 후원으로 꾸려져 오고 있는 것은 여타 지원사업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고 규모도 아작은 작다.

시설청소년을 위한 정서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후원하는 예비부모교육이다. 1985년에 시작되어 1990년까지 2,399명의 고등학생에게 1억 5천만원이 투입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들의 탈가정헨디캡을 보완하고 어린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하여야 하는 특별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사업이다. 시설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속에는 요리교육, 다도교육, 전통예절교육, 성교육, 인간관계심성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성찰의 시간, 진로교육, 생애설계의 시간들이 있다. 1989년까지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실시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도 교육이 시작되었고 기간이 4박 5일로 단축되었다.

1988년부터 시설아동에 대한 정서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하트-하트재단은

3년간 2천 4백만원을 투자했다. 시작년도에는 시설아동들이 주산, 미술,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름캠프를 열어주었다. 처음 1개 시설에 대한 시범지원사업을 경험한 하트는 1989년에 기존의 1개 시설에, 특별 집단지도사업을 지원하는 2개 시설을 추가로 선정했다. 주산, 미술, 태권도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집단지도사업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지도사업에서 성과와 가치를 확인한 하트는 1990년에 집단지도사업만 3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의 기획과 진행책임하에 동하제방학을 제외하고 1·2학기동안 주 1회씩 이루어 진다. 참여자들의 자기사고에서 출발한 정서성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성교육, 가정생활교육(가족역할극, 가정예절), 시민생활(학교생활, 사회생활), 심성훈련, 문화활동, 공작활동 등을 포함한다.

선교원에서는 신앙교육과 사회사업프로그램의 복합의도를 가진 어와나프로그램을 1989년부터 국민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하오에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프로그램사업은 의식주나 학업에 대한 지원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의식주와 학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이나 아동 본인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설치하는 수준이지만, 프로그램사업은 지원단체가 주관이 되어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통하여 정서적 변화와 성장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이외에, 사생대회를 후원하는 부산 금정라이온스클럽이나 도서나 놀이터기구와 시설을 기증하는 지원단체들의 간접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5. 자 립

시설청소년들의 퇴소후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산재단뿐이다. 아산은 1988년에 서울 오류에육원생을 대상으로 연장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부터는 전국을 3개 광역으로 분할하여 연장아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아산은 시설아동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장학사업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다는 점과 최초의 전국단위 연장아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1989년에는 서울, 광주·전남, 부산·경남의 3개 광역으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하였다. 3개

지역의 시설출신으로서 퇴소한지 2년이내의 무직청소년 23명에 대한 자동 차운전정비, 컴퓨터기술, 요리기능, 속기교육, 간호보조교육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비와 프로그램담당 간사 활동비를 2천1백만원 지원했고 199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연장아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산재단의 시설연장아 기술교육지원사업은 단순한 직업보도의 성질을 벗어나, 사회사업프로그램에 의한 퇴소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효시로서 의미를 갖는다.

6. 요약

전국의 시설현장을 돌아 다니다 보면, “정부 없는 곳에 ○○재단 있다”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민간지원사업재단에서는 공부방이 없는 곳에 도서실을 지어 주고, 도서가 없는 도서관에 책을 갖다 주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다.

시설의 숙사이외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우수학생이 면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민간단체의 지원탓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사정이다. 근래에 들어 정부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간단체에서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을 점차 삭감해 오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에서 아동에 대한 직접지원 방침으로 방향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지원사업은 변화의 시점에서 몇가지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아동에게 직접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생색의 효과를 노리는 기본 입장이기에 이러한 의도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고민이다. 민간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서의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의 진의를 찾아 아동에 대한 간접지원에 인식하지 말아야겠고, 행사로서의 지원사업이 아닌 사회사업으로서의 지원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도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부문에서 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용이하게 착수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아동의 예체능 특기를 계발 육성하는 후원사업과 시설이 갖고 있는 아동양육능력(育兒力)을 배양시켜 주는 사업등을 들 수 있다. 특기아동 후원사업은 기존의 ‘위안’ 행사치레 성격의 행사를 지양하고 특기자 발굴의 의미를 두어 발굴된 아동에 대해 1회성 시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대성할 때까지 단체의 연관자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후

원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시설의 육아력을 배양하는 사업은 시설아동 지도 양육에 관한 연구사업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보육사의 보육능력을 증대시키는 보육사 현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등이다.

민간단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조금은 상쾌한 아이들을 갖고 시설과 시설아동을 지원한다면, 빈곤한 시설에 샘물을 퍼 주었던 지난 시절의 공훈 못지 않은 사회복지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6-9〉 민간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가. 동방아동복지회

(단위:원, 명)

연 도	시설지원		아동지원		계		비 고
	수	후원금액	수()시설수	후원금액	수	후원금액	
'77~'79	—	—	99	8,316,000	99	8,316,000	
'80	—	—	62	5,208,000	62	5,208,000	
'81	—	2,723,020	146	14,016,000	146	16,739,020	
'82	11	47,048,000	79	7,584,000	79(11)	54,632,000	
'83	11	56,943,000	132(12)	12,672,000	132(23)	69,615,000	
'84	12	79,454,950	151(23)	13,138,000	151(35)	92,592,950	•강기지역 사립아동 종합재육원의 비용 유 38종 기준 •성육보육원 아동수소 백서계 기준 •5/25이전인년 서울지역 시설아동 •영생 재육원 아동수소 월계약장기준 •성원보육원 파계사고 위조금 전달 •5/25이전인년 12개시설 격전만 •중추전 관계시설 특별후원금 전달
'85	13	62,589,050	189(23)	18,704,000	189(36)	81,293,050	
'86	14	35,761,400	211(26)	18,756,000	211(40)	54,517,400	
'87	13	35,289,450	209(28)	22,200,000	209(41)	57,489,450	•소년회 질 추구금 10개 기준 •모성회 캠프대 기준
'88.5	11	9,602,750	181(30)	5,110,000	181(41)	14,712,750	
누 계	85	329,411,620	1459(142)	125,704,000	1459(227)	455,115,620	

자료: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아동복지」 창간호, 1988,p.32

나. 삼미문화재단

연 도	시설수	아동수	지 원 사 업	지 원 금 액
1986	1		숙사건축비	20,000
1987	3		숙사건축비, 주방식탁의자, 체육시설	42,720,000
1988	44		도서실열람대, 피아노, 놀이기구	116,765,000
1989	71		도서실열람대, 세탁기, 주방식탁의자	180,609,000
1990	52	76	인문계고교생 장학금	30,400,000
누 계	171	76		390,494,000

자료: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아동복지」 통권3호, 1990,p.86(이하 출처동일).

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연 도	시 설 지 원		장 학 금 후 원		금 액	비 고
	시설수	지원금	아동수	지급액		
1977	7	18,000,000			18,000,000	
1978						
1979	17	67,050,000			67,050,000	
1980	21	114,000,000			114,000,000	
1981	17	79,000,000			79,000,000	
1982	16	75,500,000			75,500,000	
1984	8	61,700,000			61,700,000	
1985	16	96,500,000	8	8,678,000	105,178,000	
1986	16	89,000,000	32	32,039,500	121,039,500	
1987	19	105,000,000	52	53,397,300	158,397,300	
1988	19	96,547,000	55	60,286,700	156,833,700	
1989	13	87,248,000	52	58,624,360	145,872,360	
1990		미결산	33	42,174,000	42,174,000	
누 계	169	889,545,000	232	255,199,860	1,144,744,860	

라. 태평양복지재단

연도	시설수	지 원 사 업	금 액	비고
1982	7	난방공사, 숙소 식당증개축, 상수도 공사, 도서실 사무실 신축	42,000,000	
1983	10	화장실 목욕탕 신축, 숙소개축, 난방시설, 식당신축	49,500,000	
1984	5	화장실 욕실 숙소 도서실 증개축, 지하수 개발	25,000,000	
1985	5	목욕탕 화장실 체육관개축, 도서실신축 식당기자재구입	15,000,000	
1986	3	목욕탕 개신축, 숙소개축, 지하수 개발	15,000,000	
1987	3	독서실증개축 및 비품구입, 목욕탕신축, 탈수기구입	13,000,000	
1988	1	도서실신축, 비품구입	4,000,000	
1989	6	난방공사, 취사도구구입, 세탁기구입, 차량구입	27,000,000	
누 계	40		190,500,000	

마. 한국기독교선교원

연 도	1학기인원	2학기인원	금 액	비 고
1985	100	100	15,000,000	
1986	100	100	15,000,000	
1987	100	100	15,000,000	
1988	100	100	15,000,000	
1989	120	120	18,000,000	
1990	120	120	18,000,000	
누 계	1,280		96,000,000	

바. 한국어린이육영회

교 육 년 도	교 육 학 생	교 육 비	비 고
1985	248	12,660,000	
1986	507	25,469,000	
1987	372	18,162,000	
1988	360	19,999,000	
1989	377	28,029,570	
1990	535	45,424,800	
누 계	2,399	149,744,370	

사. 홀트아동복지회

연 도	시 설 수	아 동 수	금 액	비 고
1982	35	115	11,500,000	1인당 연100,000
1983	27	64	6,400,000	"
1984	126	253	25,300,000	"
1985	117	239	33,900,000	"
1986	94	196	19,600,000	"
1987	97	181	18,100,000	"
1988	86	152	27,360,000	1인당 연180,000
1989	79	145	26,100,000	"
1990	71	120	21,600,000	"
누 계	732	1,465	189,860,000	

제 7 장

시설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제 7 장 시설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제 1 절 가족관계

본 절에서는 시설청소년의 출신과 가족관계 배경과 가족과의 관계성을 일고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들의 가족관계를 알아 본다.

표7-1을 볼 때, 시설청소년의 57.1%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출생하였고 농어촌지역도 20.5%나 되어, 도농간의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에 시설청소년발생에서 지역성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청소년중 부모가 있는 사람이 34.0%, 편부모인 사람이 34.4%였다. 이것은 10년전과 비교할 때,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0년 사이에 16.8%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재가요보호청소년의 시설유입 증가현상은 탈시설화란 아동복지원리에서 볼 때 우려되는 현상이다.

〈표 7-1〉 부모관계와 출생지역

출생지 부모관계	영아원에서 전원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모름	무응답	합계(실수)	1981년 조사*
부모	1.1	47.7	22.7	13.6	12.5	2.3	100.0(88)	20.1
편부	7.9	34.2	15.8	28.9	10.5	2.6	100.0(38)	11.1
편모		29.4	39.2	27.5	2.0	2.0	100.0(51)	20.4
기타	17.1	28.0	11.0	19.5	20.7	2.4	100.0(82)	48.4
합계 (실수)	6.9 (18)	35.9 (93)	21.2 (55)	20.5 (53)	12.7 (33)	2.3 (6)	100.0(259)	

*김영모·권오구·최경석,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 사회복지정책연구 제3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3, p. 69

아동이 6세이하에 시설에 입소한 것은 31.0%이고 국민학교 재학시절에 입소한 아동은 55.6%이다. 시설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중학생이상의 청소년은 9.1%이다. 또 아동성장에 가장 무력하게 환경의 영

향을 받아들이는 10세이하의 아동이 80.6%나 되어, 어린 아동들의 시설입소에 대한 특별한 접수준비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7-2는 가족과 친척별 생존자와 동거및 시설방문을 보여준다. 입소전의 동거는 생존분포와 혼수등에 판매되고 있지만,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뒤에 시설을 찾아와 아동을 만나는 것은 부모나 조부모보다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이 자주 방문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조부모의 무책임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친권자로서 시설에 찾아오는 것은 삼촌관계의 친척들 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표 7-2〉 입소전의 생존자와 동거자와 시설방문자

구분 \ 가족	입소당시 생존자	입소전 동거자	시설방문자
아버지	47.7	33.7	9.1
어머니	52.3	33.7	9.1
조부모	28.0	10.2	3.0
외조부모	32.6	8.7	3.0
삼촌	41.3	7.2	8.3
고모	42.4	7.2	5.7
이모	36.0	4.5	4.2
외삼촌	31.8	4.9	2.3
형제자매			11.7
영아원		12.5	
없음	18.6	26.9	57.6

비고: 생존자와 동거자 조사에서는 형제자매를 조사하지 않았음.

시설 청소년이 시설에 있는 동안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있는가는 청소년의 정서와 시설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족복지를 생각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를 방학중에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하는 내용의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시설아동중 68.3%가 부모나 편부모가 있고, 가족 친척이 전혀없는 청소년은 18.6%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43.2%나 되는 것은 아동과 가족 친척간의 관계가 시설입소를 경계로 크게 소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시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기간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가 몇 명인지를 보면 표7-4와 같이 자신외에 1-2명의 형제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45.9%가 되

〈표 7-3〉 가족이나 친척 방문 빈도

방문빈도	없음	당일	하루밤	3~4일	일주일	한달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42.4	10.1	7.2	18.7	12.9	2.2	6.5	100.0(130)
여	44.0	8.0	6.4	8.0	20.0	6.4	7.2	100.0(125)
교급 중	48.5	6.1	5.1	12.1	16.2	2.0	10.1	100.0(99)
고	36.6	11.8	7.8	15.7	17.6	5.2	5.2	100.0(153)
합 계	43.2	9.1	6.8	13.6	16.3	4.2	6.8	100.0(264)
(실 수)	(114)	(24)	(18)	(36)	(43)	(11)	(18)	

유의도:성별 0.0934, 교급 0.1750

는데, 형제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상호 안정과 의지가 되기때문에, 이는 바람직하다 하겠다.

〈표 7-4〉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수

형제자매수(명)	1	2	3	4	5	없음	무응답	합계(실수)
남	28.8	14.4	1.4	2.2		26.6	26.6	100.0(139)
여	32.8	16.0	0.8		0.8	20.8	28.8	100.0(125)
합 계	30.7	15.2	1.1	1.1	0.4	23.9	27.7	100.0(264)
(실 수)	(81)	(40)	(3)	(3)	(1)	(63)	(73)	

유의도:성별 0.4750

제 2 절 의식주

1. 의생활

청소년의 의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은 1인당 연 43,600원의 피복비이다. 청소년들이 1989년 지난 1년동안 몇 벌의 겉옷과 몇 켤레의 신발을 구입했는가를 물어본 설문에 청소년들은 표7-5, 표7-6과 같이 대답하였다.

옷의 경우, 1년에 2벌을 구입한 청소년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은 1벌과 4벌(각각 13.6%)의 경우이다. 여름과 겨울 그리고 봄가을의 세 종류의 옷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3벌이상 구입한 청소년은 37.9%이다. 유의할 점은 “1년동안에 3벌 구입하였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개념은 1년동안에 3번

〈표7-5〉 1년간 구입한 겔옷 수

겔옷수(벌)		1	2	3	4	5	6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3.7	30.2	10.8	16.5	7.9	6.5	14.4	100.0(139)
	여	13.6	36.8	9.6	10.4	5.6	8.0	16.0	100.0(125)
교급	중	11.1	32.3	17.2	17.2	6.1	4.0	12.1	100.0(99)
	고	15.0	34.0	6.5	11.1	7.2	9.1	17.0	100.0(153)
합	계	13.6	33.3	10.2	13.6	6.8	7.3	15.2	100.0(264)
(실수)		(36)	(88)	(27)	(36)	(18)	(19)	(40)	

유의도:성별 0.6819, 교급 0.0359

〈표7-6〉 1년간 구입한 신발 수

신발수(켤레)		1	2	3	4	5	6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4.4	37.4	24.5	7.2	3.6	0.0	12.9	100.0(139)
	여	28.0	34.4	10.4	9.6	2.4	0.8	14.4	100.0(125)
교급	중	20.2	44.4	20.2	5.1	3.0	0.0	7.1	100.0(99)
	고	19.0	31.4	16.3	10.5	3.3	0.7	19.0	100.0(153)
합	계	20.8	36.0	17.8	8.3	3.0	0.4	13.6	100.0(264)
(실수)		(55)	(95)	(47)	(22)	(8)	(1)	(36)	

유의도:성별 0.0180, 교급 0.0604

옷을 사 입었다는 뜻으로, 이 경우 대개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장만하는 ‘벌’의 개념이 아니라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구입하는 실재를 고려하여 표 7-5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옷의 가짓수에 대한 만족상태를 묻은 질문에, 만족하다는 청소년이 19.3%, 보통이라는 청소년이 65.2%, 불만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15.5%로 겔옷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하는 옷 가짓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만도가 낮은 것은, 기증되는 옷으로 보충되기도 하고 시설의 경제능력을 감안하기도 하겠으나, 시설 청소년에게 있어서 옷의 의미는 만족감이나 불만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족도의 조사에서, 성차이와 교급차이는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불만스럽다고 하는 일반적 양상을 갖고 있다.

신발의 경우, 연중 3켤레 이상 구입하는 청소년이 29.5%이고 1켤레 내지 2켤레를 구입하는 청소년이 56.8%로서, 옷과 달라서 기증품이 거의 없는 점에서 신발문제는 옷문제보다 곤란의 정도가 더하다. 3켤레이상 구입한 청소년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2.9%가 많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

밥을 더 소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식생활

식생활에 대해선 부식과 밥에 대한 의견과 식사방법 등에 관해서 물었다. 표7-7을 보면, 밥에 대해선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교급간에 비교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3.0%가 시설의 밥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는데, 이는 10년전¹⁾에 비해서 그 만족도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즉 10년전에는 밥에 만족한다는 아동이 50.4%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3.0%로 17.4%나 낮아졌으며, 불만족하다는 청소년이 12.1%에서 14.8%로 많아졌다. 결국, 밥에 대한 만족도가 10년전보다 낮아지고 불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시설의 밥의 내용이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과, 시설과 사회와의 상대적 격차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밥에 대한 불만보다는 국이나 반찬등의 부식에 대해 더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10년전과 같은 현상이다. 10년전의 조사중에서 시설생활 전

〈표7-7〉 밥 만족도

밥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합계(실수)
성별	남	31.7	54.7	11.5	2.2	100.0(139)
	여	34.4	49.6	12.8	3.2	100.0(125)
교급	중	39.4	48.5	12.1	0.0	100.0(99)
	고	28.8	55.6	11.8	3.9	100.0(153)
합	계	33.0	52.3	12.1	2.7	100.0(264)
(실	수)	(87)	(138)	(32)	(7)	

유의도:성별 0.8412, 교급 0.0888

비고:1981년 조사에 따르면 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0.4%, 보통 36.7%, 불만 4.5%, 매우불만 7.6%이었다.

반에 걸친 욕구조사 향이 있었는데 식사량의 개선을 요구한 아동이 11.7%인데 비해 반찬의 개선을 요구한 아동이 41.8%로 3.6배나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식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이 26.9%로 밥의 33.3%에 비해 적

1) 김영모·권오구·최경석,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 사회정책연구 제3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3. p. 86

었고, 불만족하다는 청소년은 23.5%로 밥의 14.8%보다 많았다. 이러한 불만족의 이유는 밥의 경우와 같은 것인 점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부식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간식에 관해서, 주당 간식회수와 먹고 싶은 간식을 물어 보았다. 간식을 먹는 회수는 주당 1회가 23.1%, 2회 12.5%, 3~4회 17.8%, 5회 이상이 24.7%이다. 양과 내용에서 부실한 주부식문제를 간식으로 보충하여야 하지만, 이들에 한번도 간식을 못 먹는 청소년이 전체의 35.6%나 되는 것은 일일 288원의 간식비가 7세이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시설 자체에서 간식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의 시설에 한정되어, 대개의 시설들이 명절 때 관으로부터의 선물이나 방문자들의 위문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먹고 싶은 간식을 두 가지씩 쓰는 자유문항을 주었는데, 그 중 많은 추천을 받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과일,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우유, 닭고기, 양식, 불고기, 떡볶이 등이고 중화요리와 김밥, 햄버거, 오징어와 쥐포 등도 소수로부터 먹고 싶은 간식으로 지목되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은 과일종류·과자와 빵류이고, 단일 식품으로서는 우유나 닭고기를 꼽았다. 청소년들이 간식을 통해서 평소 먹고 싶었던 것을 채우려고 단백질, 지방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꼽고 있으므로 탄수화물 위주로 짜여진 시설의 식단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시설에서의 식사방법에 관해서 물었다. 식당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시설이 92.0%이고 집별 취사를 하는 시설이 7.2%인데, 희망하는 식사방법에 대해선 식당에서의 단체급식을 68.9%, 집별 취사를 14.8%가 희망하였고 15.9%의 청소년이 아무래도 좋다고 했다. 중학생과 남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과 여학생이 단체급식을 피하고 집별 취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집단층이 보다 개별화된 식사방법을 선호한다고 평가된다.

3. 주생활

주생활에 관한 조사는 방을 사용하는 규모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현재 방 1실에서 몇명이 생활하는지(잠을 자는지)와 한방에서 몇명이 생활하고 싶은지를 알아보았다.

현재 한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수는 4명(25.4%)과 6명(18.6%)이 가장 많

〈표7-8〉 현재의 동숙자 수

동숙자수(명)		2	3	4	5	6	7	8	9이상	합계(실수)
성별	남	2.9	18.0	30.2	17.3	11.5	5.8	5.8	8.6	100.0(139)
	여	3.2	12.0	20.0	16.0	26.4	6.4	7.2	8.8	100.0(125)
교급	중	2.0	12.1	27.3	16.2	22.2	3.0	9.1	8.1	100.0(99)
	고	3.9	17.6	24.2	16.3	15.7	8.5	4.6	9.2	100.0(153)
합	계	3.0	15.2	25.4	16.7	18.6	6.1	6.4	8.7	100.0(264)
(실수)		(8)	(40)	(67)	(44)	(49)	(16)	(17)	(23)	

유의도:성별 0.0861, 교급 0.3034

〈표7-9〉 희망하는 동숙자 수

동숙자수(명)		1	2	3	4	5	6	7	8	9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6.5	15.1	25.2	21.6	12.9	7.2	3.6	3.6	2.9	1.4	100.0(139)
	여	8.6	17.6	32.0	20.0	11.2	5.6	1.6	0.8	3.2	—	100.0(125)
교급	중	6.1	16.2	25.3	24.2	10.1	8.1	2.0	3.0	4.0	1.0	100.0(99)
	고	8.5	17.6	30.7	17.6	11.8	5.9	3.3	2.0	2.0	0.7	100.0(153)
합	계	7.2	16.3	28.4	20.8	12.1	6.4	2.7	2.3	3.0	0.8	100.0(264)
(실수)		(19)	(43)	(75)	(55)	(32)	(17)	(7)	(6)	(8)	(2)	

유의도:성별 0.6243, 교급 0.8589

고, 9명이상이 한방을 쓰는 경우도 8.7%나 된다. 최대한으로 계산해도 한방을 4명 이하가 사용하는 것은 ‘생활’의 차원이지만, 5명이상일 때는 ‘생활’보다는 ‘수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 방의 이용인원이 5명이상인 경우가 56.5%나 되어, 아동들의 과반수가 ‘수용’차원에서 침실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 있어 청소년들 자신이 심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표7-9에서 알 수 있다. 5명이상과 한 방을 쓰겠다는 아동은 26.5%로서 현재의 과밀 침실을 많은 청소년이 기피하고 있으며, 3명이하의 침실은 현실적으로 18.2%에 불과하지만 아동들은 51.9%나 희망하고 있어 침실여건의 개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의 식구 구성방식에 있어선 현재 또래끼리의 구성이 15.5%이고 터울지계 구성한 것이 83.3%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식구의 구성은 또래집단간의 구성이 25.4%로 늘어났고, 터울진 구성은 51.5%로 줄었는데, 구성에 대한 희망내용에는 남녀간 또 고등학생과 중학생간의 견해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끼리의 식구 구성은 보육사가 집중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선후배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갖지 않는 장점을 가진데 반해 선후배 간에 형제지간의 정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사고의 단순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터울제구성은 또래집단의 장단점을 바꿔 가질 수 있다. 현실과 희망사이에서 터울제구성쪽에서 30%이상이 빠져 나간 것은 종래의 방식에서 오는 지루함에 따른 무비판적 반작용일 수 있고, 개인적 감정과 충분한 논리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각 방에의 아동배치는 앞으로 집중적인 연구작업이 있어야겠다.

시설청소년의 의식주문제는 이들의 생활수준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짚 수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한 시설청소년 본인들의 의견은 의복의 경우에는 만족과 불만이 양단에 35%를 차지하고 과반수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여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옷의 구입이 전적으로 피복비에서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감안되어야겠다. 식생활의 경우, 부식에 대한 불만도가 높고 식사방법을 바꿔 볼 것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겠고, 아동들이 적당량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72.7%의 아동들이 4명이하와 한방을 쓰고 싶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긴요하다. 전반적으로 의식주 세가지중에서, 식생활과 주생활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식주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생활’의 환경을 갖춰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나 사회의 책임일 것이다.

제 3 절 학 업

시설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의 의미는 일반청소년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우리사회가 학력을 증시하는 점을 생각할 때, 18세 또는 19세부터 자립을 해야 하는 시설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하여 적응해 나가는 데는 제일의 조건이 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업에 대하여 아동들의 관심과 시설내의 학습분위기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1. 학업에 대한 관심

먼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분포를 알아보았는데, 표7-10에서 보듯이 상위권에 속하는 청소년이 31.4%이고 나머지 청소년이 중하위권으로서 남아

〈표7-10〉 학업성적

학업성적		상위 (1~20)	중위 (21~40)	하위 (41~)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36.7	49.6	12.2	1.4	100.0(139)
	여	25.6	52.0	16.8	5.6	100.0(125)
교급	중	18.2	59.6	20.2	2.0	100.0(99)
	고	41.2	45.1	11.1	2.6	100.0(152)
합	계	31.4	50.8	14.4	3.4	100.0(264)
(실수)		(83)	(13.4)	(38)	(9)	

유의도:성별 0.0737, 교급 0.0012

간의 차이보다는 교급간의 차이가 크다. 고등학생의 성적이 중학생보다 월등히 좋은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더 많은 노력을 한 학생도 있겠으나, 야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지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써 오는 상황적 변화가 더 큰 요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의 학교생활이 어떻느냐에 대한 물음에 즐겁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54.5%이고 그냥 다닌다는 청소년이 17.8%로 대체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23.5%)와 학교 다니기 싫다(2.7%)는 반응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지도가 있어야겠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학교에 가기 싫은 26.2%의 아동들에게는 학업부진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대개는 시설생활과 복합된 어려운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각 2과목씩 쓰도록 한 흥미과목 조사를 하였다. 좋아하는 과목중 상위 4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미술이고, 하위 4과목은 가정, 과학, 도덕, 사회이다. 싫어하는 과목중 상위 5과목은 수학, 영어, 기술, 과학, 국어이다. 국어 영어 수학이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과목으로도 나타났으나, 세 과목을 좋아하는 청소년의 총수가 40.5%이고 싫어하는 청소년의 총수가 75.0%인 것으로 보아 국영수 과목은 아동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싫어하는 과목중 국영수가 75%를 차지하고 기술과 과학까지를 합하면 85.6%에 달해,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주목되는 것은 좋아하는 과목중 하위 4과목과 영어와 수학의 흥미도이다. 영어와 수학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아하는 아동의 각 1.8배와 3.7배에 이르고 과학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아동들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에 약함을 보여주며, 가정, 도덕, 사회와 역사 과목이 하위에 놓인 것은 이들 과목이 사고를 요하고 암기

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평소 싫어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미약하면서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음악, 미술 등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담(예습, 복습, 숙제등)없이 학습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물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시설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학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은 표7-10의 반응보다는 표7-11의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설환경과 성장과정에서의 학습습관이 중요 원인이기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1989년부터 재학생의 과외공부제한이 해제되어 많은 가정집의 학생들이 사설학원이나 과외공부 또는 가정교사로부터의 지도를 받고 있으나, 경제적

〈표7-11〉 공부에 대한 생각

공부에대한 생각		장래를 위하여	생각만있지 열심히 하지못함	공부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없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23.7	70.5	1.4	4.3	0.0	100.0(139)
	여	12.8	79.2	4.8	0.8	2.4	100.0(125)
교급	중	21.2	72.7	2.0	2.0	2.0	100.0(99)
	고	15.0	77.1	3.9	3.3	0.7	100.0(153)
합	계	8.6	74.6	3.0	2.7	1.1	100.0(264)
(실	수)	(49)	(197)	(8)	(7)	(3)	

유의도:성별 0.0081, 교급 0.4881

부담이 수반되는 과외공부가 시설청소년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습수단이다. 과외공부를 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43.9%, 하고 싶지 않다고 한 청소년이 31.4%, 모르겠다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은 청소년이 13.3%이고 현재 하고 있다는 청소년이 11.4%이다. 하고 싶다는 청소년과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의 합이 55.3%인데, 이러한 욕구에 대한 학습지원은 정부와 시설에서 각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시설내 학습

시설에서의 학습은 일일 공부시간과 학업지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표7-12〉 시설에서의 공부시간

시설내 공부시간		거의 안함	30분	1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정해져 있지않음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5.8	7.2	18.7	38.8	13.7	14.4	1.4	100.0(139)
	여	8.0	11.2	28.0	15.2	9.6	25.6	2.4	100.0(125)
교급	중	5.1	3.0	19.2	38.4	16.2	14.1	4.0	100.0(99)
	고	7.8	11.8	26.8	22.9	7.8	22.2	0.7	100.0(153)
합	계	6.8	9.1	23.1	27.7	11.7	19.7	1.9	100.0(264)
(실	수)	(18)	(24)	(61)	(73)	(31)	(52)	(5)	

유의도:성별 0.0008, 교급 0.0012

시설에서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2~3시간대가 27.7%로 가장 많고 다음이 1시간동안(23.1%)이다. 50.8%의 청소년이 1~3시간 동안 시설에서 하는 공부는 그 시간으로 보아 대개 숙제를 하는 것으로 소요되며, 연습과 복습 등의 자율학습은 3시간이상 공부한다는 11.7%의 청소년에게 해당될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남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짧은 시간대에 몰려있고, 공부시간이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설이라는 단체생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계층의 여유가 이렇게 나타난 듯 하다.

〈표7-13〉 시설내에서 학습지도 희망 방법

원하는 학습지도 방법		보육사 지 도	시설선배 지 도	자원봉사자 지 도	학습지도 교사채용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2.2	23.0	23.0	33.8	7.9	100.0(139)
	여	10.4	16.0	28.0	35.2	10.4	100.0(125)
교급	중	13.1	18.2	25.3	38.4	5.1	100.0(99)
	고	10.5	20.9	26.1	30.1	12.4	100.0(153)
합	계	11.4	19.7	25.4	34.5	9.1	100.0(264)
(실	수)	(30)	(52)	(67)	(91)	(24)	

유의도:성별 0.0563, 교급 0.2586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도받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육사나 시설선배 등 기존의 시설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31.3%이고, 자원봉사자나 학습지도전담직원의 채용 등 보다 전문적 자원을 요구한 청소년이 59.9%이다. 이것은 국민학교 수준의 학습이 아닌 중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지도는 가정에서와 같이 보육사나 선배들이 담당하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잘 간파하고 있음

을 말해준다.

3. 상급학교 진학

시설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그들이 계획하는 진로를 알아 보고자 했다. 먼저 조사대상자에 대한 고등학교 계열 분포를 보면 표7-14와 같다. 해당자 142명에 대한 실업계 학생은 75.4%로 시설 고등학생의 계열분포가 실업교육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를 진학하게 된 이유를 묻은 설문에는 응답자의 39.7%의 학생이 (인문계에 같) 실력이 안되어서 불가불 선택했다고 하여 가장 많았고, 적성에 맞거나 퇴소 후 자립을 생각해서 선택한 학생이 37.4%였다. 결국, 실력

〈표7-14〉 고등학교 계열분포

고등학교		인문계	상업	공업	농업	기술학교	비해당	합계(실수)
성별	남	14.4	5.8	15.8	12.2	7.9	43.9	100.0(139)
	여	12.0	32.0	0.0	0.4	0.8	48.8	100.0(125)
교급	중	0.0	0.0	2.0	2.0	0.0	96.0	100.0(99)
	고	11.1	21.6	31.4	13.1	15.0	11.1	100.0(153)
합	계	13.3	18.2	8.3	9.5	4.5	46.2	100.0(264)
(실	수)	(35)	(48)	(22)	(25)	(12)	(122)	

유의도:성별 0.0000, 교급 0.0000

부족, 시설의 권유, 경제적 어려움 등의 타외에 의해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62.6%로서 나머지 39.7%의 학생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진학을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결과에 대해 그 만족도를 묻은 질문에는 51.1%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하고, 13.6%의 학생이 불만이라고 한다. 실업계를 선택한 이유와 만족도를 연관시켜 볼 때, 학교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하는 학생이 많지만, 만족을 안하거나 불만인 학생인 수가 절반정도가 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이번엔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묻은 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자 70명중 72.9%가 실업계(상고 35.7% 공고 22.9%, 농고 4.3%, 기술학교 10.0%)를 희망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분포(75.4%)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서는, 시설청소년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실업·게고교에 대한 분포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졸업후 즉시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응답자중 28.9%, 진학계획이 없는 학생이 47.2%이다. 졸업후 먼저 직장생활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23.9%인데, 시설청소년의 71.1% 학생이 대학진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정 서

시설의 제반 환경과 시설 입소전의 배경이 시설청소년의 정서를 모양짓는 인자들이지만, 본절에서는 현상에 국한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생활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교생활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지만, 특히 시설청소년이 학교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짐은 일반청소년의 부담에 비해서 부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무겁다. 부모와 떨어져서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가족관계와 주거상의 특수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절대적 빈곤감, 대체로 학업에서 뒤지는 열등감 등으로 인하여 시설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란 공간은 재미없는 마당이기가 쉽다.

먼저 친구관계와 학교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친구관계는 자신이 시설청소년임을 친구에게 밝히는지의 여부를 척도로 삼았다. 피상적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비밀로 한다면 진정한 교분을 못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다는 아동이 53.4%, 가능한한 밝히지 않는다는 아동이 36.7%, 절대로 모르게 한다는 청소년이 5.7%이다. 이것은 아동들이 시설생활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 될 수 있으면 그 사실을 감추려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이러한 태도를 병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많은 정서상의 문제가 예견

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겠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시설아이라고 놀림을 받는 경험이 있느냐는 조사에 16.7%의 청소년이 자주 있었다고 하고 30.7%의 청소년이 드물게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40.2%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청소년의 47.4%가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별한 것은 여학생의 경험이 남학생보다 2배나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우의 특별하거나 불우한 형편을 대하는 남녀 국민학생의 차이에서 비롯된 듯하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남녀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경험도 각각 15.2%와 3.85%로 감소된다.

이러한 놀림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주로 참거나 말다툼을 했고 남학생들은 참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부의 일반청소년들과의 친교의 노력정도를 묻는 문항이 있는데, 74.6%의 청소년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고, 친해지고 싶지만 먼저 다가서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9.3%인 반면에 관심이 없거나 친해

〈표7-15〉 국민학교재학시 놀림받은 빈도

놀림받은 빈도		자주	드물게	없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3.7	18.7	49.6	18.0	100.0(139)
	여	20.0	44.0	29.6	6.4	100.0(125)
교급	중	18.2	30.3	38.4	13.1	100.0(99)
	고	15.0	30.7	42.5	11.8	100.0(153)
합	계	16.7	30.7	40.2	12.5	100.0(264)
(실수)		(44)	(81)	(106)	(33)	

유의도:성별 0.0000, 교급 0.8713

〈표7-16〉 놀림에 대한 반응

놀림에 대한 반응		울기도 했다	참았다	말다툼을 했다	떼려주었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3.6	20.1	3.6	40.3	32.4	100.0(139)
	여	15.2	26.4	18.4	13.6	26.4	100.0(125)
교급	중	11.1	26.3	8.1	31.3	23.2	100.0(99)
	고	7.2	19.0	13.1	26.8	34.0	100.0(153)
합	계	29.1	23.1	10.6	27.7	29.5	100.0(264)
(실수)		(24)	(61)	(28)	(73)	(78)	

유의도:성별 0.0000, 교급 0.1560

지고 싶지 않다는 청소년이 10.7%로 성별 교급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청소년

년이 시설밖의 또래들에게 개방적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시설직원들이 ‘시설아이들이 외부친구가 적어 걱정’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마음만큼의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는 청소년이 32.6%, 보통이라는 청소년이 63.6%로서 대부분 청소년들이 담임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시설형편이나 시설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알기를 바라는 학생이 53.4%이지만 될 수 있으면 모르는 것이 좋겠다는 청소년이 22.0%나 되어 대개의 청소년이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만 1/5정도의 청소년은 관계가 친밀해 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정서활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3.0%의 청소년이 아무런 특별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활동하는 부서도 운동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시설청소년의 다양한 정서활동에 병점으로 드러났다.

〈표7-17〉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특별활동		없다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R.C.Y	봉사단	합창단	운동부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54.0	0.0	1.4	2.2	2.9	1.4	15.1	15.8	7.2	100.0(139)
	여	52.0	2.4	0.8	0.0	0.8	4.8	5.6	19.2	14.4	100.0(125)
교급	중	45.5	0.0	1.0	2.0	4.0	3.0	16.2	17.2	11.1	100.0(99)
	고	58.2	2.0	1.3	0.7	0.7	2.6	6.5	17.0	11.1	100.0(153)
합	계	53.0	1.1	1.1	1.1	1.9	3.0	10.6	17.4	10.6	100.0(264)
(실	수)	(140)	(3)	(3)	(3)	(5)	(8)	(28)	(46)	(28)	

유의도:성별 0.0123, 교급:0.0909

〈표7-18〉 특별활동에 불참한 이유

불참이유		관심이 없다	돈이 없다	돈도없고 여유리 없다	돈은있으나 여유리 없다	시간이 없다	지도교사가 없다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23.7	30.2	1.4	1.4	7.2	0.0	0.7	35.3	100.0(139)
	여	13.6	30.4	2.4	2.4	9.6	0.8	0.0	40.8	100.0(125)
교급	중	17.2	32.3	2.0	1.0	2.0		1.0	44.4	100.0(99)
	고	20.8	31.4	2.0	2.0	12.4		0.0	31.4	100.0(153)
합	계	18.9	30.3	1.9	1.9	8.3	0.4	0.4	37.9	100.0(264)
(실	수)	(50)	(80)	(5)	(5)	(22)	(1)	(1)	(100)	

유의도:성별 0.04064, 교급 0.0438

표7-18과 같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164명중 48.8%가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한 13.4%까지를 잠재적인 욕구가 있는 청소년으로 볼 때 62.2%의 청소년들이 교내특별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을 점점해 볼 때 성적부진과, 시설거주의 열등감, 특별활동상의 몇가지 문제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과 현상적인 분석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데 시설청소년 담당 학교의 담임교사들의 공통적인 소견은 청소년들의 주의산만과 기초학력의 대체적인 부족이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학교생활의 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이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하도록 돕기 위해선 세부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부단히 모색되어야 한다.

2. 시설생활

시설에서의 아동생활은 학생회를 통해서 본 자율성의 문제와 특별활동의 실패와 욕구, 신앙생활 그리고 가출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생회구성의 여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 55.7%,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42.8%로 많은 시설에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가 있는 시설중 그 회장단 선거방법은 89.9%가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선거하고 있으며, 또 학생회의 존재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8.1%, 보통이라는 청소년이 23.6%로서 그 존재가치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표7-19〉 학생회의 도움정도

학생회의 도움정도		큰도움	약간도움	보통	별도움 없다	없는데 낮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2.9	22.3	14.4	5.8	2.2	42.4	100.0(139)
	여	3.2	26.4	12.0	8.0	4.8	45.6	100.0(125)
교급	중	13.1	26.3	13.1	4.0	5.1	38.4	100.0(99)
	고	5.2	22.9	13.1	9.2	2.6	47.1	100.0(153)
합	계	8.3	24.2	13.3	6.8	3.4	43.9	100.0(264)
(설	수)	(22)	(64)	(35)	(18)	(9)	(116)	

유의도:성별 0.0690, 교급 0.1082

시설내에는 여가활동으로서 집단특별활동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72.7%의 시설이 없고 단지 16.3%의 시설만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그 내용을 물은 결과 32.6%가 음악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동, 독서, 미술, 예절, 요리, 토론등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선 56.6%의 청소년이 매우 즐겁다고 응답하고 13.2%만이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응답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특별활동에 대한 희망도를 묻는 질문에 53.8%의 청소년이 응답을 안했고, 5.3%의 청소년이 있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고, 40.9%의 청소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희망하는 특별활동 내용은 37.9%의 청소년이 운동부를 원했고 문학부나 음악부를 희망한 청소년이 각각 20%이고 취미나 봉사나 미술과 예절에 관한 특별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소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건문과 흥미의 폭이 좁아 불과 3가지 부문에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라고 한 청소년이 전체의 반수인데, 즐겁지 않다는 청소년이 즐겁다는 경우보다 10%포인트나 많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청소년이 시설생활에 불만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시설생활에 불만족하는데 이는 시설생활에의 적응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나 생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표 7-20〉 시설생활 만족도

시설생활의 즐거움		매우 즐겁다	보통이다	별로 즐겁지않다	전혀 즐겁지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20.9	51.1	18.7	5.0	3.6	0.7	100.0(139)
	여	9.6	52.8	22.4	7.2	7.2	0.8	100.0(125)
교급	중	20.2	48.5	16.2	7.1	7.1	1.0	100.0(99)
	고	12.4	52.9	24.2	5.9	3.9	0.7	100.0(153)
합	계	15.5	51.9	20.5	6.1	5.3	0.8	100.0(264)
(실수)		(41)	(137)	(54)	(16)	(14)	(2)	

유의도:성별 0.1574, 교급 0.3257

시설청소년의 87.1%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종교활동 회수를 물었을 때 네번과 아홉번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각각 40.8%와 25.6%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씩 규칙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에 대한 성차이나 교급차이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출(탈원)에 관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가출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18.9%)과 가끔 또는 드물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 서(49.2%) 시설아동의 68.1%가 빈도차가 있을뿐 가출충동을 받고 있다. 가출충동에 관해선 성차이 교급차이가 거의 없다. 가출충동을 느끼는 시기도 조사되었는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충동을 덜 받고, 3월부터 8월까지가 충동을 많이 받는다. 가출이유는 31.6%의 아동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서라고 했으며, 나머지 7가지 이유(공부하기 싫어서, 돈을 벌려고, 선생이 괴롭혀서, 시설 친구와의 성격차, 학교 친구와 어울리려고, 시설직원과의 나쁜 관계, 가족과 같이 살고 싶어서)는 고르게 분포되었다. 가출충동을 억제하고 실제로는 가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나고 물었는데, 58.8%의 청소년이 장래의 내 인생을 위해서라고 뚜렷이 답했고, 충동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청소년이 25.7%이었다.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그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청소년들로부터 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학생회의 조직은 청소년들의 민주성훈련에 적절한 방법이 됨을 알았다. 아직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그 창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청소년들의 집단특별활동을 통한 정서생활은 학교에서나 시설에서나 본인들의 가치경험부족이나 욕구불충족으로 또 시설의 이해부족이나 재정부족으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은 아동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운동이나 문학과 음악쪽에서 시작하더라도 폭넓게 잠재된 청소년들의 재질과 흥미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해야 하며 시설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받아 왔던 가출의 충동만큼이나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한 것은 아니지만, 가출충동이 원인이 되었던 시설의 배경들은 하나씩 개선되어질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되는 일이 없다’는 청소년들의 자조와 열등감과 좌절감 내지 무방항성은 시설아동들 사이에서 일정 퍼센티지가 늘 상존되어 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인관계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친구관계를 알아보았다.

‘자원봉사자의 시설방문 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봉사자가 자기만족을 채우려고 온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소수 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런 생각을 더 하며, 시설아동을 돕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절반이상(58.7%)이다. ‘지금 접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퇴소후에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1/3(32.2%)만이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고, 1할 정도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봉사자가 청소년을 만나러 오는 마음과 청소년이 그를 맞이하는 마음 사이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는 것 같다.

후원자에게 인사편지나 감사편지를 쓸 때, 그 마음가짐이 즐겁다는 청소년이 65.5%, 그냥 쓴다는 청소년이 25.0%이다. 표7-21에서 보듯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으며, 시설 현장에서 볼 때에 중학생보다는 국민학생이 후원자에게 편지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편지쓰는 마음이 정성스럽지 못한 것은 청소년들의 천진성이 퇴색되어 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답장이 없는 편지에 대개의 청소년들이 지쳐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후원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는 편지를 받거나 시설을 찾아오는 등의 감정의 교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표7-21〉 후원자에 대한 인사편지

후원자 인사편지		즐겁게쓴다	그냥쓴다	억지로쓴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64.7	27.3	6.5	1.4	100.0(139)
	여	66.4	22.4	5.6	5.6	100.0(125)
교급	중	75.8	15.2	6.1	3.0	100.0(99)
	고	58.8	31.4	6.5	3.3	100.0(153)
합	계	65.5	25.0	6.1	3.4	100.0(264)
(실	수)	(173)	(66)	(16)	(9)	

유의도: 성별 0.2514, 교급 0.0294

〈표7-22〉 후원자가 고마울 때

후원자가 고마울 때		후원금선물	편 지	시설방문	고맙지않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7.3	40.3	35.3	1.4	5.8	100.0(139)
	여	17.6	42.4	30.4	3.2	6.4	100.0(125)
교급	중	14.1	28.3	52.5	2.0	3.0	100.0(99)
	고	20.3	50.3	20.3	2.6	6.5	100.0(153)
합	계	17.4	41.3	33.0	2.3	6.1	100.0(264)
(실	수)	(46)	(109)	(87)	(6)	(16)	

유의도: 성별 0.8286, 교급 0.0000

청소년들에게 ‘시설 직원중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물음을 하였는데 있다는 청소년(37.1%)이 없다는 청소년(59.8%)보다 적어서 청소년들과 직원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표7-23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 불신의 벽이 두터운 것을 보여 준다.

〈표7-23〉 의지하는 시설직원

의지하는 직원		있 다	없 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45.3	52.5	2.2	100.0(139)
	여	28.0	68.0	4.0	100.0(125)
교급	중	40.4	56.6	3.0	100.0(99)
	고	35.3	61.4	3.3	100.0(153)
합	계	37.1	59.8	3.0	100.0(264)
(실	수)	(98)	(158)	(8)	

유의도 : 성별 0.0129, 교급 0.7149

친구관계는 ‘진로문제를 의논할 시설의 친구는 몇 명 있느냐’로 물었는데, 표7-24에서 보듯이 1명도 없다는 청소년이 34.5%이고 3명이상 있다는 청소년이 30.3%이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상담할 친구수가 더 많았다. 이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제가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상담할 친구가 적은 것은 진로가 좁혀지고 상대를 선별하여 상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7-24〉 시설내 친한 친구수

친한 친구수(명)		1	2	3이상	없 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3.7	14.4	36.7	33.1	2.2	100.0(139)
	여	24.0	15.2	23.2	36.0	1.6	100.0(125)
교급	중	15.2	17.2	35.4	30.3	2.0	100.0(99)
	고	20.3	13.1	27.5	37.3	2.0	100.0(153)
합	계	18.6	14.8	30.3	34.5	1.9	100.0(264)
(실	수)	(49)	(39)	(80)	(91)	(5)	

유의도 : 성별 0.0903, 교급 0.4600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와 직원 등 연장자와의 인간관계는 청소년들이 회구하고 있는 욕구사항들이 제공된 때에 더욱 긴밀한 관계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원봉사자가 동정이나 자선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상대하고

그 접촉기간이 단기간으로 끝날 때, 청소년들은 되풀이되는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후원자의 경제적 지원이 시설의 운영을 돕고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이 주어지는 것을 알지만,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적 지지를 바라기 때문에 후원자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청소년은 후원자를 단순한 경제적 원조자로 규정짓게 된다. 직원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보살핌과 대화이다. 시설외부와 친교관계는 남다른 환경때문에 욕구에 크게 못 미치는 좁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시설내에서도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관지교의 관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4. 시설병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수용인의 정서가 시설의 특수한 구조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낙인시 되고 있는 시설문화의 부정적 부분을 시설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설병이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육아시설이 여타 시설에 비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시설병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청소년 주변집단들의 평가와 비교해 보았다.

시설청소년들 본인의 의견으로는 시설병의 내용 13가지 중에서 3가지 면(게으름, 주의산만, 약한 발표력)에서만 약간 정도 인정했을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선 선뜻 수긍하지 않는다.

시설청소년의 20% 안팎이 인정한 문제는 게으름과 정서불안과 약한 발표력이었고, 그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도벽과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과 외타심 부문이었다. 그런데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에 대해선, 시설장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문이고 총무와 보육사들로부터는 3번째로, 자원봉사자들로부터는 8번째로 지적을 받은 문제로서 청소년들과 직원이나 봉사자들 간에는 큰 의견차이가 있다. 외타심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61%의 청소년이 자신들은 외타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장과 총무는 2번째로 보육사는 4번째로 자원봉사자는 5번째로 많은 지적을 했다.

보육사가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물품의 낭비와 주의산만,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의타심 등이다. 청소년의 기질중 보육사가 분명히 옹호한 것은 ‘아동이 파괴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이다. 아동이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선 시설장이나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같으며, 충무도 도벽에 이어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이 이 부분이다.

시설장과 충무가 크게 지적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물품의 낭비와 의타심부문이고, 자원봉사자가 우선 지적한 것은 주의산만과 물품의 낭비와 발표력부문이었는데, 자원봉사자의 시각이 시설장이나 충무와는 조금 다르고 보육사의 시각과는 흡사한 것은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계 때문인 것 같다.

주변집단중에서 청소년의 시설병을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집단은 보육사집단이고 그 다음은 충무-시설장-자원봉사자 집단순이다. 이러한 순서는 아동들과의 접촉빈도와 비례하고 있어, 아이들을 많이 상대한 사람일수록 아이들의 부정적 시설문화 측면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병의 원인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시설의 대규모와 물품과 생활의 배급제, 경제적 빈곤 그리고 문화실조와 전문 사회사업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시설내의 생활패턴이 불가항력적으로 단체생활의 규범에 따르도록 만든다. 미취학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남여가 섞여서 시설당 평균 94명이 거주하는 시설은 적은 수의 직원으로 아동을 통제하고 넓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동의 생활을 규칙화시켜야 하고 아동을 프로그램속에서 단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획일화된 생활속에서 아동들이 연령과 성별과 개성에 따라 각인 각색의 사고를 하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책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아동들은 개별화될 수 없고 다중심리대로 움직이거나 잘 때야 또래집단화 될 뿐이다. 이 결과로 아동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책임감과 창의력이 약해지고, 정서가 불안하며, 사고가 단순해지고, 게을러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군대나 학교조직과 달리 생활단위로서의 시설이 적은 수의 직원으로 100명 안팎의 대가족 살림을 계속하는 한, 이 시설구조는 아동의 책임감과 창의성과 정서적 안정과 사고의 다양화 내지 개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기능할 것이다.

물품과 생활의 배급제는 시설이 빈한한 살림살이에 물품절약을 목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아이러닉하게도 물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아동

〈표7-25〉 시설병에 대한 각 집단의 의견

결 의 건	그런 면이 많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청소년	보육사	시설장	총 무	봉사자	청소년	보육사	시설장	총 무	봉사자	청소년	보육사	시설장	총 무	봉사자	총 무
내 용																
게으르다	21.2	35.0	30.4	36.1	24.1	67.4	31.3	34.8	45.9	49.1	10.6	22.6	21.7	16.4	22.2	
위타심이 있다	12.1	48.8	34.8	45.9	27.8	25.8	31.6	41.3	44.3	52.8	61.0	9.8	13.0	8.2	15.7	
거짓말을 잘한다	7.2	36.0	17.4	24.6	14.8	5.1	40.7	41.3	54.1	52.8	40.2	12.8	28.3	16.4	26.9	
고마움을 모른다	10.2	49.5	41.3	44.3	20.4	22.3	29.6	43.5	49.2	42.6	66.7	11.8	8.7	3.3	31.5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19.3	43.1	19.6	24.6	31.5	31.8	41.4	47.8	59.0	54.6	47.7	6.4	23.9	13.1	9.3	
창의력이 없다	11.7	37.7	23.9	26.2	25.0	47.0	37.7	43.5	47.5	37.0	39.0	14.5	19.6	21.3	32.4	
파괴적이다	11.7	21.2	10.9	14.8	10.2	28.8	37.0	34.8	49.2	38.9	57.6	30.3	39.1	27.9	44.4	
사고가 단순하다	14.4	37.0	21.7	41.0	19.4	41.7	39.4	50.0	34.4	43.5	43.2	13.5	15.2	19.7	30.6	
책임감이 있다	8.0	44.8	21.7	39.3	17.6	42.4	36.0	50.0	45.9	55.6	48.5	10.4	17.4	9.8	20.4	
주의가 산만하다	12.2	51.9	17.4	36.1	35.2	57.6	31.0	50.0	57.4	55.6	20.5	6.7	26.1	3.3	2.8	
물품을 남비한다	12.5	57.9	34.8	60.7	33.3	37.9	23.9	47.8	36.1	36.1	48.9	8.4	8.7	1.6	23.1	
도벽이 있다	2.7	21.5	6.5	11.5	7.4	18.9	49.2	52.2	50.8	49.1	75.8	18.9	32.6	32.8	37.0	
발표력이 약하다	20.5	44.8	21.7	34.4	31.5	50.0	34.3	56.5	49.2	38.9	28.8	11.4	13.0	11.5	24.1	
평 균	12.6	40.7	23.3	33.8	23.0	40.2	35.7	45.7	48.0	46.7	45.3	13.7	20.6	14.3	24.7	

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습성과 의타심을 길러준 부작용을 일으켰다. 불품과 식사의 집단 배급이나 배식은 그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해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당분간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을 것이다.

시설의 경제적 빈곤은 빈곤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피해 이상의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시설이 빈곤하기 때문에 시설측에서는 무상원조를 아끼지 않는 외부단체에 시설을 언제든지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노출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동의 주의를 산만해지고 정서는 불안해 질 수가 있는 것이며, 무상원조가 계속되면서 아동의 의타심은 자라나고 쉽게 받는 원조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부조화된 인적환경과 경제적 빈곤은 인적 물적 계통을 통해 공급되는 문화의 질과 양을 어렵게 했다. 이로부터 발생된 문화실조는 아동들 정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원인들로 시설청소년의 시설병증후군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많은 가능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는 시설구조속에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 사회사업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병문제는 호전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시설청소년은 과소평가하고 직원은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는 ‘시설병’. 청소년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고, 직원은 일상에서 마찰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설병증후군은 엄존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아동의 정서를 해치기에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시설구조의 개선과,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시작될 것이다.

5. 자아상

시설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아상과 미래상을 알아 보았다. 자아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걱정거리, 성격, 도덕성, 지적능력, 생활자세와 사회에서 그들에게 대하는 사회의 처우에 대해 물어 보았다.

1) 걱정거리

공부에서부터 학비문제에 이르기까지 13가지에 대한 고민의 정도를 물었는데, 그 대답을 모은 집계표가 표7-26과 표7-27이다.

시설청소년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공부(25.0%)와 진로(32.2%)와

〈표7-26〉 가장 큰 걱정거리

가장 큰 걱정거리	공부	진로	교우 관계	선생님 관계	시설친 구관계	시설친 원관계	성격 문제	진강 문제	가족 의일	이성 문제	장래 의일	합비 문제	연장아 관계	무응답	합계(실수)
성 별	남	20.1	32.4	2.2	1.4	2.9	7.9	5.0	2.9	2.9	20.9			1.4	100.0(139)
	여	30.4	32.0	4.8	2.4	5.6	4.8	0.8	0.8		14.4	1.6		1.6	100.0(125)
교 급	중	33.3	23.2	6.1	3.0	7.1	4.0	2.0	2.0	2.0	15.2	2.0		0.0	100.0(99)
	고	19.0	37.3	2.0	0.7	2.6	8.5	3.9	0.7	1.3	20.9	0.0		2.6	100.0(153)
합 계		25.0	32.2	3.4	0.4	1.9	6.4	3.0	1.9	1.5	17.8	0.8	0.0	1.5	100.0(264)
(실 수)		(66)	(85)	(9)	(5)	(11)	(17)	(8)	(5)	(4)	(47)	(2)	(0)	(4)	

유의도: 성별 0.0584, 교급 0.0066

〈표7-27〉 두번째로 큰 걱정거리

가장 큰 걱정거리	공부	진로	교우 관계	선생님 관계	시설친 구관계	시설친 원관계	성격 문제	진강 문제	가족 의일	이성 문제	장래 의일	합비 문제	연장아 관계	무응답	합계(실수)
성 별	남	10.1	23.7	4.3	0.7	2.2	5.8	4.3	7.2	3.6	28.1	1.4	0.7	5.8	100.0(139)
	여	12.8	15.2	3.2	0.8	1.6	11.2	4.8	2.4	4.0	29.6	1.6	2.4	4.8	100.0(125)
교 급	중	13.1	21.2	4.0	2.0	2.0	8.1	4.0	7.1	2.0	28.3	0.0	1.0	3.0	100.0(99)
	고	9.8	17.0	3.9	0.0	1.3	3.9	4.6	4.6	5.2	30.1	2.6	2.0	7.2	100.0(153)
합 계		11.4	19.7	3.8	0.8	1.9	8.3	4.5	4.9	3.8	28.8	1.5	1.5	5.3	100.0(264)
(실 수)		(30)	(52)	(10)	(2)	(5)	(22)	(12)	(13)	(10)	(76)	(4)	(4)	(14)	

유의도: 성별 0.5163, 교급 0.5603

장래문제(17.8%)이다. 5년전에 있었던 일반청소년에 대한 한 조사연구²⁾에서도 일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업(41.4%)와 장래문제(19.6%)였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이 자신의 성격(17.1%)과 건강(10.0%)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시설청소년은 성격과 건강에는 각각 6.4%와 3.0%정도밖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시설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자아의 기초적인 문제 보다는 현재 억압받고 있는 학교공부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부문제로 인한 고민은 여학생이 더 심하고, 진로문제는 고등학생에게 더 큰 고민이지만, 장래문제는 성별과 교급에 차이가 없었다. 시설직원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청소년은 여학생과 중학생쪽이 훨씬 많아 이들이 직원과의 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이나 장래문제 다음으로 고등학생들이 크게 고민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인데, 현실적인 사고를 하게되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성격의 여러가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성격과 생활자세

자신의 성격과 생활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의 아동이 명랑하거나(47.0%) 보통이라고(42.0%) 대답했다. 명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8.0%) 많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무려 21.0% 포인트나 차이를 보여 주의를 끌고 있다. 후자는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체험하거나 설정하게 되는 외적 내적 경험을 하게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7-28〉 성격에 대한 자기 평가

성격	명량	우울	보통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43.2	9.4	45.3	2.1	100.0(139)
	여	51.2	9.6	38.4	0.8	100.0(125)
교급	중	59.6	7.1	32.3	1.0	100.0(99)
	고	38.6	11.1	48.4	2.0	100.0(153)
합계	47.0	9.5	42.0	1.5	100.0(264)	
(실수)	(124)	(25)	(111)	(4)		

유의도 : 성별 0.5927, 교급 0.0257

2) 정원식·김경동·김신일·배규한·최일섭,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p.116

시설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자세에 대해 전체의 6할 정도는 긍정적 자세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무의미한 생활이거나 염세적 입장을 보인다. 그런데 무의미하거나 염세적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중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많은 점이다. 44.8%의 여학생과 43.4%의 중학생이 자신들의 생활자세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표7-29〉 생활자세에 대한 자기평가

생활자세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열심히 생활 한다	계획은 없으 나 열심히 생활한다	그저 그렇 게 지낸다	사는것이 싫 음때가 많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36.7	31.7	18.7	11.5	1.4	100.0(139)
	여	30.4	24.0	23.2	21.6	0.8	100.0(125)
교급	중	32.3	22.2	22.2	21.2	2.0	100.0(99)
	고	35.3	32.0	17.6	14.4	0.7	100.0(153)
합	계	33.7	28.0	20.8	16.3	1.1	100.0(264)
(실	수)	(89)	(74)	(55)	(43)	(3)	

유의도 : 성별 0.1289, 교급 0.2450

3) 지적능력

시설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적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표7-30에서 보듯이 남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고 자신감을 가진 청소년이 대부분(87.5%)이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이 산재한 시설환경을 고려할 때, 시설청소년의 용기가 생동하여 있음을 보여준다.

〈표7-30〉 남과 비교한 자신의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		우 수	비 슷	열 등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7.2	79.9	11.5	1.4	100.0(139)
	여	5.6	82.4	9.6	2.4	100.0(125)
교급	중	7.1	73.7	18.2	1.0	100.0(99)
	고	6.5	85.0	5.9	2.6	100.0(153)
합	계	6.4	81.1	10.6	1.9	100.0(264)
(실	수)	(17)	(214)	(28)	(5)	

유의도 : 성별 0.8351, 교급 0.0167

4) 사회의 처우

시설청소년 본인들은 우리사회가 자신들에게 매우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존중받고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고, 절반정도는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존중받고 있다는 청소년중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절반도 안되는데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시설에 대한 사회의 자세를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회가 시설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대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시설아동들로 하여금 퇴소후의 사회생활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때로는 반사회적 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표7-31〉 사회에서 받은 대우

사회에서 받는 대우		존 중	무관심	버 립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7.3	40.3	7.9	33.1	1.4	100.0(139)
	여	16.8	41.6	8.0	30.4	3.2	100.0(125)
교급	중	25.3	31.3	10.1	32.3	1.0	100.0(99)
	고	11.1	46.4	7.2	32.0	3.3	100.0(153)
합	계	17.0	40.9	8.0	31.8	2.3	100.0(264)
(실 수)		(45)	(108)	(21)	(84)	(6)	

유의도 : 성별 0.8967, 교급 0.0140

5) 도덕성

시설청소년의 도덕성의 문제를 정직의 정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했다. 스스로 매우 정직하다고 평가한 청소년과 역으로 정직하지 않다고 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 정직하다’는 경우에 따라 정직하지 않다가이기도 한 뜻이며 이 말이 사람의 속성상 부도덕한 태도로 해석되는 일반에서, 또 ‘모르겠다’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시설청소년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정직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표7-32의 91.7%에 대한 책임은 앞에서 참고한 조사연구³⁾에서 보듯이, 어른들의 언행불일치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의식(중학생의 68.5%, 고등학생의 75.1%가 어른들의 언행불일치가

3) 정원식의 4인, 앞의 책, p.79, 83

심하다고 지적)과 우리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살기 힘들다는 의식(중학생의 65.3%, 고등학생의 81.4%)등의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부도덕과 무규범의 배경이 그 주된 책임일 것이다.

〈표7-32〉 자신의 도덕성 평가

도 덕 성		매우정직	경우에 따라 정직	정직하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9.4	59.7	9.4	20.9	0.7	100.0(139)
	여	5.6	65.6	8.8	19.2	0.8	100.0(125)
교급	중	7.1	61.6	13.1	17.2	1.0	100.0(99)
	고	7.8	60.8	7.2	23.5	0.7	100.0(153)
합	계	7.6	62.5	9.1	20.1	0.8	100.0(264)
(실	수)	(20)	(165)	(24)	(53)	(2)	

유의도 : 성별 0.7895, 교급 0.4727

6) 미래상

시설청소년들은 장차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가? 또 자신의 40대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면서 그들의 미래상을 알아 보았다.

시설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인생은 안정되고 정직할 삶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고 안정된 직장을 42.4%의 청소년이 성차 교급차 없이 희망했고, 정직하게 살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많은 아동들이 회구했다. 남녀를 비교할 때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진취적이고 사회적이고 계층상향적인 것이 표 7-33에서 보인다. 여학생은 원만한 가정생활과 하루 하루를 편하게만 살고 싶다는 선택항에서는 남학생의 반도 되지 않은 반면에, 부자가 되는 것과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과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부문에서는 남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출신가정이 빈곤가정이거나 빈곤결손가정 이기에 그 가정배경이 하류층인 것이 대부분이기에 반작용으로서 사회적 상류층으로의 욕구가 강할 수도 있을텐데, 부와 출세에는 많이 집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시설청소년의 야망이나 성취욕이 극히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잃어버린 가정과 불안한 시설(단체생활의 병폐와 어린 나이에 퇴소해야 하는 점 등)에서 겪었던 생활의 불안이 이들에게는 제1차적 장애물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현실에 우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7-33〉 희망하는 인생관

희망하는 인생관		원만한 가정생활	편하게 사는것	부자로 사는것	유명인으로 사는것	정직하게 사는것
성별	남	18.7	11.5	6.5	2.2	15.8
	여	8.0	5.6	8.0	2.4	22.4
교급	중	13.1	12.1	6.1	5.1	20.2
	고	13.1	6.5	8.5	0.7	16.3
합 계		13.6	8.7	7.2	2.3	18.9
(실 수)		(36)	(23)	(19)	(6)	(50)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사회를 위해 일하며 사는것	안정된 직장생활	무응답	합계(실수)
0.7	3.6	41.0	0.0	100.0(139)
1.6	7.2	44.0	0.8	100.0(125)
1.0	5.1	37.4	0.0	100.0(99)
2.0	5.9	46.4	0.7	100.0(153)
1.1	5.3	42.4	0.4	100.0(264)
(3)	(14)	(112)	(1)	

유의도 : 성별 0.1048, 교급 0.2505

다음은 시설청소년에게 ‘여러분은 40살정도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평범한 사회인으로의 자기 모습을 예상하는 청소년이 64.8%이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회인이기를 기대한 청소년이 31.8%였다. 또 고등학생에게만 조사한 내용으로 40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수준이 우리 사회안에서 어느 계층에 속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중산층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아동이 응답자의 71.9%로 가장 많았다. 부유층에 속할 것으로 기대하는 청소년이 응답자의 20.9%였다. 표7-33과 같이 구체적인 설문조사에서는 소수로 나타난 상류층, 부유층, 지도층에의 희망집단이 표7-34와 표7-35에서와 같이 개괄적인 조사에서는 상류층으로 31.8%와 20.9%가 물린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태는 시설청소년들이 상류층에 대한 막연한 또는 욕구적 희망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에서서 판단에 이르러선 중류층이하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은 계층상승에 따른 도전과 모험이란 ‘실제적 요건’을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청소년이 기대하는 자아상은 우리사회의 중상류층으로서 건강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이상형에 이르기 위해

선 건강과 상식보다는 학력(學歷)을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어, 청소년의 75%가 학업과 장래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표7-34〉 자신의 40대 모습

40대에 대한 기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평범한 사회인	사회적 실패인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37.4	59.0	2.2	1.4	100.0(139)
	여	25.6	71.2	2.4	0.8	100.0(125)
교급	중	38.4	58.6	2.0	1.0	100.0(99)
	고	27.5	68.6	2.6	1.3	100.0(153)
합	계	31.8	64.8	2.3	1.1	100.0(264)
(실	수)	(84)	(171)	(6)	(3)	

유의도 : 성별 0.1991, 교급 0.3430

〈표7-35〉 자신의 40대 경제적 수준

40대의 경제적 수준		상	중	하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16.5	42.4	5.0	36.0	100.0(139)
	여	10.4	53.6	4.0	32.0	100.0(125)
교급	중	2.0	11.1	4.0	82.8	100.0(99)
	고	20.9	71.9	4.6	2.6	100.0(153)
합	계	13.6	47.7	4.5	34.1	100.0(264)
(실	수)	(36)	(126)	(12)	(90)	

유의도 : 성별 0.2616, 교급 0.0000

성격과 지적능력부문에서 자신감을 보인 청소년들이 사회의 관심과 도덕성의 문제에서는 사회를 향한 희망함과 자신의 부도덕성을 인식하고 있다. 장래의 포부를 청소년들의 이상감정과 현실감각을 종합 정리할 때 ‘잘못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인’이기를 바라는 것이 주조이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선 본인들과 사회가 어떤 것들을 분담하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6. 사회교육

몇몇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가지 비공식 비형식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사회교육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교육의 출발인 청소년의 취

〈표7-36〉 취 미

취 미	운 동	음 악	무 용	독 서	작 문	그 림	바 닥	공 작	수 집	기 타	무 응답	합계(실수)
성 별	남	39.6	18.0	0.0	12.2	2.2	4.3	1.4	5.8	5.8	6.5	100.0(139)
	여	4.8	32.0	1.6	27.2	4.0	5.6	1.6	4.8	4.8	13.6	100.0(125)
교 급	중	29.3	21.2	2.0	13.1	3.0	9.1	3.0	6.1	5.1	8.1	100.0(99)
	고	18.3	26.1	0.0	23.5	2.6	2.6	0.7	5.2	5.2	11.8	100.0(153)
합 계 (실 수)		23.1 (61)	24.6 (65)	0.8 (2)	19.3 (51)	3.0 (8)	4.9 (13)	2.3 (6)	5.3 (14)	5.3 (14)	9.8 (26)	100.0(264)

유의도: 성별 0.0000, 교급 0.0148

〈표7-37〉 특 기

특 기	운 동	음 악	무 용	독 서	작 문	그 림	요 리	바느질	공 작	수 집	기 타	무 응답	합계(실수)
성 별	남	54.7	6.5	0.0	2.2	1.4	6.5	0.0	5.8	0.7	3.6	18.7	100.0(139)
	여	12.0	22.4	1.6	5.6	6.4	11.2	0.8	1.6	1.6	8.0	27.2	100.0(125)
교 급	중	39.4	15.2	1.0	6.1	5.1	10.1	0.0	5.1	1.0	4.0	13.1	100.0(99)
	고	33.3	12.4	0.7	2.0	2.6	7.8	0.7	3.3	0.7	5.9	29.4	100.0(153)
합 계 (실 수)		34.5 (91)	14.0 (37)	0.8 (2)	3.8 (10)	3.8 (10)	8.7 (23)	0.4 (1)	3.8 (10)	1.1 (3)	5.7 (15)	22.7 (60)	100.0(264)

유의도: 성별 0.0000, 교급 0.1797

미와 특기를 먼저 알아 보고, 시설에서의 자유시간 활용내용과 현황을 본 뒤, 사회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시설청소년들이 밝힌 취미와 특기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 표7-36과 표7-37이다. 취미는 운동·음악·독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나 도구의 이용없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운동은 축구·농구·야구·핸드볼 등의 구기종목이 주류이고, 음악은 기타나 하모니카 등의 악기연주는 극히 일부이고 대개는 음악감상을 즐기는 쪽이다. 소수이지만 기타항목에는 컴퓨터를 다룬다거나, 명상에 잠기는 것이나 등산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남학생들의 운동선호도가 높고, 여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음악과 독서부문에서 취미생활이 활발하다.

특기사항은 취미사항중의 독서인구가 그림이나 공작 또는 운동부문으로 분산된 것을 빼 놓고선 취미사항과 비슷한 양상이다. 음악과 독서 부문의 청소년들이 대거 운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음악과 문학은 취미이기는 수월해도 특기까지 되기는 어렵고, 시설청소년들의 손쉬운 접근 분야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운동임을 알 수 있다.

〈표7-38〉 여가시간 활용 분야

집중도 성별	평 일		공 휴 일	
	남 학 생	여 학 생	남 학 생	여 학 생
1	라디오·카세트 청취	라디오·카세트청취	T.V시청	T.V시청
2	운동	친구들과 잡담	운동	취미생활
3	T.V시청	T.V시청	취미생활	독서
4	취미생활	독서	휴식	휴식
5	친구들과 잡담	취미생활	독서	종교활동
6	독서	휴식	놀이	시설내 특별활동
7	휴식	시설내 특별활동	라디오·카세트 청취	라디오·카세트 청취
8	오락	운동	종교활동	놀이
9	놀이 만화·잡지	종교활동	친구들과 잡담	친구들과 잡담
10	종교활동	만화·잡지	시설내 특별활동	운동
11	시설내 특별활동	놀이	만화·잡지	쇼핑
12	쇼핑	쇼핑	오락	만화·잡지
13		오락	쇼핑	오락

공부하지 않는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의 성향을 살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7-38인데, 중

학생과 고등학생간에는 내용의 차이가 없어 성별비교만 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운동, 오락과 놀이이고, 여학생쪽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독서, 특별활동, 종교활동과 쇼핑으로 남녀간의 성차이가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평일과 공휴일의 비교에서는 공휴일에는 TV시청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취미생활이나 독서나 휴식등으로 자기시간을 가질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상위 4개 분야에 평균 62.7%의 지지가 집중되어 있어 여가활용의 편집성을 보이고 있다.

〈표7-39〉 가장 배우고 싶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		요리	다도	예절	성교육	부모역할	바느질
성별	남	2.2		10.8	2.9		
	여	18.4	1.6	13.6	4.0	3.2	0.8
교급	중	9.1	2.0	12.1	5.1	2.0	
	고	9.8	0.0	11.8	2.6	1.3	
합	계	9.8	0.8	12.1	3.4	1.5	0.4
(실	수)	(26)	(2)	(32)	(9)	(4)	(1)

사회교육프로그램		진로지도	직업	취미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20.9	23.7	36.0	3.6	100.0(139)
	여	16.0	11.2	28.0	3.2	100.0(125)
교급	중	19.2	13.1	34.3	3.0	100.0(99)
	고	20.3	20.9	29.4	3.9	100.0(153)
합	계	18.6	17.8	32.2	3.4	100.0(264)
(실	수)	(49)	(47)	(85)	(9)	

유의도 : 성별 0.0001, 교급 0.5372

시설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장 배우고 싶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는데, 취미부분(32.2%)에 가장 많은 지원이 있었고 진로지도교육(18.6%), 직업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교육(17.8%), 그리고 예절교육(12.1%)의 순으로 욕구가 집적되었다. 상위 4개 부문중 3개 부문은 성별과 교급별 별 차이가 없으나, 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은 욕구를 나타냈다. 이것은 평생 직업생활을 해야 하는 남학생과 취업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의 취미나 특기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 형식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조사시설의 16.3%에 불과하다. 각 시설에서 각종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56.6%가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했으며, 표3-39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색다른 욕구(요리, 예절, 직업교육등)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운동이나 문학과 음악등에 편중된 아동의 관심과 흥미와 활동을 아동의 욕구에 따라 분산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제 5 절 자 립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결은 이들의 온전한 자립에서 매듭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 분석했듯이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 시설청소년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립’과 그에 따른 그들의 욕구를 직업, 취업, 퇴소문제, 결혼문제에 걸쳐 고찰하였다.

1. 직업

시설청소년들에게 가장 희망하는 직업을 직접 쓰도록 요구했는데, 그 희망직업의 종류와 분포는 표7-40과 같다.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사무직으로 묶음되는 회사원·교사·은행원·공무원을 희망했고(32.9%), 기술자나 사업가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남녀간의 차이나 증교교생간의 상대적 특성은 교사와 기술자와 사업가의 직업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 고등학생에게만 원하는 취업 직종을 물은 것에 따르면 표7-41과 같다. 표7-40의 내용과 일치하여, 사무직과 전문직과 기술직의 순서로 청소년들이 취업을 희망했다.

이처럼, 시설청소년은 어떤 미개척분야에서 선구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기성된 직업세계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것은 시설청소년의 창의성이나 진취성의 문제와 성장배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표7-40〉 희망 직업

희망직업		회사원	교사	은행원	공무원	경찰	사회사업가
성별	남	15.1	3.6	3.6	1.4	1.4	2.2
	여	17.6	17.6	5.6	2.4	2.4	4.8
교급	중	11.1	15.2	3.0		4.0	3.0
	고	19.0	7.2	5.9	2.6	0.7	3.3
합	계	16.3	10.2	4.5	1.9	1.9	3.4
(실	수)	(43)	(27)	(12)	(5)	(5)	(9)

희망직업		예술가	작가	종교인	학자	농민	기차
성별	남	0.7		4.3	2.2	1.4	1.4
	여	4.0	0.8	1.6		0.8	1.6
교급	중	4.0		4.0	2.0	1.0	1.0
	고	1.3	0.7	2.6	0.7	1.3	1.3
합	계	2.3	0.4	3.0	1.1	1.1	1.5
(실	수)	(6)	(1)	(8)	(3)	(3)	(4)

희망직업		기술자	기사	디자이너	운동선수	의료인	외교관
성별	남	17.3	1.4	0.7	3.6	1.4	1.4
	여	1.6	2.4	7.2	0.8	6.4	0.8
교급	중	8.1	2.0	2.0	6.1	5.1	
	고	11.8	2.0	5.2		2.6	1.3
합	계	9.8	1.9	3.8	2.3	3.8	1.1
(실	수)	(26)	(5)	(10)	(6)	(10)	(3)

희망직업		연예인	사업가	정치가	기 타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5.0	12.2	2.2	3.6	13.7	100.0(139)
	여	4.0	1.6		4.8	11.2	100.0(125)
교급	중	6.1	7.1	1.0	4.0	10.1	100.0(99)
	고	3.3	5.9	1.3	4.6	15.7	100.0(153)
합	계	4.5	7.2	1.1	4.2	12.5	100.0(264)
(실	수)	(12)	(19)	(3)	(11)	(33)	

유의도 : 성별 0.0000, 교급 0.0530

〈표7-41〉 취업 희망직종

희망직종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술직
성별	남	26.7	2.3	9.3	4.7	36.0
	여	41.3	5.0	5.0	13.7	2.5
합	계	33.8	3.6	7.2	9.0	19.9
(실	수)	(56)	(6)	(12)	(15)	(33)

희망직종		전문직	1차산업종사	다른것	합계(실수)
성별	남	14.0	4.7	2.3	100.0(86)
	여	27.5		5.0	100.0(80)
합	계	20.5	2.4	3.6	100.0(166)
(실	수)	(34)	(4)	(6)	

유의도 : 성별 0.0000

2. 취업

취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느냐고, 취업의 최우선 조건을 고교생에게만 물어 보았다.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압도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절대적인 선택을 받았다. 직업의 성취감이나 사회적 공헌도에는 매우 적은 청소년들이 표지를 하였고, 두번째로 많은 청소년이 고려한 조건에는 숙식문제였다. 앞서서 살펴 본 직업의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직업과 관련된 시설청소년의 최우선 욕구는 직업의 안정과 주거의 해결이다.

〈표7-42〉 취업의 첫째 조건

취업조건	봉급	숙식	안정성	성취감	사회적공헌	다른것	합계(실수)
성별	남	13.6	12.5	56.8	12.5	2.3	100.0(88)
	여	9.9	13.6	59.2	11.1	3.7	100.0(81)
합	계	11.8	13.0	58.0	11.8	3.0	100.0(169)
(실	수)	(20)	(22)	(98)	(20)	(5)	(4)

유의도 : 성별 0.9850

또 시설을 퇴소한 후 취업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를 고교생에게만 물어 보았다. 청소년들은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장 많이(43.4%) 걱정했고, 두번째로 자신들의 사회적 적응력의 결핍(20.0%)을 들었다. 또 거처가 마땅치 않아, 취업을 할 때에 기

숙사가 있는 직장으로 제한하여 취직을 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을 걱정하는 청소년이 12.7%나 되었다. 특히 사회에의 적응력에 대해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걱정을 하였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에 관한 것을 청소년들이 그간 학교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출신선배들의 어려웠던 체험담들을 들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사회적응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애로를 겪겠다고 판단한 것은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타인의 책임소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해, 사회적응력 결핍과 자립심부족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에게는 사회적 편견에 못지 않는 심리적 부담이 된다.

〈표7-43〉 취업시의 가장 큰 장애요인

장애요인	자립심부족	사회적응력 결핍	시설출신에 대한편견	아는사람이 없다	실력 부족	취직기회가 없다	거처	다른 것	합계(실수)
남	9.5	26.2	31.0	7.1	5.9	2.4	15.5	2.4	100.0(84)
여	8.7	13.6	54.3	1.2	11.0	1.2	9.9		100.0(81)
합 계 (실 수)	9.1 (15)	20.0 (33)	43.4 (70)	4.3 (7)	8.5 (14)	1.8 (3)	12.7 (21)	1.2 (2)	100.0(165)

유의도 : 성별 0.0288

3. 퇴소

시설청소년은 만18세가 되어서는 시설을 퇴소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한 청소년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퇴소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만18세로 퇴소연령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퇴소연령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2.9%였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65.9%였다.

퇴소후 자립을 할 때, 생활자세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35.7%)와 근면성(14.0%)과 자립심(13.5%)을 많이 꼽았다. 취업의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했던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응력의 문제에는 오히려 적은 수의 청소년들이 대답한 것은,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적응력의 장애가 원만한 인간관계와 근면함과 자립심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표7-44〉 퇴소후 필요한 생활자세

생활자세	자립심	원만한 인간관계	근면성	정직성	적극성	사 회 적응력	편견극복	합계(실수)
남	12.7	28.7	18.4	19.5	9.2	11.5	0.0	100.0(87)
여	14.3	42.9	9.5	5.9	11.9	11.9	3.6	100.0(84)
합 계 (실수)	13.5 (23)	35.7 (61)	14.0 (24)	12.9 (22)	10.5 (18)	11.7 (20)	1.7 (3)	100.0(171)

유의도 : 성별 0.0352

퇴소후 거처문제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모(편부, 편모 포함)집을 21.9% 꼽았고 조부모집은 0.6%, 3.8%의 청소년이 외가쪽을 기대했고 고모나 삼촌집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7.8%이고 친형제와의 동거를 11.6%가 가능하다고 했다. 10년전에 한국복지정책연구소의 조사연구에서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아동이 16.1%이었는데 5.8%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갈곳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61.5%에서 54.3%로 감소하여, 부모가 생존한 아동의 비율이 10년동안 16.8%포인트 증가한 사실이 퇴소후의 주거문제에도 반영되고 있다.

시설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뒤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직장의 규모와 임금을 알아보았다. 1987년부터 3년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퇴소한 159명에 대한 취업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체가 각각 57%와 41%로서 압도적이며 대기업체는 2%에 불과했다. 직종과 임금면에서는 생산직이 89%이고 2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출신청소년이 75%로서 시설출신이 블루 칼라계층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고등학생에게만 물어 본 병역문제에 대해선, 56.8%의 청소년이 면제받을 수만 있다면 안가는 것이 좋다고 했고 26.2%의 청소년은 군대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군대에 안가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 그 이유를 물었는데, 77.2%의 청소년이 하루 빨리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일부는 시간낭비 또는 고생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군대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76.9%는 군대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강인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고, 남들과 평등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23.1%였다. 병역문제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욕구를 알아 본 바로는, 현재 시설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징집면제가 되고 있는 조치를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출신이라는 신분상 특징때문에 장차 사회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고등학생에게만 물었다. 그러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이 26.0%였고 약간 있을 것이라고 한 청소년이 47.4%가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고 있다.

〈표7-45〉 시설출신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	많을것이다	약간 있을 것이다	없을것이다	오히려 도움 이될것이다	모르겠다	합계(실수)
남	25.6	37.8	13.3	10.0	13.3	100.0(90)
여	26.5	57.8	6.0	1.2	8.5	100.0(83)
합 계	26.0	47.4	9.8	5.8	11.0	100.0(173)
(실 수)	(45)	(82)	(17)	(10)	(19)	

유의도 : 성별 0.0249

마지막으로, 부모와 함께 살아오지 못한 핸디캡을 고려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 어떤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를 고등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조사결과는 남녀간의 의견차이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53.2%,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 만큼은 할 수 있다고 한 청소년이 19.1%로서 많은 청소년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일부만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8 장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제 8 장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제 1 절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문제점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행정이나 그 행정서비스가 실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의 문제는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그 합리성이 크게 좌우된다.

시설청소년과 관련된 아동복지전달체계는 시설아동의 입소 전달체계, 정부에서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시설과 민간간의 서비스수급 전달체계, 시설내부에서의 아동양육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다.

1) 입소 전달체계

전체 요보호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설아동의 경우에도 입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통일되고 전문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 입소전달체계의 문제로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달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아동의 입소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경로를 총괄적으로 영향력 있게 통제하는 기관이 없어, 시설아동입소에 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지역을 관할하는 공립아동상담소가 있어 시설입소 대상아동의 상당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곳일지라도 전문인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사기가 떨어져 있어 입소대상아동이나 그의 가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셋째, 시설입소 결정과 과정에 있어서 실제 주체인 아동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요보호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나 보완서비스를 예비하고 있지 못하다. 대리서비스부문에서도 가정위탁사업이나 입양사업이 전무하거나 부진하여 시설보호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게는 시설이외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한 시설간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아동에게 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도 없다. 결국 여러가지 잘못된 현실 때문에 아동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삶의 터전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시설에 가기 싫어도 가서 살아야 하고, 가는 시설에 대한 예비교육도 없이 시설에 배치된다.

넷째, 아동배치에 대한 시설측의 결정권이 없다. 시설간의 빈부차이가 있으나 동시에 시설마다 특색도 있다. 아동의 능력에 따라 시설측에서 아동을 선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으나, 아동의 가정배경이나 아동의 성격 등에 따라서 그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분위기의 시설에 아동이 배치되어야겠고 그에 따라 시설측에선 이런 성질의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시설은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배치통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2) 정부 보조전달체계

정부에서 시설을 행정지도하고 재정보조를 하는데 있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원수비례보조제와 수요에 따른 지원이 아닌 제한된 예산과 선별된 항목에 따른 일부보조 방침이다.

첫째, 현 정부보조금의 지원방침은 수용아동수에 정비례하는 인원수비례제이다. 이러한 지원방법은 수용아동이 많을수록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아동의 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어, 이에 따른 부조리가 없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인원수비례보조제는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의 대형화는 시설운영의 일정부분을 재정보조하는 정부입장에서만 유리할 뿐, 시설운영자나 아동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조건이다. 시설운영의 면에서는 대형시설 관리에 따르는 유지관리비의 부담과 한정된 직원으로 많은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동들에게는 시설의 대형화에 수반되는 단체생활의 병폐에서 오는 시설병의 감염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지급방식을 인원수에 비례시키는 것에 덧붙여 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아동수를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여 “지난 3년간 수용

인원이 계속 50인 미만의 시설이거나 수용인원이 정원의 1/3에 미달되는 시설을 일차적 정비대상시설”로 명문화시켜 놓았다.

둘째, 정부는 시설청소년을 양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객관적 욕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지 않고, 당초부터 낮게 책정된 시설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일정비율에 따라 또 선별된 항목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시설에 대한 낮은 투자로 우리나라 시설의 상대적 후진성은 더욱 크고 깊어져 왔다.

3) 민간단체의 전달체계

민간단체가 시설을 지원하는 전달체계는 그 내부구조가 비공개적이고 그 성격이 시혜적인 면이 강하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때 아직도 많은 민간단체가 지역을 제한하기도 하고 지원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다. 또 시혜적인 면은 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일 때보다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할 때에 더 많이 나타난다.

4) 시설의 대아동 서비스전달체계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민주적인 학생회나 직원회가 전달체계와 연계됨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학생회의 경우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시설은 55.7%에 불과하다. 서비스 내용은 경제적 재정 지원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느냐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현역청소년과 퇴소청소년 그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를 위한 합리적 장치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의 대아동 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청소년이나 직원이 주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객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입소 전달체계

① 각 시도마다 공립 아동전문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달체계를 통일한다. 정부는 많은 지역에서 민간아동기관이나 부녀아동혼합상담소에 아동업무를 위임하는 무성의를 중단하고, 기아나 미아, 부랑아, 가출아, 고아 등 모든 요보호아동의 유일한 최종 집결지이면서 동시에 배치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설입소경로를 일원화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립 아동상담소를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도청소재지에 모두 배치하는 지역적 분포와, 인구밀집지역에는 인구 백만명 당 1개소라는 인구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동상담소내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대폭 증원되고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명의 전문직원이 케이스워크를 1일 10건~15건씩 담당할 것이 아니라 5건정도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낮은 보수와 부족한 승진기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입소결정과 배치결정과정에 아동과 시설장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설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시설마다의 특성 있는 양육과 살림의 터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정부보조 전달체계

①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수용아동수비례제를 폐지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며 아동수가 일정수를 초과하면 단계별로 보조금을 조정하는 지역차등제와 아동수일정역비례제를 도입한다. 현재 시설간에 빈부차가 심한 것은 법인의 자부담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지만, 건실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법인을 제외하고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모금하는 후원금이 법인자부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시설간의 빈부차가 법인에 따른 격차라기 보다는 지역의 빈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차등제도입을 제안한다. 또 현재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 보조금 지급의 아동수비례제를 폐지하고, 시설의 소형화정책을 세우고 그룹홈 운영제도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비 보조내역기준을 현실화하고, 청소년 양육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과 보충수업비와 관례화된 잡부금 등)을 모두 보조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민간단체의 전달체계

민간단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개성과 엄격성을 표방하고 그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중심의 단체가 아닌 전국단위 단체이고, 해당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닌한 지역을 제한하지 말고 그 심사원칙을 사후에라도 공개해야 한다. 또, 시설이나 개인을 지원할 때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지원을 받을 만한 수준의 시설이나 청소년이 받아야 하는 지원대상선정상의 엄격성이 확립되어 가난한 시

설이기 때문에 받고 불우한 아동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전래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4) 대아동 서비스전달체계

시설에서는 직원회나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직원회나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발전이 아동에 대한 시설의 서비스전달체계를 시설장이나 총무의 독점적 사고체제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탈피시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위로부터의 ‘시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또 시설운영의 고통을 시설장이나 총무만이 감수하지 않고 시설의 구성원들 모두가 나누어 가짐으로서 운영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할 것이다.

제 2 절 가족관계

1. 가족관계의 문제점

시설청소년의 가족관계문제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다수의 아동이 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개선이나 회복을 위한 시설내외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청소년의 68.3%가 양부모나 편부모가 생존하고 있어 친가족이 있으면서 시설에 입소했다. 이들은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에 국가 복지정책에 의거해 전단계 서비스를 받아오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최후의 보호처로 시설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이 요보호아동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복지서비스시설인 실정이다. 위기가정과 결손가정에서 아무런 사회사업서비스를 접하지 못했던 아동은 갑작스러운 시설생활에서 오는 가치와 규범의 혼란과 충격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조부모와 삼촌 등의 친척까지를 포함하면 가족과 친척이 있는 청소년이 81.4%인데, 이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은 37.5%의 청소년이

좋아한다고 했고 23.9%가 싫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르겠다고 대답한 38.6%의 청소년은 곧바로 뒤이어 묻은 부모와의 재결합문항에서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52.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42.9%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표 8-1과 표 8-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많은 청소년이 가족과의 재결합에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부모가 모두 있는 집단과 편부 편모의 집단을 비교할 때, 편모집단의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감정과 재결합에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비교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와 재결합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표 8-1〉 입소전 부모유형별 부모에 대한 감정

감 정	좋 아 함	싫 어 함	모르겠다	무 응 답	합계(실수)
부 모	35.2	18.2	43.2	3.4	100.0(88)
편 부	36.8	26.3	26.8	-	100.0(38)
편 모	54.9	19.6	23.5	2.0	100.0(51)
기 타	29.3	31.7	35.4	3.7	100.0(82)
합 계 (실수)	37.5 (97)	23.9 (62)	35.9 (93)	2.7 (7)	100.0(259)

유의도 : 0.1030

〈표 8-2〉 입소전 부모유형별 부모와의 재결합 희망정도

재 결 합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무 응 답	합계(실수)
부 모	58.0	39.8	2.3	100.0(88)
편 부	34.2	55.3	10.5	100.0(38)
편 모	74.5	23.5	2.0	100.0(51)
기 타	40.2	52.4	7.3	100.0(82)
합 계 (실수)	52.1 (135)	42.9 (111)	5.0 (13)	100.0(259)

유의도 : 0.0007

표 8-2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답변의 요지가 세류음으로 나누어지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아 왔기 때문에 많은 점이 서로 달라 같이 산다는 것이 어색하고 서로

의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라며 이산세월의 시간을 메우기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17.0%, “나 스스로 자립할 나이니까 혼자서 살아 가겠다”고 독립할 연령을 강조한 청소년이 19.5%였고, 나머지 63.5%는 “나를 버린 부모는 육체적인 부모일 뿐이다”며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를 향해 원망을 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가 시설생활의 기간에 따라 그 폭이 점차 넓고 깊어져 끝내는 청소년의 가슴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할 때 시설청소년 가족관계문제는 ① 부모가 있는 많은 아동들이 가족해체 후 즉시 시설로 입소되고 있는 점과, ② 시설입소를 전후한 시점과 과정에서 가족관계에 사회사업서비스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점과, ③ 시설청소년과 가족간의 재결합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가족’에 대한 망각증을 갖게 되고 심하게 될 때는 혐오감을 갖기도 한다.

2. 가족문제 개선방안

① 부모나 친척이 있는 아동들이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극소화시키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아나 고아 그리고 빈곤 가정이나, 결손가정인 위기가정 아동의 복지를 생각하는 지원서비스¹⁾와 보완서비스²⁾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이 도입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 대리서비스³⁾에서도 시설보호는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서비스 내용중에서 가정아동상담사업은 전무하고, 아동학대보호사업은 사업전개를 위한 민간모임이 결성된 단계이고, 미혼모상

1) 지원서비스에는

- ① 가정아동을 위한 상담사업(i. 가족봉사기관, ii. 지역정신건강소)
- ② 학대·방치된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 ③ 미혼모를 위한 사업등이 있다.

2) 보완서비스에는

- ① 소득보완 프로그램(i. 노령·유가족·무능력자보험, ii. 요보호아동가족부양)
- ② 가정조성사업
- ③ 탁아사업(i. 군집탁아, ii. 가족탁아) 등이 있다.

3) 대리서비스에는

- ① 위탁가정사업
- ② 입양 또는 영원한 가족보호사업
- ③ 집단보호
(i. 긴급피난 및 보호, ii. 집단가족, iii. 아동시설, iv. 주거지역치료소) 등이 있다.

담사업은 몇몇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보완서비스 부문에서는 탁아사업만이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원서비스와 보완서비스의 실천을 법제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족복지에 대한 의지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잘 운용된다 하더라도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므로, 담당사회사업가는 이들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동향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단계에서 생각하는 대리서비스에서도 위탁가정사업이나 입양사업이 여의치 못할 때 집단보호를 마지막으로 선택하는데, 이 때에도 일반시설 보호에 앞서 그룹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시설아동 발생배경과 결손가정의 성격)을 감안하여 몇가지 현실적이고 강화된 대책들은 첫째, 지원서비스중에서 상담사업과 학대아동보호사업은 기존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3배정도 강화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보완서비스중에서 탁아사업은 현재 정부의 추진 내용과 속도를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사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셋째, 대리서비스사업중 시설보호에 우선하는 것이 위탁가정사업과 입양사업인데, 국내입양사업보다는 위탁가정사업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입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잡하고 무거운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해서이기도 하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무리없이 복지사업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8-3은 시설청소년에게 입양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시설에서 계속 살겠다는 청소년이 42.9%이고, 해외입양을 희망하는 아동은 11.6%, 그리고 국내입양이면 좋겠다고 한 아동은 불과 6.6%였다. 국내입양은 양부모가 될 우리사회 성원들에게나 양자가 될 청소년들에게나 쉽게 선택되고 있지 않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시설 청소년들이 위탁가정사업에 생소할텐데도, '입양보다는 자립할 때까지 양육받는 가정생활이면 좋겠다'를 32.0%나 희망을 한 것은 부실한 부모이지만 친부모가 있는 처지에 다른 사람과의 양연관계로 평생 구속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시설에 있으나 남의 집에서 자라나 어차피 20세를 전후하여 독립을 하여야 한다면 가정집이 좋겠다는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표 8-3〉 입소전 부모유형별 입양에 관한 의견

입양의견	해외입양	국내입양	위탁가정	시설간류	무응답	합계(실수)
부 모	13.6	5.7	31.8	44.3	4.5	100.0(88)
편 부	5.3	5.3	44.7	39.5	5.3	100.0(38)
편 모	11.8	3.9	27.5	51.0	5.9	100.0(51)
기 타	12.2	9.8	29.3	37.8	11.0	100.0(82)
합 계 (실수)	11.6 (30)	6.6 (17)	32.0 (83)	42.9 (111)	6.9 (18)	100.0 (259)

유의도 : 0.5789

② 시설입소를 전후한 시점과 과정에서 전문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청소년이 당면한 환경변화를 자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휴식과 안정과 도약의 계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와 시설의 전문직원이 돕는다. 양측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 시간 단위나 상황별로 실제적이고 세부적이며 치밀한 프로그램이 예비되어야 한다.

③ 가족재결합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쳐 연속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입소전에 정확한 가정조사를 하고 그것을 자료로 시설수용기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되도록이면 짧은 수록 좋은 이 한시수용제는 부모나 연고자와 확고한 계약을 해 둘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설에 입소된 다음에는 청소년과 부모가 공식적으로 빈번한 접촉을 갖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부모회”를 조직하여 시설청소년문제를 시설부모들 사이에서 공개화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시설밖에서는 시설이나 상담소의 사회복지사가 청소년가정에 대한 가족치료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기능을 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에 “운동”이 붙는 것은 청소년의 가족과 시설직원과 사회와 정부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함이다.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짚언하는 것은 부모가 있는 아동과 부모가 없는 아동을 동일시설에 혼합수용하는 현수용방식을 바꾸어서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보육 현장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혼합수용에서 오는 문제는 부모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비가 7:3인데, 이로 인한 아동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부모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의식주

1. 의생활

1) 의생활의 문제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된 피복비(1인당 1년에 43,600원)와 그 용도의 광범위가 문제이다. 아동들에게 신발값이나 침구비가 보조되지 않기 때문에 피복비의 쓰임이 겉옷·속옷·신발·양말·동내의·침구에까지 이르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 이 피복비를 국민 전체 수준과 비교해 보면, 1989년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피복 및 신발부분이 50,425원⁴⁾인데, 피복과 신발의 가격비를 4:1로 보고 가구당 인원수를 3.8명⁵⁾으로 했을 때, 1인당 연 피복비는 127,389원($50,425\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0.8 \div 3.8\text{명}$)이 되므로 1989년도 시설아동 1인당 연피복비 42,500원은 도시 가구원의 33%에 불과한 셈이다.

2) 의생활의 지원방안

피복비를 100%인상하거나, 신발값과 침구비와 신입생 교복값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평상복은 기증되는 헌옷을 입을 수 있지만, 기증품이 없는 신발과 교복에 대한 압박이 크다. 1989년의 한 조사연구⁶⁾에서 피복비에 대한 인상요구액이 육아시설쪽에선 250원~26,000원미만이 30%, 26,000원~51,750원미만을 요구한 시설이 30%, 20%의 시설에서는 51,750원~77,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동복교복값이 12만원선, 하복교복이 6만원선, 교복오버가 6만원선으로 1명에 대한 교복값이 24만원이 지출됐다.

4) 한국통계월보 1990. 3, 경제기획원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10

6) 김국도·하길웅, 앞의 책, p. 142.

2. 식생활

1) 식생활의 문제

식생활의 문제는 질나쁜 쌀(3년씩 묶은 통일계 정부미)과 낮은 부식비(1인당 1일 500원)에서 시작된다. 오래된 정부미로 밥을 지으니 밥이 딱이 되기 일쑤이고, 밥에 끈기가 없어 아동들의 배가 쉬이 꺼진다. 정부에서 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쌀이 바로 통일계 정부미이다. 시설에는 양곡선택권이 없어 2~3년이나 묶은 정부미만을 배급받아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아동들은 도시락 지참을 기피하고 있어 주민들이나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에도 정부미 밥을 해 먹이는 실정이다.

시설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부식비를 1989년도의 기준치로 다른 분야와 비교한 것이 표 8-4이다. 앞의 피복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도시민 1인당 1일부식비를 1989년기준으로 계산할 때 $1,663\text{원}(189,532\text{원}^7) \div 30\text{일} \div 3.8\text{명}$ 이 된다. 1989년도 시설아동 1인당 1일부식비 450원은 이것의 27%에 불과하다.

〈표 8-4〉 부식비 비교표

분 류	1인 1식	1인 1일	비 고
시설아동	333원	1,000원	주식포함(보사부지급)
급식아동	600원	1,800원	주식포함(문교부지급)
결식아동	800원	2,400원	주식포함(문교부지급)
F.A.O. 권장부식단가	968원	2,904원	82년 권장가

참조 :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1989. 현재(대한영양사회 자료제공)

2) 식생활의 지원 방안

양곡보조금중 5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시설로 하여금 햅쌀이나 잡곡이나 밀가루를 구입하여 아동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특별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아동들이 좋은 밥과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학교 생활이나 정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 아동 건전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한국통계월보, 1990. 3, 경제기획원

자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시설에서는 1인 1일 부식비로 1,300원~1,500원을 지출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식비는 이것의 1/3수준인데, 500원만 갖고 부식을 구입하는 시설이 전체시설의 90% 이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⁸⁾에서 육아시설에서는 18원~410원미만을 인상 요구한 시설이 30%, 40%의 시설에서는 410원~801원미만을 요구했다. 시장 물가와 국민 평균 부식비를 고려하고 시설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식비의 지원은 200%인상시켜야 한다.

3. 주생활

1) 주생활의 문제

정부가 시설대형화를 유도한대로 시설당 평균 94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단체생활이 주생활의 첫째 문제이고, 시설청소년의 56.5%가 5명 이상과 함께 한 방을 쓰는 방인원수에 문제가 있다.

2) 주생활의 지원 방안

주생활의 근본이 되는 시설전체 인원수와 한 방을 함께 쓰는 동숙자의 수를 조사해 보았다. 1990년 시설당 평균아동수는 94명인데 비해서 79명이하의 시설규모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남학생이 59.7%, 여학생이 68.0%, 보육사가 65.4%, 시설장과 총무가 46.1%였다. 시설규모의 축소를 가장 바라는 집단은 여학생과 보육사이고, 시설관계자 전체의 평균요구는 57.1%로 과반수이상인 현재의 수용아동수보다 15명이 적은 시설을 원하고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규모에 더 많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축소지향성으로 풀이되고, 직원가운데에서 보육사가 시설장과 총무보다 42%나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시설청소년과 일상의 접촉을 하면서 느낀 것의 차이로 생각된다.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동숙자의 수는 현실조사에서 5명이상의 경우가 56.5%인데, 청소년이 바라는 동숙자의 수는 5명이상이 26.5%인 것에 비해 4명이하와 생활하겠다는 청소년이 72.7%였다.

8) 김국도·하길용, 앞의 책, p. 138.

〈표 8-5〉 적당한 시설아동수

인원수(명)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명 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학 생	12.9	5.8	6.5	12.2	12.2	10.1	5.8	16.5	16.5	1.4	100.0(139)
여 학 생	7.2	2.4	12.8	22.4	11.2	12.0	7.2	6.4	16.8	1.6	100.0(125)
중 학 생	11.1	3.0	13.1	16.2	14.1	16.2	1.0	7.1	17.2	1.0	100.0(99)
고 등 학 생	9.2	4.6	7.2	17.6	10.5	8.5	10.5	13.7	16.3	2.0	100.0(153)
보 육 사	3.7	2.0	8.1	18.9	18.2	14.5	6.7	9.1	11.1	7.7	100.0(297)
시 설 장			6.5	15.2	10.9	15.2	13.0	6.5	32.6	-	100.0(46)
총 무			6.6	16.4	6.6	14.8	9.8	3.3	39.3	3.3	100.0(61)

유의도 : 성별 0.0494, 교급 0.0432

시설의 주생활을 수용아동수 중심으로 기준하여, 시설수용아동은 점차 감소시켜 시설의 소형화를 목표하여야 하고 더 발전하여 그룹홈 형태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속사는 한 방에 현행 8명까지로 되어 있는 최저 기준을 4명이하로 개정해야 한다.

제 4 절 학 업

시설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의 현실적 의미는 우리사회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미래적 의미로 직결될 수 있다. 학업에 따른 학력이 직장을 결정짓고 직장이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이 부를 낳고 부가 사회적 지위와 제2세에 대한 교육력을 좌우하므로 학업은 인생과정의 모든 것을 연결지어 모양짓는 첫번째 고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학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청소년들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대개가 빈곤 가정과 결손가정 출신인 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붙질 않아 기초학력이 뒤지는 데다가 시설학생(고아원 아이)이라는 주위의 낙인까지 의식하기 때문에 면학을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1. 학업환경의 문제

시설내 학업환경의 기본요건으로서 개인책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보유한 학생이 69.0%이고 개인책상이 없는 학생이 30.2%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9%정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학교로 내려가면 개인책상 소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시설청소년에게 열악한 학업환경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이 어렵고, 단체생활의 병폐, 과외공부로부터의 소외, 부족한 교육비, 특별학습실의 미비등으로 요약된다.

① 보사부에서 실업계고등학생에 한하여 수업료를 보조해 줌으로, 온전히 자부담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설의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그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② 다행스럽게 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면학분위기로 자리잡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수의 그렇지 못한 시설의 청소년들은 단체생활속에서의 잦은 단체행동과 친구나 선배등의 눈치때문에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③ 지난 10년간 비밀과외로 명맥을 유지하던 과외공부학습이 전면 개방되면서 일반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원으로 과외학습을 받고 있지만 시설청소년들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④ 대개의 시설이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교육비의 3배~10배까지를 자부담하여 교육비를 조달하고 있지만 청소년 개개인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못되고 있다. ⑤ 시설청소년이 과외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로부터 지도받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지도를 받는 장소가 여러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이거나 도서실이 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기에는 부적합하다.

2. 학업의 지원방안

①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고, 기타 공식적 교육비(보충수업비, 보충수업교재비, 방송수업비, 모의고사비, 견학비, 졸업여행비, 졸업앨범비 등)에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② 4평 정도 넓이의 학습지도실이 아동 20명당 1실씩 마련되어 자원봉사자로부터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물었을 때 체육시설(29.8%) 다음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이 도서실(공부방)이었다. 정부예산으로 확보되는 이 공간들은 청소년들의 회의실이나 특별활동실이나 자원봉사실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시설을 수용공간으로서만이 아닌 생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대적 필요 공간이다.

③ 시설측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학업욕구에 부응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청소년중심으로 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측의 일관된 계획에 의거하여 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학습지도 방법에 있어 청소년들은 학습지도 전담직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원했고, 두번째 욕구는 자원봉사자 활용방법이었다.

④ 학습지도는 학업지도의 철학에서 궁구되어져야 하고, 학업지도는 생활지도의 안목에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라는 주의와 지시와 독려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인생속에서 희망과 포부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학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자아와 학업을 연결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습관적 학습생활을 훈련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학교성적이 나쁜 경우 그 이유를 고백한 표 8-6을 볼 때 기초실력이 부족한 것이 학업지장의 큰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학전 아동에서부터 국민학교 저학년까지의 학습지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무조건적으로 기초를 잡아주어야 한다. 공부하기가 싫은 청소년에 대해선 생활지도로서 풀어나가면서, 이들에게 학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본인의 자질에 토대한 학교공부외의 희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표 8-6〉 학업성적이 나쁜 이유

성적이 나쁜 이유		기초 부족	나쁜 환경	공부하기 싫다	진학이 어렵다	이성 문제	학교 친구	학 교 선생님	시설 직원	무응답	합계(실수)
성별	남	39.6	7.9	28.1	2.2	0.7	2.2	0.0	4.3	15.1	100.0(139)
	여	36.0	12.0	25.6	7.2	1.6	2.4	1.6	7.2	6.4	100.0(125)
교급	중	47.5	7.1	18.2	3.0	0.0	4.0	0.0	9.1	11.1	100.0(99)
	고	31.4	11.8	33.3	5.9	2.0	1.3	1.3	2.6	10.5	100.0(153)
합 계 (실 수)		37.9 (100)	9.8 (26)	26.9 (71)	4.5 (12)	1.1 (3)	2.3 (6)	0.8 (2)	5.7 (15)	11.0 (29)	100.0(264)

유의도 : 성별 0.100, 교급 0.0058

제 5 절 정 서

1. 학교생활 지원방안

1) 학교생활의 문제

시설청소년이 갖고 있는 학교생활의 문제는 ① 시설청소년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 ② 학교생활에서의 제한된 교우관계나 교내활동, ③ 제도교육에 대한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소지할 가능성이 시설청소년이기에 상존하는 것이고 일단 이 문제들로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면 청소년의 정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2) 학교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학교생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 적지 않은 문제는 전문상담가나 사회복지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들은 시설수용 아동이 교체되더라도 시설에는 늘 있는 것이므로 상근하는 전문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 이하의 대책들도 전문직원에게 의해 수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① 시설청소년 신분에 대한 열등감은 청소년 개인의 정서에서 보다는 시설내외의 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시설방향이 아동복지서비스 제단계 중의 한 단계로서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한 생활이 될 때는 열등감의 감도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때문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는 다단계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단계마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개인적 차원에서의 열등감 해소는 담당 보육사나 상담교사가 학교 담임교사와 협력하면서 관찰하고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고, 시설내의 생활양식이 1990년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고 있는 시설청소년의 정서는 청소년이 학교문화를 수용하기에 벽차고 자신을 일정부분 감추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양자어로 모두 접근하여야 한다.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후자의 문제가 벗겨지면 되지만, 전자의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어 줄 때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고 교내생활을 하는 과제는 시설의 전문직원과 본인이 공동노력해야 한다. 교내활동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훈련과 경험이 좋은 방법이므로 시설 청소년의 교내특별활동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라는 곳이 현실적으로는 전인교육보다는 교과학습의 장이므로 학습에 대한 학력의 보완도 필요하다.

③ 시설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제도교육의 반항심은 그것이 강한 개성과 독창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단순히 학교공부가 너무 싫어서 일 수도 있다. 관계 직원은 문제를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학교문제라고 하여 학교의 장에서만 풀어 보려고 고집해선 안된다. 청소년의 가족배경으로까지 소급하여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청소년의 교실과 시설의 방까지 탐색하여야 한다.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청소년기의 가장 비중있는 부분이며 학교생활의 원만한 정도가 그의 장래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 현상이므로 시설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있어야 한다.

2. 시설생활 지원방안

청소년의 시설생활중 자율성 제고와 특별활동 활성화와 신앙심 고양과 가출예방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할 때, 이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시설청소년의 이 문제들을 전담할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① 시설청소년의 자율성은 시설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퇴소후의 사회생활에까지 연장되므로, 그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시설내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는데 이에 알맞는 것이 학생회제도이다. 청소년들은 학생회의 주기적인 선거, 집회, 자치행사, 시설측과의 협조 또는 갈등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성장된다. 학생회는 55.7%시설에만 구성되어 있는 실정인데, 모든 시설이 학생회구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겠으나 시설운영자는 적극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② 시설내 특별활동은 종교활동과 운동부활동과 문학이나 음악 그리고 취

미활동 등이 있겠다. 정부에서는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시설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활동의 가치를 중시하여 특별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특별활동은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특별한 취미활동과 동아리의 성격이었지만, 청소년의 정서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함양한다는데 이르러선 사회교육차원에서 전문적 지도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운동이나 문학과 음악 등에 편중되어 있는 활동의 영역을 역사, 과학, 원예, 축사, 저널 등으로 확대하고 집단활동방법론에 따른 활동의 깊이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특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집단별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며 그것은 집단활동전문자원봉사자나 전문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다.

③ 시설에서의 신앙교육은 전문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자가 없던 초창기부터 정서적 영역의 부재를 훌륭하게 대리해 온 역할자이다. 오늘에 와서도 신앙교육의 가치와 효과성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고, 조금은 흔탁해진 우리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는 더욱 필요성이 커진 부분이다. 대개의 시설에서 신앙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두가지 유의할 사항중 하나는 시설청소년의 87.1%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평균 34.1%(남자 27.3%, 여자 41.6%)가 시설로부터 신앙이 강요되고 있다고 반응한 점과, 다른 하나는 신앙지도가 청소년 생활지도에 여전히 효험이 있으나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신앙지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④ 가출아동의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가출동기로서 가장 많은 이유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31.6%)이라고 했다. 시설생활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무의미의 감정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다. 시설청소년을 개별화시켜 생활속에서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개별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책의 난점은 개별지도할 전문인력의 부재와, 시설 특유의 단체생활 분위기와, 가출아를 위해서나 시설을 위해서나 때로는 가출이 방치될 때도 있는 점이다.

3. 인간관계 지원방안

시설청소년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 시설내외의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된다. 이 만남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하는 쌍방이 된다면 청소년의 정서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시설청소년이 고민을 갖고 상담할 때 직원이 상대가 된 것은 37.5%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한 아동이 37.1%인 것을 보면 청소년과 직원과의 관계는 매일의 현실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로 그 이상의 관계발전은 시설운영구조의 큰 변화를 전제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다. 즉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보육사의 경우는 평균 15명의 아동들 생활전반에 간여를 하기 때문에, 또 105명이상 시설에만 1명씩 배치되는 생활지도교사는 담당아동수의 과다로 청소년들과의 친밀감형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과 직원간의 소원한 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분명한 대책은 직원의 담당아동수를 대폭 감축하고 보육사들이 어머니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자직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현행 15명이상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의 담당아동수의 개선요망은 표 8-7에서 보듯이 7명이하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 8-7〉 보육사 1인당 담당 희망 아동수

아 동 수	4명이하	5~7명	8~10명	11~15명	무응답	합계(실수)
남 학 생	25.2	31.7	25.2	15.8	2.2	100.0(139)
여 학 생	28.8	41.6	23.2	4.0	2.4	100.0(125)
보 육 사	4.0	55.9	32.3	3.7	4.0	100.0(297)
시 설 장		41.3	56.5	2.2		100.0(46)
총 무	3.3	57.4	34.4	1.6	1.6	100.0(61)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감정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 58.7%의 청소년이 봉사자가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봉사자와의 관계를 인격발달, 정서지도, 학습지도 순서로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퇴소후에는 지금의 봉사자를 계속 만날 생각이 없다는 아동은 9.5%에 불과했다. 봉사자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도 심각성을 보이는 면은 없기 때문에, 봉사자와의 관계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에서가 아닌, 관계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과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지이다. 봉사활동의 방향성은 논의로 하고 효율성만을 보았을 때, 학습지도를 받는 청소년의 33.3%가 지도를 받은 후 성적이 크게 또는 약간 향상되었다고 했으며, 정서지도를 받는 청소년의 19.7%가 지도받는 것이 즐겁고 기량도 좋아졌다고 했다. 청소년과 봉사자가 만나서 해야 하는 과업의 성과는 봉사자와의 인간관계에서

의 만족도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봉사자의 입장에서는 활동성과에 대해 61.1%가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14.8%에 불과해 청소년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학교성적향상과 취미나 특기의 기량 신장도를 성과의 척도로 삼는 반면에, 봉사자는 청소년과의 태도형성 진행정도와 청소년의 내적성장에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데서 온다. 청소년과의 인간관계는 71.3%가 만족하고 있다. 청소년과의 만남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봉사자의 활동철학에서는 활동의 목적달성 정도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③ 청소년들은 후원자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족하고 있지도 않았다. 대개의 시설이 후원금을 아동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시설측의 교육비항목으로 총괄접수하여 공동지출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후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편지를 교환하거나 직접 만나는 직접적 교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형성 작업은 담당직원의 세심한 사무처리로서 연결이 지속되므로 후원담당직원의 업무를 고유업무로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시설청소년의 93.9%가 시설밖의 동년배청소년들과 친교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그러면서도 시설청소년의 대부분이 이 친교에 실패하고 있거나 애로를 겪고 있다. 자신이 시설에서 생활해야만하는 사연에 대한 열등감과 한 두번의 교제가 지속되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청소년이 자신의 입장을 냉정히 파악하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이 입소 초기부터 상당기간 집중치료를 한 뒤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엔 시설외부와 집단으로 교류하거나 외부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시도한다. 교회활동이나 학교내 특별활동 또는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등이 시설청소년의 사회적 정서격리감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시설병 개선방안

주의산만과 물품낭비와 정서불안 등으로 대표되는 시설청소년의 시설병은 그 증상을 볼 때에는 심리치료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시설구조에서 오는 영향도 중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병에 대한 대책은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통한 각종 치료요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발전적 요소의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있어야 한다.

② 시설병이 시설문화의 부정적인 양태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은 그것이 시설구조와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관점이다. 대규모 단체생활에서 야기되는 정직과 도덕의 유실과 사고의 단순성과 창의력 빈곤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때문에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은 시설의 소형화와 배급생활방식의 지양과 직원의 전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5. 자아성숙 지원방안

① 생활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는 현재의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는 사람이 46.2%로 가장 많았다. 연구자나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화”이지만, 아동들의 욕구는 “따뜻한 관심”이다. 이 양측의 시각을 절충한 것은 현직원을 현임교육이나 재교육을 시켜 전문요원으로 배양하는 방법이다.

② 시설청소년중 자신이 정직하다고 분명한 답을 한 사람은 7.6%이다. 스스로의 이러한 평가는 자아발전이나 대인관계에서나 보이지 않는 결핍들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덕성의 문제가 사회사업 프로그램이나 심리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실천할 것은 도덕성 파괴의 유혹을 시설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시설청소년중 중고등학생이면서도 26.9%의 청소년이 용돈을 못 받고 있었다. 또 시설의 단체생활은 군중속세로의 잠적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도덕성문제가 반드시 용돈과 집단생활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개인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외부의 책임부문도 개선되어야 한다.

③ 시설청소년에게는 자신을 성찰하여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 모습을 연상짓는 정체감의 탐구가 필요하다. 자아정체감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시설에 대한 열등감이나 현재적 성격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이 풀어 나갈 수 있고, 이것은 잠재되어 있는 지적능력에 활력을 주고 생활자세의 정립에도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의 시설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아정체감탐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시설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6. 사회교육 지원방안

종전까지는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는 개념이 자유시간의 건전한 소모를 뜻했으나, 최근에는 여가시간의 적극적·생산적 이용이 주장되고 있다. 시설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TV 시청이나 운동과 독서등을 하는 것으로 쓰여졌다. 시설청소년의 여가활용이 그 편중도가 높고 또 시설청소년의 관심의 폭이 좁고 깊이가 얕아 이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탈가정생활에 따른 가정교육의 부재를 대리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시설청소년의 생활환경과 그들의 정서를 분석할 때, 시설청소년에게는 단순한 ‘선용’차원의 여가생활이 아닌 사회교육의 철학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청된다.

시설에서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욕구가 높은 것은 진로지도교육과 직업안내교육이다. 요리교육과 예절교육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상의 4가지 교육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민간단체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취미교육부문도 프로그램특성상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 6 절 자 립

1. 직업교육 지원방안

직업교육은 사회교육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시설청소년들의 직업관이 보수적인 면이 강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준비사항에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직업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직업과 생활간의 관계의미, 직업의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기능, 직업의 종류와 각 직업의 특성과 그 직업종사자의 필요한 자질, 직업인의 윤리, 직업의 선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곧 퇴소하게 될 고등학교 상급학생에게만 실시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그 학년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 학년마다에서 직업교육을 받아 자신의 진로를 예비하여야 하고, 연속교육이 제공되어야 청소년의 직업의식이나 안목이 형성된다. 교육때마다 현장학습이 필요하며 현직 직업인과의 좌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부모 형제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면서 자라고 18세에 퇴소하여 자립해야 하는 시설청소년에게 매우 절실한 교육이다.

2. 자립지원 방안

시설청소년의 퇴소·자립의 과정은 취업과 직장생활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①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의 차별인식, ② 취업처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생산직이 주류인 점, ③ 주거의 문제, ④ 사회공익의 문제, ⑤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재 등이다.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차별인식은 시설출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시설아동과 시설출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한가지로만 묘사하고 있는 사회 각계의 책임도 면키 어려운 일이므로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시설청소년들의 73.4%가 시설출신에 대한 불이익을 예견했다. 한 예로 1989년 2월에 공고를 졸업한 시설출신 청년은 전기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5번의 취업시도때마다 면접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는 “사회에서는 시설출신을 꺼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꺼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라며 장탄식을 했다.

퇴소청소년의 취업처가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이들이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은 충분한 직업보도서비스를 못 받은 점과, 시설청소년이 그러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거나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사회의 편견으로 제 자리에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력과 적절한 직업보도서비스와 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해결된다.

시설청소년중의 54.3%가 퇴소후에 의지하거나 갈 곳이 없다고 하였다.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한 45.7%의 청소년 모두가 퇴소후에 기대했던 의지할 곳에서 실제로 거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설출신들의 주거문제를 돕기 위해서 1989년부터 전국 4개소에 30명 수용의 자립생활관이 건립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위치, 홍보, 이용자선정, 직원의 자질 등) 당

초의 목적이 만족스럽게 달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고 합리적 운영을 기한다면, 자립 생활관은 시설퇴소 청소년의 주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자립생활관은 매년 시설퇴소청소년 3천여명의 1/5정도를(거가, 직장 기숙사 이용, 자취 제외)수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1987년에 조사된 연구⁹⁾에서는 시설직원들이 퇴소청소년의 취업상 장애요인으로 61.8%가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19.8%가 능력배양의 기회부족을 들었고, 퇴소청소년의 성격결함을 들은 직원은 17.6%였다. 시설퇴소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는 사용자들은 대체로 시설출신자의 인간관계 미숙을 지적했다. 사회예절이나 직장예절을 포함하는 인간관계의 부드러움은 어릴 때부터 성장환경속에서 배운다는 일반적 사실을 고려할 때, 시설퇴소청소년은 그러한 환경을 박탈당해왔다.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시설별 또는 시설간의 공동준비를 거쳐 생활예절과 인간관계실제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퇴소청소년의 동향은 퇴소후 3~4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다. 대개의 시설에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고 퇴소청소년측에서 연락을 끊으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조건은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청소년이 18세가 되어 퇴소를 한 후에는 시설측에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퇴소청소년이 안정된 자립을 할 때까지는 최소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퇴소후의 사회생활이 사회경험없이 혼자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므로 사후관리는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의 지원없이 걱정하는 심정만으로는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도울 수 없으므로 퇴소청소년이 퇴소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애설계-퇴소-취업-직장적응-사회적응-생애설계 등의 각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을 상담하고 실제적 원조도 연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제도적 서비스의 정착이 필요하다.

9) 안창수외 4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p.178

제 7 절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지원방안

1) 시설운영의 문제

시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시설의 재정이 아동양육에 부족함이 없다면,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삶은 아동복지시설이란 이름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아동복지정책의 실상과 시설의 실정에는 민주성, 합리성, 재정면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개혁할 부분이 많다.

시설운영을 중심으로 사정을 정리하여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경비 자부담원칙의 부담
- ② 정부보조금의 비현실성
- ③ 시설대형화와 장기수용의 불합리성
- ④ 시설직원 법정 배치인원의 부적합성
- ⑤ 이사회와 형식적 운영과 시설의 비민주적인 운영
- ⑥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자립지원)서비스 부재

① 기아나 미아 또는 고아나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다. 사회구조주의적 관점에서라면 국가의 당연책임으로, 사회기능주의적 관점에서라면 사회기능을 보호하고 장래의 복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심리적 관점에서라면 사회정서상 환자(국민)에 대한 치료의 차원에서 요보호국민(아동)을 국가에서 그의 (생존이 아닌)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관한 책임소재는 국가에게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했으면 그 시설운영경비의 전부를 국가부담금(조치비)의 입장에서 보조가 아닌 지원(부담)을 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77%가 수익사업용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재산이 있더라도 1천 5백만원 미만인 시설이 20.4%로서 98.1%의 법

인이 법정자부담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¹⁰⁾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법인에게 자부담원칙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은 재무비리를 조장시키는 것이며, 자체부담능력이 역부족인 시설의 시설장이나 총무가 백지영수증을 갖고 남모르게 써먹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② 정부보조금의 비현실성은 피복비와 부식비와 공공요금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운영비 80%보조의 허구를 표 8-8에서 볼 수 있으며, 시설 총지출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전국 평균 68%이다.

〈표 8-8〉시설의 실제운영비와 정부보조금 비교

항	예산비용	정부보조금 (국고+지방비)	예산에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
연 료 비	7,080,380원	3,073,922원	43%
건 물 유 지 비	1,650,000원	760,623원	46%
공 공 요 금	4,200,000원	790,623원	19%
의 료 비	395,000원	306,520원	78%
수 용 경 비	8,062,000원	1,315,824원	16%
피 복 비	6,275,900원	3,128,400원	50%

자료 : 은평천사원(수용아동 79명) '88년도 예산서

정부보조의 문제는 기준액의 비현실뿐만이 아니라, 몇가지 일반지출부문에는 전혀 보조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아동위생비, 보충수업비, 방송수업비, (의무적으로 참가하는)특별활동비 등 특히 아동양육 교육비에 그 누락항목이 많다.

③ 아동보호시설의 세계적 발전추세는 대형시설에서 소형시설(소속사제나 그룹홈제)로, 수용과 생존의 차원에서 생활과 교육의 차원으로, 장기 수용에서 중단기 수용으로, 비전문성에서 전문화로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설운영은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사항이 없이 정체되어 있거나 역행하고 있다.

④ 시설장과 총무와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들의 배치기준은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사는 아동 15명당 1명씩 배치되고 생활지도교사는 수용현원이

10) 이정호외 3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p.32

105명 이상인 시설에만 1명이 배치된다. 선진국의 경우 생활지도교사는 아동 10명당 1명씩이 배치되고, 일본의 경우 보육사는 미취학아동 4명당 1명씩, 취학아동 6명당 1명씩 배치된다. 대인서비스시설에서 인적비율은 서비스 질의 비교척도가 되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정 정족수는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 있어, 시설문제의 주요 악요인중의 하나이다.

⑤ 시설의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본연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시설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시설운영의 책임자인 시설장은 시설내에서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며 비민주적 독선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⑥ 시설복지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정서프로그램과 사후관리부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울타리인 가정에서 성장한 일반정장년이 가정을 벗어나 자립하는 것이 보통 27~28세(남자와 여자의 평균결혼연령의 중간치)인데, 부실한 환경에서 자라난 시설청소년이 그보다 10년이나 먼저 사회에 나와서 불안과 냉대속에서 홀로서기를 하는데 시설이나 국가는 수수 방관만 하고 있다.

2) 시설운영의 개선방안

① 사회복지법인이 영세성으로 법인자부담 능력이 없음을 보사부에서도 확연히 알고 있는 처지에 법인부담물을 고수하는 것은 정부가 시설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악법을 속히 폐지하고 시설운영의 모든 표준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정부는 시설의 정당하고 필요한 지출항목중 미설정된 항목은 신설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의 보조금액을 인상률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③ 현재 시설당 평균 아동수가 94명인 것을 50명이하로 축소하거나 그룹홈제를 도입하여 시설대형화의 시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요보호아동을 분별없이 18세로 퇴소연령을 획일화 하지 말고, 아동마다의 개별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중단기와 장기보호 대상을 분류하여 가정복귀를 재촉하여야 한다.

④ 법정 직원정족수에 있어선, 보육사 1명의 담당아동수를 10명으로 개정한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보육사의 전일제근무를 8시간 또는 12시간 근무제로 전환시키거나 아동을 5명만 배당하거나 하여 보육사를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⑤ 법인이사 선임조건에 친인척을 배제하고, 시설장의 자격을 강화하며 시설장의 임기제를 채택해야 한다. 세금으로 보조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재정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타 운영면(기획, 인사, 관리, 아동양육, 후원자개발관리 등)에도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비리를 예방하고 사후에는 상벌을 엄정히하여 시설의 민주성과 도덕성을 강화시켜 시설의 복지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

⑥ 사회복지계에서는 장애자부문을 사회복지의 꽃이라 한다. 장애자에 대한 복지투자에 의한 재활을 통해 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길게는 18년 짧게는 5년~10년동안 투자해온 옥아시설의 투입에 의한 산출의 꽃은 퇴소청소년의 완전자립이다. 장기간 양육해 온 퇴소청소년에 대한 마무리수(퇴소후 2-3년간의 사회적응 자립지원프로그램 서비스)가 없어 서로가 섭섭한 관계가 되고 결실을 그릇치는 사례가 많아 왔다. 정부는 퇴소청소년의 자립대책을 편의주의로 발상하지 말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입안해서 사후관리 지원서비스까지 구체화시켜야 한다.

2. 근로조건의 개선방안

시설직원의 근로조건은 우리나라 노동분야중 최악의 상태이다. 직원의 처우는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 그리고 부분적 ‘물인격’으로 요약된다.

1) 저임금문제

시설직원의 저임금 실태는 표 8-9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임금구조는 일반적인 임금구조¹¹⁾중에서 단 3가지(본봉, 정근수당, 기말수당)만을 받고

-
- 11)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정액급여는 기본급(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과 통상적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기술수당, 한냉지수당, 물가수당, 금융수당, 승무수당 등)과 기타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주택수당,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현물급여 등)을 포함한다. 초과급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속직수당을 포함한다. 특별급여는 특별한 급여로서의 상여금과 기말수당과 산정수당 등이다.

있을 뿐이다. 임금의 결정요인¹²⁾중 중요한 조건인 학력과 경력과 가족사항 등에서 경력만을 불완전하게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1990년에 도입된 호봉제는 최고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고 또 당해시설에서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면을 안고 있어, 20년~30년이상 봉직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전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1989년과 1990년의 최저임금이 각각 144,000원과 165,600원이지만,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시설의 취사와 세탁부의 임금은 131,000원(1989년), 144,000원(1990년)으로 정부고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이다. 199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90원을 기준한 것인데($69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30\text{일} = 165,600\text{원}$), 이를 보육사의 근무시간에 대입하면 ($690\text{원} \times 24\text{시간} \times 30\text{일} = 496,800\text{원}$) 496,800원의 임금이 산출되지만, 보육사 1호봉이 209,000원이고 최고호봉인 15호봉이 317,000원으로 시설직원들이 국가로부터 사실상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보호국민을 보호하는 직원이 결국은 자신이 경제적 요보호국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아이러니가 현실이다. 1988년의 임금조건인 표 8-9를 표 8-10과 대비하여 보면, 간호원, 보육사, 취사는 우리사회의 최극빈계층이고 시설장과 총무가 두번째 극빈수준임을 알 수 있다.

12) i) 보수수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인

- (1) 경제적요인 : ①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② 정부의 지불능력, ③ 정부의 경제정책
- (2) 사회·윤리적요인 : ① 생계비, ②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는 사회적 세력
- (3) 부가적 요인 : 편익과 특혜(휴가, 병가제도, 근무시간의 장단, 신분보장의 강약, 퇴직후의 특혜, 보건·후생에 관한 제도, 승급·승진의 기회 등)
- (4) 정책적요인(보수가 갖는 직무수행의욕 제고의 효과) : 동기유발요인, 불만해소요인
- (5) 차별적요인 : ① 직무, ② 근무조건, ③ 학력·자격, ④ 경력, ⑤ 능력, ⑥ 연령, ⑦ 부양가족

ii) 건전한 보수관리제도 : 건전한 보수관리제도는 보수의 대외적 형평과 대내적 형평을 보장하는 것으로,

- (1) 보수의 대외적 균형은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의 임금보다 너무 낮아 유능한 직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선 안된다.
- (2) 보수의 대내적 형평은 직무요건, 근무연한, 기미혼의 차이등이 보수차등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3) 조건변화에 따라 적시성있게 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한다.

〈표 8-9〉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전국민평균임금비교(1988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	전국민평균임금수준	한국민최저생계비
시 설 장	대 출 이 상 50-59세 근로자	5인가족(전세)
$261,000 \times 17.5 \div 12 = 380,625$	1,224,544	742,681
총 무	초대출이상 30-39세 근로자	4인가족(전세)
$230,000 \times 17.5 \div 12 = 335,417$	588,040	577,835
상 담 교 사	대 출 이 상 25-29세 근로자	3인가족(전세)
$193,000 \times 17.5 \div 12 = 281,458$	541,088	418,034
간 호 원	초대출이상 20-24세 근로자	2인가족(월세)
$182,000 \times 17.5 \div 12 = 265,417$	335,397	329,486
보 육 사	고 출 이 상 25-29세 근로자	
$168,000 \times 17.5 \div 12 = 245,000$	328,257	
취 사	중 출 이 상 30-39세 근로자	
$116,000 \times 17.5 \div 12 = 169,167$	222,374	
종 사 자 평 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외 것	1988년 한국노총 의 것
$191,666 \times 17.5 \div 12 = 279,514$		

참고자료 : 1988년 2/4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606,200(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표 8-10〉 ◇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소득 · 소비지출

(단위 : 원)

계 층	소 득		소 비 지 출	
	88	87	88	87
1	206,055	175,571	243,550	209,193
2	328,810	279,070	289,859	254,399
3	397,430	340,074	328,766	280,960
4	457,357	394,192	361,022	309,679
5	519,396	445,990	404,763	346,070
6	591,851	506,256	454,037	388,677
7	677,545	581,911	512,629	433,915
8	794,076	683,323	586,027	502,023
9	992,057	851,892	725,261	620,165
10	1,608,064	1,359,573	1,124,665	907,108
평균	657,215	561,675	503,027	425,151

자료 : 1988년 도시가계연보, 경제기획원, 1989

또 하나의 임금비교는 시설의 생활지도교사와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들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연령과 학력과 경력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임금차이는 표 8-11과 같다.

〈표 8-11〉 생활지도교사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금비교

(단위 : 원)

시설 생활지도교사	동사무소근무 사회복지전문요원	
1호봉 : 241,000	1호봉 : 239,000	직 무 수 당 : 20%
2 " : 249,000	2 " : 250,000	체 력 단 련 수 당 : 연 100%
3 " : 257,000	3 " : 265,000	급 량 비 : 50,000
4 " : 265,000	4 " : 278,000	생 계 보 조 비 : 45,000
5호봉 : 273,000	5호봉 : 291,000	출 장 비 : 30,000
6 " : 281,000	6 " : 305,000	동사무소근무수당 : 50,000
※ 각종 수당 없음		동사무소특별여비 : 22,500
		가 족 수 당 : (1인당) 15,000
		(1인당 부양가족 5인까지)

2) 중노동문제

직원이 중노동문제로 시달리는 것은 담당아동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전일제 근무제때문이다. 현행 15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제도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육사는 3.7%뿐이며, 7명이하가 적당하다는 보육사가 55.9%, 8~10명이 적당하다는 보육사가 32.3%로 절대 다수의 보육사가 현재 담당아동수의 1/2을 줄여서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일제근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1일 2교대근무제(33.0%)와 3교대근무제(13.5%)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3) 무복지문제

1988년의 한 조사¹³⁾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25.2%에 불과하고 74.8%의 시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온 직원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아온 것이다. 휴일문제도 한달에 1~2일 쉬는 보육사가 43.5%, 3~4일 쉬는 보육사가 34.6%였다. 전일제근무를 하는 보육사의 대부분이 1주일에 하루

13) 사회복지 시설근무자 퇴직금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p.

나 2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일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보육사와 영아시설 보육사가 보육수당으로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지급받는데 비해 육아시설 보육사에게는 값싼 보육수당마저 지급되고 있지 않다.

4) 몰인격문제

위의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 실태는 시설공통의 문제이지만, 몰인격 문제는 일부 시설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 시설수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며 전근대성의 심각성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인격노동자로서 감수하기 힘든 몰인격적 처우를 받는 시설보육사의 문제는 주로 시설장의 전횡과 독선에서 오는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이상의 직원처우의 열악성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작용하여 더할 수 없는 과속에 이르렀다. 시설은 구인난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아동양육과 건전육성에 지대한 인력상 타격을 불원한 당하게 될 추세이다. 제일의 원인 책임은 감히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에게 있고, 둘째는 하부직원의 빈곤을 동고할 수 없는 시설장이고, 셋째는 스스로의 권익쟁취를 포기해 왔던 직원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보수수준에 불만이라는 보육사가 46.5%였고 노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보육사가 40.4%, 노조결성이 되었을 때에 즉시 가입하겠다는 보육사가 40.7%인 것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사고이고 문제해결에 바람직한 추세이다. 시설문제의 책임과 노조활동의 주요대상을 정부로 지목한 보육사가 각각 49.5%와 52.7%였다. 그러나 시설장은 노조의 필요성을 10.9%만이 인정을 하고 있어, 시설계 노조 태동과 활동에 있어선 시설장과 보육사간에 상당한 견해차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처우의 악조건은 시설직원 평균 근무연수 4.4년의 단기화와 연 30%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했다. 직원은 퇴직함으로써 시설현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잦은 직원의 교체는 아동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에 의해 양육되도록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어, 아동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직원의 처우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노동의 양과 질에 부합되도록 또 아동양육의 특수시설 성격에 부합되는 근로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에 따른 직원처우개선 실천여부는 직원 스스로에게도 달려 있다.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지 않으면 열악한 근무조건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대회나 세미나에서는 형식적인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소모임을 통한 심도있는 연구물이 발표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안되어야 하며 폐회할시에는 거리행진을 전개하여 시설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죄저임금 불이행을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자구책이 될 것이다.

3. 시설전문화 지원방안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전문인(의사, 간호사, 전문치료사)으로부터 치료를 받듯이, 사회정서적으로 상처 받은 요보호아동들에게 시설은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며 밝은 마음과 건강한 정서로 자라나서 건전한 성인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의 전문화만큼 시설도 전문화되어야 할 치료센터이다.

그러나 병원의 전문인들이 100%가 대졸이상의 학력이고 담당업무에 관한 유사협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들보다 더 어려운 환자를 맡게 되어 더 전문인일 필요가 있는 시설직원의 전문성은 어떤가?

1986년에 조사된 보고서¹⁴⁾에 따르면 육아시설종사자의 학력은 국졸(13.9%), 중졸(13.3%), 고졸(47.1%)로서 74.3%가 고졸이하의 학력이고, 무시험으로 발급되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는 21.8%에 불과하며, 4년이 지난 본 조사에서는 보육사의 22.6%만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 자격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자격증취득과정이다. 1급 자격증 소지자들은 대학에서 사회사업(사회복지)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사회사업가로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이지 시설보육사로서 교육·훈련 받은 것이 아니다.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들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12주 또는 6주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가가 되는 기대할 수 없다. 시설장들은 보육사의 기본요건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52.2%), 직업적 사명감(21.7%)을 요구한 반면에 아동양육의 전문성은 8.7%만이 우선시 했다. 자격증 소지율이 1/5에 불과하고, 그나마 무시험 자격증인 현실에 더하여 시설장의 낮은 관념으로 인하여 시설의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진보에 따른 자

14)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 1986. p.175, 193.

생적 전문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의 전문화는 외부의 자극과 제도가 먼저 작용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육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전문보육사를 양성한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보육전문대학 2년과정이 있어 시설보육사를 전문교육 훈련시키는데 교육 마지막 3달은 시설에 입소하여 합숙 실습을 하여 졸업을 한다. 독일의 경우는 보육실업고등학교가 있으며 2년간 이론을 교육받고 마지막 1년은 출퇴근 실습을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일본의 양성제도가 적합할 것 같다. 보육사의 평균 근무연수를 2년으로 가정하면 1년에 신규 채용 인원은 1천 명이고 5년으로 보면 400명이다. 현실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해에 일 이백명의 졸업생에게는 100% 취업이 보장된다. 독립된 보육전문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차선택으로 기존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나 일반 전문대학에 2년과정의 보육학과를 설과할 수도 있다.

② 7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설배치안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92년까지 4,0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울러 전문요원을 아동시설 1개소당 2명씩 배치하는 것이 시설의 근대화화 and 민주화, 합리화 그리고 전문화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③ 현 직원의 강화된 재교육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1주일 과정으로 현직보육사를 현임교육시키고 있으나 역시 프로그램의 미비로 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조보육사를 시설당 1명씩 배치하여, 보육사의 병가나 휴가에 대비하고 장기간의 재교육에도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직원전문화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직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직원의 처우개선과 전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시설이 예민하고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 전문 대인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와 자질이 곧 바로 아동의 성장에 직결되고 시설의 육아력(育兒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 9 장

요 약 및 결 론

제 9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의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떤 차별없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제한된 자원과 수혜자의 시급한 욕구를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는 전체 청소년중에서도 가장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요보호 청소년의 생계와 교육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시설보호, 소년가장 지원사업 그리고 거택보호 등이 요보호청소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된 요보호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특히 지난 30여년간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국가와 사회의 자원 제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도 현재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수준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에 부응하며, 국가와 사회의 자원제공 능력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지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지 조사와 면접조사는 육아시설 청소년, 거택보호 청소년, 소년가장 등 요보호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시설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장, 종무, 보육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복지정책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시·군·구, 읍·면·동 청소년 관련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와 시설폐소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요보호청소년은 흔히 양 부모 또는 한쪽 부모가 유고되거나 빈곤으로 인

하여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부모역할의 대행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은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양 접근방식간에 긴밀한 교류 또는 통합적인 운영이 매우 부족했다. 특히 시설에 입소된 청소년의 7할정도는 적어도 한쪽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기에 부모(가정)에게 인계하는데 인색하였다.

그러므로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현재의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양 방식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면서 모색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청소년의 생활과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 그리고 요보호청소년의 예방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재원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의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사연구에서 발견된 사실과 지원방안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2 절 재가 요보호 청소년의 지원방안

1. 지원 현황

우리 나라에서 재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부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의 요보호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등을 실시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보호, 교육보호이다.

그런데 요보호청소년의 책정기준인 소득과 재산이 1990년의 경우 1인당 월소득 4만8천원, 가구당 재산액이 340만원 미만으로 사실상 많은 요보호청소년이 정부의 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된다. 또한 생계보호비 중에 주거비는 책정조차되어 있지 않고 부식비는 3인가족의 경우 한달에 쇠고기 3근값도 되지 않는 등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한 교육보호도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밖에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성회비 또는 육성회비와 함께 교과서대, 참고서대,

각종 준비물비 등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셈이다.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민간의 지원은 정부의 공적부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서비스의 내용도 상담, 사회교육, 결연 등 매우 빈약하다. 재가 요보호청소년 중에서도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적으나마 각종 민간단체로부터 결연금, 장학금, 위로물품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택보호대상 청소년은 민간으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거의 받지 못한 형편이다.

2. 생활과 욕구

요보호청소년의 가족구조를 보면, 소년가장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글자 그대로 소년가장가족이고 거택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거나 한쪽 부모밖에 없는 사람이 각각 반씩이다.

이들 가족이 정부의 생활 보호를 받을만큼 가난하게 된 원인으로 소년가장은 가장의 사망과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꼽는데 비하여 거택보호 청소년은 가장의 사망과 함께 가장의 장애, 가장의 무학, 가장의 노령등 가장의 기능상의 장애를 많이 들고 있다.

요보호청소년의 의식주생활은 낮은 소득과 쪼들리는 지출, 부족하고 불편한 최저생활로 요약할 수 있다.

가구수입은 거택보호대상 가족이 소년가장가족보다 많지만, 식구수도 더 많기 때문에 두 집단 요보호청소년은 모두 낮은 소득으로 학용품비, 방세, 반찬값을 걱정하고 적자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남에게 빌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요보호청소년들의 주거상태는 전세와 월세가 자가보다 많아서 방세로 인한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거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생활보호 종류는 매우 적고 보호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생계보호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고, 교육보호도 충분하다기보다는 부족하다는 평이며, 의료보호만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요보호청소년에게 가장 절실한 보호가 생계보호와 교육보호임을 볼 때 적절한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은 생활보호차원이 아니고 소액의 현금과 위로금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도 적은 것이긴 하지

만 가능한한, 골고루 주어지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요보호청소년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업에 관련된 삶의 비중이 크고, 비중이 큰 만큼 욕구도 강하다.

요보호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만 전체의 1/5정도는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습공간(공부방)이 매우 부족하고, 개인책상조차 없는 경우가 전체의 2/5나 되며 현재 학원수강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 등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학업 성적이 나쁜 이유를 기초실력이 없거나 공부환경이 나쁜 것으로 돌리고 공부가 싫거나 진학하기 어려워서라고 답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도 현재 실업계고등학생에게만 정부의 교육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실업계로 진학하고, 대학진학은 사실상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환경 때문에 요보호 청소년들은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관계, 친척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편이지만 일부 청소년은 두가지 관계에서 적어도 한가지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을 나눌 친구조차 없다는 사람이 전체의 1/4이나 되었다. 이처럼 정서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때때로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윗사람(부모나 교사등)과 상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요보호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나 이를 완화시킬만한 적절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전체의 6할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꼈고 1할이상은 1회이상 가출한 바 있다고 한다. 한편 대다수 요보호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과 가출충동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정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지원방안

①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복지법의 조문과 같이 시·군·구에 아동상담소가 설치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빈민지역과 공단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센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요보호청소년의 발

생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대도시의 주요 역과 터미널에 청소년상담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② 요보호청소년의 의식주생활에 대한 보호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주거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식의 경우 한달동안 3인가족의 부식비가 쇠고기 3근값도 안되고 소년가장에게만 지급되는 연간 피복비로는 교복 한벌도 살 수 없는 보호수준은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요보호청소년이 셋방에서 살고 있으므로, 주거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서울 등 대도시 일부지역에서 공공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요보호청소년에게 우선적인 입주권을 주는 현재의 정책은 행정적인 지침에서 법적 제도로 변화시켜져야 되고, 장차 임대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보호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지만, 의료보험과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접근이 어려운 것은 장차 전국민의 의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보다 손쉬운 접근으로는 소년가장세대 등 요보호청소년들에게 비타민과 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이 주로 소년가장에게만 집중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택보호 청소년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등을 개선하고 지역간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시·군·구간 민간지원의 지나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단위 “복지기금관리위원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요보호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에만 주어지는 교육보호를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까지로 확대시키고, 교과서대, 참고서대, 각종 준비물비용 등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재가 요보호청소년중에는 상당수가 공부방이 없고 심지어 책상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여건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야간 공부방을 점차 최소한 읍·면·동단위에 1개소이상씩 설치하고 이곳에 학습지도와 정서지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이나 관내의 교회 또는 대학 봉사동아리와 협력해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가 장학금 등의 이름으로 단순히 교육비를 보조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설학원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등 지원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직업의 이해, 예비부

모교육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같다.

④ 요보호청소년들의 정서지도에 체계적인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시급한 생계육구와 학습육구를 충족시키는데 국한되었고, 정서지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요보호청소년의 경우 정서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해소되지 않는 욕구는 흔히 가출로 나타나서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므로, 청소년의 건전성장이란 적극적인 자세에서 정서지도를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대리양육과 위탁보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보호청소년의 친척등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양육비 지급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요보호청소년의 고민상담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이 긍정적 자아관을 갖도록 각종 민간단체와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기획하는 여가활동사업에 일정 비율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일부 시·군·구청에서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등은 매우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제 3 절 시설 요보호 청소년의 지원방안

1. 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외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6·25직후부터 크게 확장되었던 시설보호사업은 한동안 주로 외원과 민간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외원의 점진적인 철수로 현재는 정부의 부담이 크게 증대되었다.

시설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은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저생활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보호청소년의 지원현황에서 열거된 각종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설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공동 책임과 민

간의 원조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아동에 대한 직접비의 전부, 연료비와 건물유지비의 80%, 그리고 인건비의 90%를 명목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요보호 대상자를 직권으로(강제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한 후에 그 보호비용을 “조치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그 금액조차도 명목상의 비용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하루 24시간을 일하는 보육사 1호봉의 월임금은 209,000원이고 그 중 188,100원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는 8시간 월 최저임금액이 165,600원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시설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의 보호와 퇴소후 자립에 있다고 볼 때, 현재의 지원내용은 생계보호에 치중되어 있고, 정서보호에는 매우 소홀히 하며 자립지원과 퇴소후 사후지도에 대해서는 소액의 정착금 지급이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이는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의 관점이 시설청소년의 생활보장이란 차원에서 보다는 생계보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청소년에 대한 민간의 지원은 복지재단과 일반사회단체의 사회복지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금등으로 대별된다. 그 중 일반 사회단체와 시민의 복지활동은 이웃돕기나 캠페인의 일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양은 많을지라도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 글에서는 주로 복지재단의 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복지재단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즉 민간 자원은 직접적인 의식주 제공보다는 주방내 취사장비나 식당의 증개축지원, 학자금지원과 도서 및 도서실 기자재제공, 생활교육프로그램 실시, 자립지원 등 정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민간 지원은 그 성격상 흔히 선별지원이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체 시설청소년에게 혜택이 가기에는 그 액수가 적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생활과 욕구

시설청소년의 생활과 욕구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은 시설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이다. 육아시설은 흔히 “고아원”으로 불리워왔지만, 오늘날 육아시설 청소년의 7할 정도는 입소당시 부모가 모두 살아있거나(34%), 적어도 아버지(14.7%) 혹은 어머니(19.7%)가 생존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소당시 같이 산 부모는 생존자보다 줄어들고, 그 중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각각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설사 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상당수가 사실상 부자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가 살아 있으되 대부분 사실상 부모자녀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겠으나, 시설에 입소된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려는 정부나 시설의 운영자의 노력부재도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다행히 시설청소년중에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는 사람이 전체의 50%나 된다는 사실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시설청소년의 외식주생활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달려있지만, 상당부분은 현재 입소하고 있는 시설의 재정형편과 운영방식에 달려있다. 시설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1년동안에 2~3벌의 겔옷과 신발을 사 입거나 신고있는데 의복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활의 경우 부식에 대한 불만도가 높고 식사방법을 현재의 단체급식에서 방별급식으로 바꾸길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어린 아동에게만 약간의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을 뿐인데 청소년들도 적당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의 지급이 요구된다. 현재의 주생활은 한 시설에 평균 94여명이 살고, 한방에 5명이상 기거하는 경우도 절반이 넘는데 반하여, 청소년들은 한방에 2~4명이 기거하길 희망한다. 또한 대부분의 방식구 구성이 터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래끼리 구성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시설청소년의 외식주생활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으나, 생존을 위협받지 않은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된 지원이 요구된다.

시설청소년은 장차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집 청소년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청소년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학업지도는 매

우 중요한 영역이다.

시설청소년은 교육보호의 혜택을 받아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 실업계에 편중되어 있다. 시설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만 있지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이 나쁜 이유로 기초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나, 시설내에서 적절한 학습지도를 받지도 못하고, 더구나 학원수강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많은 시설청소년들은 시설내에 학습지도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학습지도를 해주길 희망한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3/4정도가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을 원하고, 고등학생은 대학진학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보호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대학진학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는 이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공통으로 갖는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서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부모 자녀 관계와, 주거상의 특수성,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대체로 학업에서 뒤지는 열등의식 등으로 보다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시설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상당수의 시설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시설아”임을 밝히려 하지 않아서 아주 친한 친구나 교사에게만 신분을 공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때문이기도 하지만, 놀림을 받거나 값싼 동정을 받기 싫어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진취적인 활동을 조장할 수도 있는 학교내 단체 활동에는 이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주로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내에서는 단체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 각자의 개성이 충식되기 어렵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인 학생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시설이 절반 정도나 되었다. 그러나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자발적인 집단활동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청소년들은 청소년 고유의 갈등과 시설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서 흔히 가출충동을 느낀다. 가출충동을 느낀 모든 시설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충동

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제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되는 일이 없다”는 청소년들의 자조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자기결정하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서생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대인관계, 시설병, 자아등을 통하여 살펴보고,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대체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높아가면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에게 감정의 교류를 기대하지만, 후자는 흔히 일시적인 봉사활동이나 물질적 지원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내에 외지할 만한 직원이 없다는 사람이 과반수를 훨씬 넘고, 이러한 경향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심한 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시설병”에 대해서는 시설청소년들이 13개항목중에서 게으르다, 주의가 산만하다, 발표력이 약하다는 3가지 사항만 대체로 인정하고 나머지 10개 사항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시설병에 대한 각 집단의 반응을 보면, 청소년들은 과소평가하고 원장, 총무, 교육사, 자원봉사자등 관련 집단들은 과대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직원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병 증후군은 시설청소년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시설의 생활환경과 결부된 것이므로 시설구조의 개선과 함께 시설병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시설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미래상은 우리 사회의 중상류층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어한다. 이러한 미래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건강과 상식보다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여 학업과 장래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성격과 지적능력에 대해서는 가정집 청소년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자신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거나 차별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아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과 욕구에 맞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데, 현재 시설 청소년들은 운동, 음악 감상, 독서 등 매우 제한된 취미생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의 활용도 TV시청, 음악청

취, 운동, 독서 등에 몰려 있어서 다양화된 취미생활, 특기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시설청소년들은 취미프로그램과 함께, 직업지도, 진로지도, 예절교육, 요리교육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효과가 결국 행복한 삶과 자립여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볼 때, 자립에 대한 준비와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 청소년들은 장차 회사원, 교사, 은행원, 공무원 등 사무원이 되거나 기술자나 사업가 등이 되길 꿈꾸고 있는데,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여자는 경리 등 하급 사무원이나 전자·봉제공장의 공원이고, 남자는 기계공장의 공원 등으로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에게 병역에 대해서 붙은 결과 상당수가 빠른 자립을 위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현행제도가 좋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는 군대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현재 무차별적으로 시설청소년의 입영을 면제하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원방안

시설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상당한 부분이 재가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과 일치한다. 사실 양 집단은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차이점으로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으로서 몇몇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서로 다를 수가 없다. 다음의 진술은 시설청소년의 특수성을 살리고, 현재의 시설청소년에 대한 제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① 현행 전달체계의 개선은 먼저 전국 시·도청 소재지에는 1개소씩 공립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인구 백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아동상담소를 증설하며 이곳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를 현행 아동수비례제에서 일정아동수를 넘으면 보조금을 제감하는 일정아동수역비례제를 도입해서 시설을 소형화해야 하며 보조금의 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지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설의 책임있는 운영을 권장하고, 시설내에서 직원회나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을 활성화시켜 직원과 아동의 요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한다.

② 시설청소년에게는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고, 청소년의 반수 정도는 현재도 부모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부모나 친척의 방문을 받고 있으

므로 가족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시설청소년들은 시설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정서적 연대감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가족(부모)에 대한 적대감까지 생기므로 가정복귀 프로그램의 개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처럼 가족과 친척이 있는 아동들의 시설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가족위기나 가족해체시 시설보호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말고, 가능한 부모가 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조성에 힘쓰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당사자들도 현재 권장되고 있는 국내입양을 상당히 꺼리고 있으며 자립할 때까지 가정집에서 자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입소시 아동상담소는 부모와 입소기간을 계약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가정에 복귀하게 하고, 입소시설도 부모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을 구분해서 수용보호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③ 시설청소년의 외식주생활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외식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피복비는 1인당 1년에 43,000원씩 지급하는데, 이는 도시가구원 1인당 피복비의 1/3에 불과하며, 고등학생 1명의 교복값(하복, 동복, 오버)만도 24만 원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현행 피복비의 100%이상 인상은 불가피하다.

양곡에 대한 현물지급을 지양하고 현금으로 주거나 당분간 현물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양곡보조비의 50%만이라도 현금으로 주어 시설에서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기호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부식비는 1인당 1일 500원씩인데 이는 도시가구원의 1인당 부식비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1인당 1일 부식비를 1,300~1,500원씩 지출하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부식을 해결하므로 이러한 시설에서도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부식비의 200%인상이 필요하다.

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고 시설청소년의 보다 인간다운 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를 현재보다 30%이상 감축하고 방당 수용인원을 현행 상한인 1실당 8명을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4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④ 시설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지원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기초학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서 학습지도 전담교사를 채용하거나 자원봉

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시설청소년의 열악한 학습환경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고, 단체 생활에 시간을 빼앗기며, 과외공부를 받기 어렵고, 교육비가 부족하며,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보호의 범위를 인문계고등학교와 대학교입학급으로 확대해서 자질있는 학생들이 학습에 의욕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정부는 수업료만이 아니라 각종 공식적인 교육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시설내에 학습지도실을 아동 20명당 1개실씩 설치하고,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청소년들이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초실력이 없어서 학습을 포기한다는 것을 볼 때 조기에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이 절실하다.

⑤ 시설청소년의 정서생활과 관련된 지원은 그동안 거의 없었거나 흔히 단순한 행사일변도로 실시되었는데 이를 지양하고 청소년이 정체감을 갖고 곳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설 직원이 담당하는 아동수를 적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교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즉 보육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7명이내로 줄이고, 현재 105명이상 시설에만 1명씩 채용하는 생활지도교사를 아동 20명당 1인으로 하향 규정해야 한다. 시설청소년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 대한 낙인감때문에 학교내 집단활동 등에서 소원하게 됨을 고려하여, 시설청소년들의 교내 집단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별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시설 직원과 교사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TV시청, 라디오청취, 운동, 독서에 할애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적극적인 특기개발을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설에서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현재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형식적인 집회나 행사에 그치는 정도인데,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하여 이들이 스스로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서지원활동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정부는 전문인력 배치와 필요한 예산의 할당 등 자원공급의 임무를 맡고, 민간단체와 각 시설은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자원과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실정과 시설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매년 시도

별로 프로그램경진대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⑥ 시설청소년의 자립은 퇴소후 취업, 주거확보, 사회 적응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등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에 많은 장애가 놓여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의 차별인식, 취업처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생산적인 점, 주거가 매우 불안하고 주거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 인간관계가 미숙하다는 점인데 퇴소후 자립과정에서 시설이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퇴소전에 직업에 대한 예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임시방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현장 견학과 함께 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취업처가 영세·생산업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훈련의 다변화와 함께 치밀한 직업 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전문직원을 늘리거나 현재의 생활지도교사를 증원해서 생활지도와 취업지도 그리고 사후지도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일관성있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세의 청소년이 자립하기에는 취업과 함께 주거지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자립정착금만으로는 전세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동료들과 자취를 하는데, 퇴소청소년의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4곳 밖에 없는 자립생활관의 증설이 요구된다.

⑦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기여한다. 그동안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별로 취해지지 않았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문제중 대표적인 것은 운영비의 일부 자부담, 정부보조금의 비현실성, 법정 배치직원의 부적합성, 법인 이사회 의 형식적 운영과 비민주적 시설운영, 시설직원의 부당한 근로조건 등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곧 시설운영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시설 법인이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법인중 수익사업용 재산을 가진 경우는 겨우 2할에 불과하므로 요보호국민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차원에서 표준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법인부담금은 자율화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법정배치직원을 선진국수준으로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 형

식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사회를 개혁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운영을 민주화·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즉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는 현재의 법인과 시설을 공익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의 전문화는 전문직원의 업무속에서 구현되는 것인데 현직원의 74%가 고졸이하의 학력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3%에 불과하여 ‘시설의 전문화’란 시대적 여망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낙후된 현장은 개혁의 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로만이 해동과 타개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사는 응분의 대우만 주어지면 대학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으나,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사를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없으므로 보육전문대학의 설립이 절박한 현실이다. 또한 7급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설배치는 시설전문화를 위한 가장 실현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설직원의 근로조건은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몰인격적인 처우 등에서 가장 나쁜 상태이다. 이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이직율이 높은데다 구인난까지 증폭되어 이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시설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인적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의 보장, 8시간 노동제의 확보, 경력·근무조건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인 시설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보, 1990. 3.

김국도·하길웅,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김석산, 육아시설아동의 원인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가능성에 관한 연구, 송전대 석사학위논문, 1984

김영모, 수도 서울의 아동복지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72.

김영모,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0.

김영석, 도시빈민론, 아침, 1985

민명철, 한국아동복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73

보건사회부, 아동과 청소년의 지도자회의 보고서, 1971

보건사회부, 아동과 청소년의 지도자 세미나 보고서, 1972

보건사회부, 시범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85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89, 1990.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서상목, 최일성, 김상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영세민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82.

서울특별시경찰국, 서울의 청소년-’87소년경찰 증점추진방향-제 4 집 1987.

서울대학교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성격과 생활실태-서울 사당동 재개발지역 사례연구-1987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행정, 1990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청소년, 1983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산재단 10년, 1987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의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1987
- 안창수와 4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이정호의 3인,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아침, 1985
-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출판부, 1984
- 정기원,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정원석외 4인,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 중앙대학교부설 사회복지관,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사업의 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부, 1987
-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백서, 1988~1990.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 최 현, 청소년정책의 파급효과분석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1989
-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보모수첩, 1971.
-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 한국복지정책연구소·한국사회사업 시설연합회, 요보호아동의 장기전망과 대책, 198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3 회 전국사회복지대회,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과제-, 198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근무자 퇴직금 이대로 좋은가, 1988.
-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9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89.
-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아동복지, 창간호~통권 3호, 1988~1990.
- 한국어린이재단,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1988.
- 한국어린이재단, 미아발생 원인에 관한 조치 및 미아예방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1988.
- 한국여성개발원,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1988.

논 문

- 김영모외, “한국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안, 사회정책연구 제 10 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 김영미 · 이윤실 · 임미순 · 장명숙, “시설졸업생의 근황에 대한 제반연구”, 사회봉사연구, 매듭동우회
- 김환준,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위상”, 사회복지 통권 100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 허영구, “결연사업의 정책을 위한 소고,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봉사연구, 매듭동우회
- 이정호, “가두직업청소년의 선도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집,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2.
- 이필영 · 이영옥, “소년가장 가족보호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2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회, 1988
- 김학렬 “소년가장 가정복지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사례연구, 소년가장 세대주에 대한 자립방안”, 한국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사례연구, 제 2 집, 1986
- 이덕희 “소년가장세대의 실태 및 대책방안, 소년가장가정 자립방안, 시설결연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사례연구, 제 3 집, 1987.
- 최현숙 “소녀가장 자립을 위한 서비스방향”, 한국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사례연구, 제 4 집, 1988

2) 외국문헌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Standards for Services of Child Welfare Institutions, 1964.
- 石井哲夫・伊部英南, 現代の 福祉施設運営, 中央法規出版, 東京, 1987
-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研修センター, 兒童福祉論, 東京, 1988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 問題の 現状と 對策, 東京, 1987

부

록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재가 청소년용 질문지 —

인 사 말

청소년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1989년도에 정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여러분의 생활형편과 요구사항을 알아보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온 여러 가지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되었는가를 알아보아, 좀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마지막 문항까지 정확하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여러분의 장래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질문지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중고등학생 나이)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1990년 7월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소 : 157-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산 218

I. 일반사항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나 사망자도 포함)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나 이 : 만()세

3. 현재 살고 있는 주소 : 시(도) 구(군) 동(읍, 면)

4. 가족사항

관계	성별	나이	학력	직업	함께사는지의 여부	사망여부
아버지						
어머니						
나						

II. 생계 (생활)

다음은 여러분의 생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의 월평균 수입액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① 10만원 이하 ② 11-15만원 ③ 16-20만원 ④ 21-25만원
 ⑤ 26-30만원 ⑥ 31만원 이상

2. 자신의 가정이 가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장의 사망 ② 가장의 노령 ③ 가장의 장애 (사고) ④ 가장의 무학
 ⑤ 가장의 무직 ⑥ 부모의 별거나 이혼 ⑦ 기타 ()

3. (소년·소녀 가정의 경우) 본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이전에도 가난하였습니까?

- ① 가난하였다 ② 보통이었다 ③ 부유한 편이었다

4. 부모님이 돈을 벌 수 없었을 때, 생계 대책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 ②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③ 부모의 유산이 있었다 ④ 기타 ()

5.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① 가족과 의논하여 내가 한다 ② 친척어른이 대신 결정한다
③ 친척어른의 조언을 받아 내가 한다 ④ 나 혼자서 결정한다
⑤ 기타 ()

6. 앞으로 가게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

(2) 방법이 없는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내용입니다. 이 지원이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난에 ○표 하십시오.

구 분	충분하다	어느정도충분하다	적당하다	약간부족하다	아주부족하다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8. 현재 정부기관의 도움 이외에 다른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1) 도움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사회복지 단체의 도움 ② 종교단체의 도움 ③ 일반기업체의 도움
④ 친지의 도움 ⑤ 이웃의 도움 ⑥ 학교의 도움 ⑦ 기타 ()

(2) 도움을 받은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월평균 얼마이며, 어떻게 전달 받습니까?

가) 월평균 ()만원

나)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 ② 가끔 받는다 ③ 기타 ()

9.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대강 얼마입니까?
()만원
10. 가장 걱정되는 지출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방세 ② 반찬값 ③ 학용품비 ④ 의복비 ⑤ 용돈 ⑥ 기타()
11. 수입액(버는돈)과 지출액(쓰는돈)은 무엇이 더 많습니까?
① 수입액 ② 지출액 ③ 둘이 같다 ④ 모르겠다
12.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충당합니까?
① 부업을 한다 ② 빌린다 ③ 지출액을 줄인다 ④ 방법이 없다
⑤ 기타 ()
13. 주거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일세 ⑤ 기타 ()
14. 사용하는 방은 몇개입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이상
15. 방은 누구와 같이 사용합니까?
① 모든 식구 ② 형제 ③ 기타 ()
16. 밥짓는 것은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나 ④ 형제
⑤ 때에 따라 다르다 ⑥ 기타 ()
17. 만일 주거문제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① 임대아파트 ② 아파트분양 ③ 전세 보증금 융자 ④ 기타 ()
18. 임대아파트를 빌려줄 경우, 매월 5만원 정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① 부담할 수 있다 ②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다
③ 부담할 수 없다 ④ 잘 모르겠다
19.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에 만족합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이다
④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살림을 알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
20. 집에서 먹는 밥이나 반찬에 대해 만족합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이다 ④ 매우불만이다

21. 개인 용돈은 학달에 얼마나 씁니까?

- ① 한달에 ()원 ② 없다

22. 용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니까?

- ① 학용품 ② 책 ③ 일상용품 ④ 옷 ⑤ 만화, 오락 ⑥ 군것질
⑦ 저축 ⑧ 선물 ⑨ 문화(연극, 영화, 음악회, 스포츠경기, 취미씨클 등)

23. 기타 생계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III. 학업 및 직업

다음은 학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교(야간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주간) ③ 실업계 고등학교(주간)
④ 인문계 고등학교(야간) ⑤ 실업계 고등학교(야간) ⑥ 기술학교
⑦ 기타()

2. (중학생만 대답하십시오)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① 인문계 고등학교(주간) ② 인문계 고등학교(야간)
③ 실업계 고등학교(주간) ④ 실업계 고등학교(야간)
⑤ 기술학교 ⑥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 ⑦ 진학하지 않았다

3.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진학을 희망한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4년제대학 ② 전문대학 ③ 기술학교 ④ 기타()

4.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문과 ② 이과 ③ 공과 ④ 경상계열 ⑤ 법과
⑥ 사범계열 ⑦ 기타()

5. 대학 진학을 안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력이 없어서 ② 실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③ 자립부터 해야하므로
④ 공부보다는 직업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⑤ 기타()

6.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부를 하고 싶어서 ②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③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④ 내 처지를 바꾸기 위하여
⑤ 기타()

7. 지금의 학교생활이 어떻습니까?

- ① 학교생활이 즐겁다 ② 그냥 그렇다
③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 ④ 학교 다니기가 싫다

8. **학업성적은** 반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상(1~20등) ② 중(21~40등) ③ 하(41~60등)

9. (학교성적이 나쁜 경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① 기초실력이 없어서 ② 공부환경이 나빠서 ③ 공부하기가 싫어서
④ 열심히해도 고등학교, 대학진학이 어려우므로 ⑤ 이성문제 때문에
⑥ 학교친구 때문에 ⑦ 학교선생님과과의 문제 때문에
⑧ 기타()

10.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아서 ② 인문계에 갈 실력이 안되어서
③ 졸업후의 자립 때문에 ④ 대학에 갈 경제적 형편이 안되어서

11.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그저 그렇다 ③ 불만

12. 자신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가지고 있다 ② 형제들과 같이 쓴다
③ 가족이 한방에서 살기 때문에 공부방이 없다

3. 직업의 근무형태는?

- ① 고정직 ② 임시직 ③ 시간제 ④ 기타()

4. 보수 지급형태는?

- ① 월급 ② 주급 ③ 일급 ④ 시간제 ⑤ 기타()

5.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 ① 5시간이하 ② 6~8시간 ③ 9~11시간 ④ 12시간 이상
⑤ 기타()

6. 보수를 제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1) (혹시 보수를 제때에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의 책임 ② 회사의 개인적 이유 ③ 모르겠다
④ 기타()

7. 기타 회사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오.

8. 과거에 직업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수가 적어서 ② 일이 힘들어서 ③ 시간계약 때문에
④ 기타()

9. 정부에서 관리하는 직업훈련원에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훈련받은 경험이 있다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2) 훈련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원이 있는지를 몰라서 ② 훈련기간중의 가족의 생계문제 때문에
③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④ 기타()

10. 현재의 직업훈련원 훈련 기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② 기간이 짧다 ③ 길다

11. 정부의 직업훈련원과 사설의 학원을 비교해볼 때 어느쪽이 직업을 얻는데 실
질적입니까?
① 직업훈련원 ② 사설학원 ③ 모르겠다
(1) 직업훈련원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설학원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현재의 보수는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① 크게 보탬이 된다 ② 다소 보탬이 된다 ③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
13. 여러분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을 자세히 써주십시오.
(1) 가장 하고 싶은 직업 ()
(2) 두번째로 희망하는 직업 ()
14. 생업으로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자만 쓰십시오)
15. 기타 직업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IV. 정서적인 면

다음은 여러분의 정서적인 면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항
에 ○표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1. 현재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만족한다 ② 그저그렇다 ③ 만족스럽지 못하다 ④ 잘모르겠다
2.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명랑하다 ② 우울하다 ③ 보통이다

3.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이 고민을 나눌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여러명 있다 ② 한두명 있다 ③ 없다
4. 학교의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합니까?
 ① 대체로 이해하는 편이다 ② 자신을 아는 몇사람만 이해한다
 ③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5. 가족관계는 원만한 편입니까?
 ① 원만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원만치 못하다
 (1)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가족결손 ③ 기타()
6. 친척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원만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원만치 못하다
7. 친척이 도움을 주는 경우, 어떠한 마음으로 도와 준다고 생각합니까?
 ① 여유가 있어서 ② 친척이란 도의적 책임으로
 ③ 주변에서의 눈치때문에 ④ 기타 ()
8.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나 씨클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 있다면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친구의 권유로 ② 사회복지기관의 권유로
 ③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④ 기타 ()
- (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돈이 없어서
 ④ 돈도 없지만,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
9.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누구와 상담합니까?
 ① 부모님 ② 친구 ③ 선생님 ④ 형제
 ⑤ 사회복지기관 상담가 ⑥ 잘 상담하지 않는다.
10. 상담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느낍니까?
 ① 아주 필요하다 ② 간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거의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11.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있다면 몇번이나 있습니까?

()번

12.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 ① 자주있다(한달에 1번이상 정도) ② 가끔있다(세달에 1번 정도)
③ 드물게 있다(일년에 1번 정도) ④ 거의 없다

13.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어려운 생활이 싫어서 ② 돈을 벌기 위해서
③ 부모나 형제가 못살게 굴어서 ④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⑤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⑥ 기타 ()

14.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이용한적이 있다면, 어떠한 일로 이용하였습니까?

- ① 자신의 문제 상담 ② 가족의 문제 상담
③ 경제적 문제 ④ 기타 ()

15. 사회복지기관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모르겠다

(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②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③ 기타 ()

(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② 이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③ 기타 ()

16. 자신의 가난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자신의 부모 ② 자신 ③ 정부 ④ 사회
⑤ 기타 ()

17.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생활이 어려워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 도움을 받아 고맙지만 창피하게 생각한다
③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맙게 생각한다
④ 기타 ()

18.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19. 혹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20.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학업지도 ② 정서지도 ③ 인격발달
 ④ 고민상담 ⑤ 기타 ()
21.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열심히 생활한다
 ② 아무계획은 없으나 열심히 생활한다
 ③ 그저 그렇게 지낸다
 ④ 사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22. 여러분은 40살정도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① 사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람 ② 평범한 사회인
 ③ 사회 자립에 실패하여 고생하는 사람
23. 성인이 되어 자립을 할 때, 생활자세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자립심 ② 원만한 인간관계 ③ 근면성
 ④ 정직성 ⑤ 적극성 ⑥ 사회 적응력
 ⑦ 사회의 편견극복 ⑧ 기타 ()
24.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25.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26. 지금까지 정부기관이나 그외 민간사회단체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느낌이나 앞으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넣고 여러분의 주소를 쓴 다음,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시설청소년용 질문지 —

인 사 말

시설청소년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전육성을 위하여 1989년도에 정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시설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설생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총무님, 보육사 선생님들과 함께 시설 청소년들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번 연구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정성된 대답이 꼭 필요합니다. 문항이 조금은 많습디다만, 이 모두가 우리 시설 청소년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오니 마지막 문항까지 정확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위와 장마속에서 기말고사 준비에 열중할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여러분 장래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7월

한국 청소년 연구원

주소 : 157-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5 동 산218

I. 일반사항

1. 성 별 : (남, 여)

2. 나 이 : 만()세

3.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영아원에서 왔음 ②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 대도시
③ 기타 도시 ④ 농촌 · 어촌 ⑤ 모름

4. 처음 시설에 왔을 때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만()세

5. 가족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자세히 대답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시설에 입소하기전의 가족과 친척은 모두 누구였습니까?(당시에 살아계셨던 사람들 모두에게 '○'표 하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할아버지() ④ 친할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삼촌() ⑧ 고모()
⑨ 이모() ⑩ 외삼촌() ⑪ 없 다()

(2)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모두에 '○'표 하십시오)

- ① 영아원에서 생활()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친할아버지 · 할머니() ⑤ 외할아버지 · 할머니() ⑥ 고모()
⑦ 삼촌() ⑧ 이모() ⑨ 외삼촌() ⑩ 모르겠다()

(3)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방학중에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보통 몇일정도 지내다 옵니까?

- ① 방문하지 않는다 ② 보통 그날로 ③ 보통 하룻밤 차고
④ 3~4일 지내고 ⑤ 일주일 정도 지내고 ⑥ 한달 정도 지내고

(4) 시설에 가끔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할아버지 · 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 할머니() ⑤ 고모() ⑥ 삼촌()
⑦ 이모() ⑧ 외삼촌() ⑨ 형제자매 ⑩ 없 다()

6.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는 모두 누구 누구입니까?

- ① 형()명 ② 누나()명 ③ 언니()명
④ 남동생() ⑤ 여동생()명 ⑥ 없다()

II. 의식주 문제

1. 1989년도 1년동안에 겉옷과 신발을 얼마만큼 샀습니까?

- (1) 겉옷()벌
(2) 신발()켤레

2. 가지고 있는 옷의 가지수에 만족합니까?

-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④ 매우 불만

3. 시설에서 먹는 국이나 반찬에 만족합니까?

-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④ 매우 불만

4. 시설에서 먹는 밥에 만족합니까?

-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④ 매우 불만

5. 시설에서의 식사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 ① 식당에서 시설 전체 아동이 함께 먹는다
② 각 집별로 따로 먹는다

6. 시설에서의 식사방법은 어떤 식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식당에서 모두 함께 먹는 것 ② 각 집별로 먹는 것
③ 어떤 식이라도 좋다 ④ 모르겠다

7. 시설에서 간식은 1주일에 몇번 먹습니까?

1주일에 ()번

8. 먹고 싶은 간식을 두가지만 쓰십시오.

- (1) 가장 먹고 싶은 것()
(2) 두번째로 먹고 싶은 것()

9. 지금 쓰고 있는 방에서 몇명이 같이 잠을 잡니까? ()명

10. 한방을 몇명 이서 쓰고 있습니까? ()명
11.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의 식구는 어떤 형태입니까?
 ① 같은 학년끼리 모여서 ② 고학년과 저학년이 섞여서
12. 여러분은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이 어떤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같은 학년끼리 모인 형태 ② 고학년과 저학년이 섞여 사는 형태
 ③ 어느 쪽이라도 좋다 ④ 모르겠다
13. 현재 시설에는 없으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① 체육시설(농구대, 탁구대 등) ② 학생회의실 ③ 시청각실
 ④ 도서실(공부방) ⑤ 휴게실 ⑥ 특별활동실
 ⑦ 자원봉사자에게서 학습지도받는 방 ⑧ 각 집별 주방
14. 현재 여러분의 시설에는 몇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명
15. 한 시설의 전체 아동수는 몇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30명 미만 ② 30~39명 ③ 40~49명
 ④ 50~59명 ⑤ 60~69명 ⑥ 70~79명
 ⑦ 80~89명 ⑧ 90~99명 ⑨ 100명 이상
16. 보모님 한사람 아래에서 몇명이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4명 이하 ② 5-7명 ③ 8-10명 ④ 11-15명
17. 보모님 두분이서 12시간씩 교대로 여러분을 맡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① 좋은 것이다 ② 나쁜 것이다 ③ 모르겠다
18. 방이나 공부방(도서실)에 개인 책상을 갖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시설로부터 용돈은 한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① 한달에 _____ 원 ② 없다
20. (용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만 묻습니다) 시설에서 받는 용돈을 주로 무엇에 사용합니까?
 ① 학용품 ② 책 ③ 일상용품 ④ 옷
 ⑤ 만화, 오락 ⑥ 군것질 ⑦ 저축 ⑧ 선물
 ⑨ 문화(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 취미씨를 등)

Ⅲ. 학교생활

1. 현재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중학교 ()학년 ②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없음
- ③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 ()년 ()개월째
- ④ 고등학교(인문계, 상업, 공업, 농업, 기술학교), (주간, 야간), ()학년
- ⑤ 중퇴

2. 지금의 학교생활이 어떻습니까?

- ① 학교생활이 즐겁다 ② 그냥 다닌다
- ③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 ④ 학교 다니기가 싫다

3. 학업성적은 반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한반에 60명이라면)

- ① 상(1~20등) ② 중(21~40등) ③ 하(41~60등)

4. (학교성적이 나쁜 경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① 기초실력이 없어서 ② 공부환경이 나빠서 ③ 공부하기가 싫어서
- ④ 열심히해도 고등학교, 대학교진학이 어려우므로
- ⑤ 이성문제 때문에 ⑥ 학교친구 때문에 ⑦ 학교선생님과의 문제 때문에
- ⑧ 시설직원과의 갈등문제 때문에

5. 학교친구들에게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지냈습니까?

- ① 아주 친한 친구()명에게만 말했다
- ② 가능한 한 밝히지 않는다 ③ 절대 모르게 한다

6. (5번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사람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설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② 친구가 알게 되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 ③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서 ④ 다른 이유()

7. 학교다닐 때, 시설아이(고아원아이)라고 놀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국민학교때 : ① 자주 있다 ② 드물게 있다 ③ 없다
- (2) 중 학교 때 : ① 자주 있다 ② 드물게 있다 ③ 없다
- (3) 고등학교때 : ① 자주 있다 ② 드물게 있다 ③ 없다

8. 놀림을 받았다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슬퍼서 울기도 했다 ② 속으로 꼭 참았다
- ③ 놀린아이와 말다툼을 했다 ④ 놀린아이를 때려주었다

9. 수업시간으로 정해진 특별활동시간이외에, 다른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한다면 가입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 하고 있지 않다 ② 보이·결스카웃트 ③ 누리단, 한별단 ④ R.C.Y
⑤ 봉사단 ⑥ 합창단 ⑦ 운동부 ⑧ 기타()

10.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이 없다 ②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③ 돈도 없지만 다른 아이들하고 섞이기 싫어서
④ 돈은 시설에서 대주지만, 다른 아이들하고 섞이기 싫어서
⑤ 시간이 없어서 ⑥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싫어서

11. 좋아하는 과목 두가지만 쓰십시오

(), ()

12. 싫어하는 과목 두가지만 쓰십시오.

(), ()

13. 담임선생님께서 시설의 형편이나 시설에서의 나의 생활을 좀 더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자세히 알면 좋겠다 ② 될 수 있으면 모르는 것이 좋겠다.
③ 잘 모르겠다

14.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그러 그렇다 ③ 나쁘다 ④ 아주 나쁘다

15. (중학생만 대답하십시오) 고등학교 진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상고 ③ 공고 ④ 농고
⑤ 기술학교 ⑥ 아직 정하지 못했다 ⑦ 진학하지 않겠다

16.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아서 ② 인문계에 갈 실력이 안되서
③ 시설에서 권장하여서 ④ 대학에 갈 경제적 형편이 안되어서
⑤ 퇴소후의 자립 때문에

17.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답하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그저 그렇다 ③ 불만

IV. 시설생활

1.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 대답하십시오)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는 한달에 평균 몇번 출석하십니까?
① 한달에 ()번 ② 안 나간다
2.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성당, 절)에 나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앙심이 없어서 ② 가정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져서
③ 가정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④ 다른 이유()
3. 시설에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설 아동만 대답하십시오) 학생회의 회장단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① 사무실(총무, 원장)에서 임명 ②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추천
③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자격만 제시 ④ 원생들이 자유로이 선거
5. (학생회가 있는 시설의 아동만 대답하십시오) 학생회가 원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① 큰 도움을 준다 ② 약간 도움을 준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 도움을 못준다 ⑤ 없는 편이 더 낫다
6.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나 친척 ② 보모선생님 ③ 상담교사(원목, 생활지도교사)
④ 총무 ⑤ 원장 ⑥ 학교선생님 ⑦ 자원봉사자
⑧ 후원자 ⑨ 교회 ⑩ 사회, 국가
7.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음 사항중에서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는 어느 것입니까?
① 공부 ② 진로(진학, 취업) ③ 학교친구와의 관계
④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⑤ 시설친구와의 관계 ⑥ 시설연장자와와의 관계
⑦ 시설직원과의 관계 ⑧ 자신의 성격문제 ⑨ 건강문제
⑩ 가족의 일 ⑪ 이성문제 ⑫ 장래의 일
⑬ 학비문제

16. (자원 봉사자의 학습지도나 정서지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봉사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② 봉사자의 열의가 부족해서
 ③ 만나는 시간이 짧아서 ④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⑤ 봉사자가 싫어서 ⑥ 환경이 나빠서
17.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공부 ② 취미, 특기생활 ③ 일반상식
 ④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이해 ⑤ 장래문제에 대한 생각
18. 자원봉사자와의 연결이 어떤 점에서 필요합니까?
- ① 학습지도로서 필요 ② 정서지도로서 필요
 ③ 인격발달에 필요 ④ 별로 필요한 쓸 모르겠다
 ⑤ 필요 없다
19. 자원봉사자의 시설방문 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시설아동을 돕기 위해서 온다 ② 봉사자가 자기만족을 채우려고 온다
 ③ 모르겠다.
20. 시설퇴소후에도 지금의 자원봉사자를 계속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계속 만나고 싶다 ② 모르겠다 ③ 만나지 않겠다
21. 후원자에게 인사편지나 감사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에서 씁니까?
- 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쓴다 ② 그냥 쓴다 ③ 억지로 쓴다
22. 후원자가 어떻게 해 주었을 때가 제일 고맙습니까?
- ① 후원금이나 선물(금)을 보내 주었을 때 ② 편지를 해 주었을 때
 ③ 시설에 찾아 왔을 때 ④ 어떤 경우도 고맙지 않다
23. 원장님이나 총무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것 중에서 특히 기뻐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써 주십시오.
24. 보모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것 중에서 특히 기뻐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써 주십시오.

25. 원장님이나 총무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써 주십시오

26. 보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써 주십시오

27. 여러분은 보모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교생이 많다고 생각한다 ②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모르겠다

28. 시설의 보모님이 얼마동안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오랫동안 ② 약 5년 정도
③ 자주 바뀌어도 괜찮다 ④ 모르겠다

29. 보모님의 시설근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오로지 신앙심과 희생정신으로 봉사만 해야 한다.
② 직장인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 ③ 모르겠다

30. 보모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 ① 엄마처럼 생각한다 ② 직원선생님으로 생각한다
③ 누나, 언니로 생각한다 ④ 모르겠다

31. 현재의 시설생활은 즐겁습니까?

- ① 매우 즐겁다 ② 그럭저럭 즐겁다 ③ 별로 즐겁지 않다
④ 전혀 즐겁지 않다 ⑤ 모르겠다

32. 취미는 무엇입니까

33. 특기는 무엇입니까?

41. 시설행사에 참가할 때의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 ① 어떤 행사라도 기쁘게 참가하고 있다.
 ② 행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쁘게 참가하는 것이 많다
 ③ 대체로 마지못해 참가하고 있다 ④ 대체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42. 직접 참여하여 가장 배우고 싶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요리교육 ② 다도교육 ③ 예절교육
 ④ 성교육 ⑤ 부모역할교육 ⑥ 바느질 교육
 ⑦ 진로지도교육 ⑧ 직업의 종류 특성 교육 ⑨ 취미교육
 ⑩ 다른 것()번
43. 42번의 선택항목중에서 두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도 무엇입니까?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44. 평소 시설에서, 하루에 어느정도 공부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정도
 ④ 3시간 정도 ⑤ 3시간 이상 ⑥ 정해져 있지 않다
45. 여러분은 과외공부(외부과외공부, 사설학원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현재 다니고 있다
46.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나의 장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②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
 ③ 공부를 잘해도 사회의 차별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공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47. 여러분이 학업을 지도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의 지도로 충분하다 ② 시설 선생들의 지도
 ③ 자원봉사자의 지도 ④ 학습지도 전담 직원의 체용
48. 가출(탈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 ① 자주있다(한달에1번 이상 정도) ② 가끔있다(세달에1번정도)
 ③ 드물게 있다(일년에1번정도) ④거의 없다
49. (가출 충동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가출 충동은 1년중에서 주로 몇월달에 일어납니까?
 ()월달

57. 여러분은 자신의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남보다 우수하다 ② 남들과 비슷하다 ③ 남보다 떨어진다

58. 여러분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존중받고 있다 ② 사회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③ 버림받고 있다 ④ 모르겠다

59. 18세 이전에 시설을 떠나 귀가한다면(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 ① 부모님께 ② 친척집에라도
③ 모르는 사람집에라도 ④ 다른 시설로
⑤ 그냥 지금의 시설에 살겠다 ⑥ 모르겠다

60. 입양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해외입양이면 좋겠다 ② 국내입양이면 좋겠다
③ 입양보다는 자립할 때까지만 양육받는 가정생활이면 좋겠다
④ 다른 생각 없이 시설에서 살겠다

61. 시설생활중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 | |
|---------------------|------------------|
| ① 오락시설 () | ② 목욕시설 () |
| ③ 책, 학용품 () | ④ 침실의 냉난방 () |
| ⑤ 학습지도 () | ⑥ 상담지도 () |
| ⑦ 직원들의 태도 () | ⑧ 예배강요 () |
| ⑨ 집합, 구타, 구박 () | ⑩ 외출 () |
| ⑪ 치료 () | ⑫ 학업 () |
| ⑬ 자유시간 () | ⑭ 귀가 () |
| ⑮ 퇴소 () | |

62.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명랑하다 ② 우울하다 ③ 보통이다

63. 다음 항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희망하는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것입니까? 그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 ① 원만한 가정생활 ② 하루하루를 편안하게만 살고 싶다
③ 부자가 되고 싶다 ④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 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
⑦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⑧ 적성에 맞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5. 취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 ① 봉급 ② 숙식문제 ③ 직업의 안정성 ④ 직업의 성취감
⑤ 사회적 공헌도 ⑥ 다른 것 ()
6. 퇴소후 취업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자립심부족 ② 사회적 적응력 결핍 ③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④ 아는 사람이 없다 ⑤ 학력과 실력의 부족 ⑥ 취직기회가 없다
⑦ 거처가 없다 ⑧ 다른 것()
7. 퇴소후 자립을 할 때, 생활자세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자립심 ② 원만한 인간관계 ③ 근면성
④ 정직성 ⑤ 적극성 ⑥ 사회 적응력
⑦ 사회의 편견극복 ⑧ 다른 것()
8. 만18세에 시설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너무 빠르다 ② 적당하다 ③ 늦다
9. 퇴소후 생활할 처처로 가족 또는 친척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① 없다 ② 부모집 ③ 친할아버지 할머니집
④ 외할아버지 할머니집 ⑤ 고모집 ⑥ 삼촌집
⑦ 이모집 ⑧ 외삼촌 집 ⑨ 친형, 친언니집
10. 퇴소후의 정해진 거처가 없어, 자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겠다 ② 시설의 선배나 동기들과 함께
③ 혼자서 ④ 그때 가봐야 알겠다
11. (가족이 있는 학생에게만 묻습니다) 퇴소후 가족을 찾아, 함께 살 것입니까?
- ① 꼭 찾아 함께 살겠다 ② 찾더라도 같이 사는 것은 상황을 봐야겠다
③ 찾지 않겠다 ④ 지금은 모르겠다
12. 퇴소후 지금의 시설을 자주 방문할 것입니까?
- ① 자주 오겠다(일년에 한번 이상) ② 가끔 오겠다(2~3년에 한번 정도)
③ 잘 모르겠다 ④ 안 오겠다
13. 40살이 되었을 때, 우리사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상 ② 중 ③ 하

14. 시설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① 불이익 차별이 많을 것 같다 ② 불이익 차별이 약간 있을 것이다
 ③ 차별이 없을 것이다 ④ 오히려 도움을 받을 것이다
 ⑤ 모르겠다
15. 여러분이 장차 결혼하였을 때, 각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맡을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① 잘 해낼 것이다 ②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것이다
 ③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④ 모르겠다
16. 고등학교 졸업후, 직업훈련원에 입소할 희망이 있습니까?
 ① 취업이 되면 안 갈 것이다 ②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입소하고 싶다
 ③ 취업이 안되도 가지 않을 것이다
17. (남학생만 대답하십시오) 병역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군대에 가는 것이 좋다 ② 면제 받을 수만 있다면 안가는 것이 좋다
 ③ 모르겠다
18. (군대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남들과 평등한 인생을 살고 싶다 ② 퇴소후에 할 일이 없어서
 ③ 군대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강인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것 같아서
 ④ 다른 이유
19. (군대에 안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생이 될 것 같아서 ②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③ 하루 빨리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④ 다른 이유
20. 아무 제한없이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하나만 써 보십시오.
21. 끝으로 여러분과 같은 시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장차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사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